

포럼25-0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일시 2025. 7. 28. [월] 15:00~18:00

장소 서울 포스트 타워 스카이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일현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청년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직접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위해 멀리서 방문해 주신 오병돈 뉴욕주립공과대학교 교수님, 미와 사토시 렛쿄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스기타 마이 동경도립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여러 선생님들과 발표, 토론, 사회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박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6년 동북아청년분석센터를 시작으로 청년정책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 기반 조성과 긴급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이슈 분석과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여 성인으로 흘러 서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에 더해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청년들은 첫 취업, 결혼, 독립 등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학업 종료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1년으로 늘어났으며,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하는 조기 취업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는 시기도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청년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회구조나 문화가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앞서 맞닥뜨린 경험이 있어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년국제포럼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 일 현

開会挨拶

皆様、こんにちは。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の院長白一鉉(ペク・イルヒョン)でございます。

この度、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では「青年の交差する人生経路—韓国と日本の成人期移行」をテーマとして、青年国際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ご多忙の中、本フォーラムにてご関心をお寄せいただき、また、直接ご参加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特に、本日のご発表のため、遠路より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ニューヨーク州立工科大学のオ・ビヨンドン教授、立教大学の 三輪哲教授、東京都立大学の杉田真衣教授に、深甚なる感謝の意を表します。

また、討論にご参加くださる大邱韓医大学のカン・ヨンベ教授、韓国労働研究院のキム・ユビン主任研究委員、韓国雇用情報院のチョン・ジェヒョン研究委員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さらに、本フォーラムの準備と運営に尽力いただいた当研究院の関係者各位ならびに、発表・討論・司会などの皆様のご参加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本フォーラムは、当研究院の「青年政策分析評価センター」と「グローバル青少年研究センター」の共催により開催されております。当院は、2016年の「東北アジア青年分析センター」設立を皮切りに、青年政策研究組織を構成・運営し、これを通じて青年政策に関する中長期的な基盤の構築と、緊急課題への迅速な対応を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なお、今年、「青年政策分析評価センター」を新設することで、青年実態に関する統計資料及びおよび青年政策資料の全般を収集し、データベース化を進める一方、青年をめぐる様々な社会的イシューを反映したフォーラムやセミナーでの議論を通じて、青年が抱えている様々な困難や課題を診断し、解決策を模索しております。

現在、韓国においては、青少年が経済的・社会的に自立し、成人として独立する時期が遅延する傾向にあり、従来の青少年政策に加えて、青年政策への関心がますます高まっております。初職就や結婚、独立などの一連の過程において青年たちは様々困難に直面しており、とりわけ、「学校から就労への移行過程」において諸困難を経験しております。

最近の調査によれば、学業修了後、就職までの期間は平均1年に延びており、卒業後3か月以内に就職する「早期就業率」は低下傾向にあります。また、結婚や独立の時期も2000年と比べて、おおむね4~5年遅れる傾向が見られます。



本フォーラムでは、韓国と日本の事例分析を通じて、青年たちが直面する課題の解決策を模索し、未来の社会を担う主役として青年が活躍できる方策について、真摯な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日本は、我が国と社会構造や文化的背景が類似しており、また、我が国が直面している諸問題を先行して経験してきたことから、その事例は多くの示唆を与えてくれ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本日の青年国際フォーラムが、皆様にとって有意義かつ実り多い時間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祈念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皆様の今後の研究と活動の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2025年 7月 28日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長 **白一鉉**

프로그램 개요

◎ 일 기: 2025년 7월 28일(월), 15:00~18:00

◎ 장 소: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한·일 동기 통역

사회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30~15:00(30') 등록

인사말

백일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10~15:35(25') **발제 1**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5~16:00(25') **발제 2**

엇갈린 삶의 경로

: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

오병돈 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교)

16:00~16:25(25') **발제 3**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미와 사토시 교수(일본 릿쿄대학교)

16:25~16:50(25') **발제 4**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 12년 면접조사 결과

스기타 마이 준교수(일본 동경도립대학교)

16:50~17:00(10') 휴식

좌장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0~17:40(40') **지정토론**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정재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유민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40~18:00(2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 차

주제발표

주제발표1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 3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역자료1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
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 21

キム・ギホン 主任研究委員(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주제발표2 Diverging Pathways: A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Independence,
Among Young Korean Men and Women 39

Dr. Byeongdon Oh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SUNY Polytechnic Institute)

변역자료2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 65

오병돈 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교)

주제발표3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 91

三輪 哲 教授(立教大学)

변역자료3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05

미와사토시 교수(リトコ대학교)

주제발표4 不安定社会における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 119

杉田 真衣 准教授(東京都立大学)

변역자료4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 139

스기타마이 준교수(동경도립대학교)

목 차

토론자료

지정토론1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에 대한 토론문 .. 161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변역자료1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

に対する討論 167

カン・ヨンベ 教授(大邱韓医大学)

지정토론2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에 대한

토론문 173

김유빈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변역자료2 「交差する人生経路：韓国青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縦断的な潜在クラス

分析」に対する討論 179

キム・ユビン 主任研究委員(韓国労働研究院)

지정토론3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85

정재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변역자료3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に

に対する討論 189

チョン・ジェヒョン 研究委員(韓国雇用情報院)

지정토론4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문 .. 193

유민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역자료4 「不安定社会における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に

に対する討論 199

ユ・ミンサン 主任研究委員(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주제발표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주제발표1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야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07. 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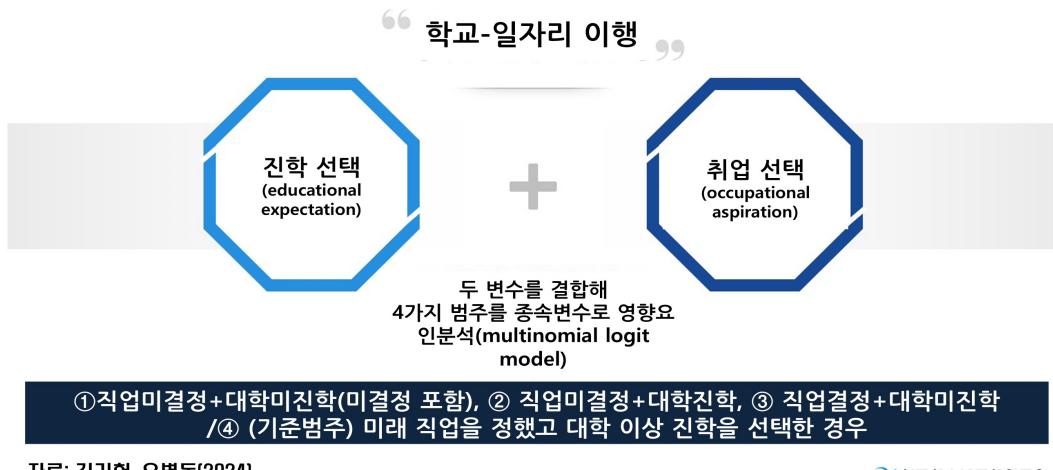
1장 연구 목적과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장 연구 목적과 방법

01 연구 목적 및 분석 내용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갈림길에 놓인 시기로 이 연구는 교육기대(educational expectation)와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인기 이행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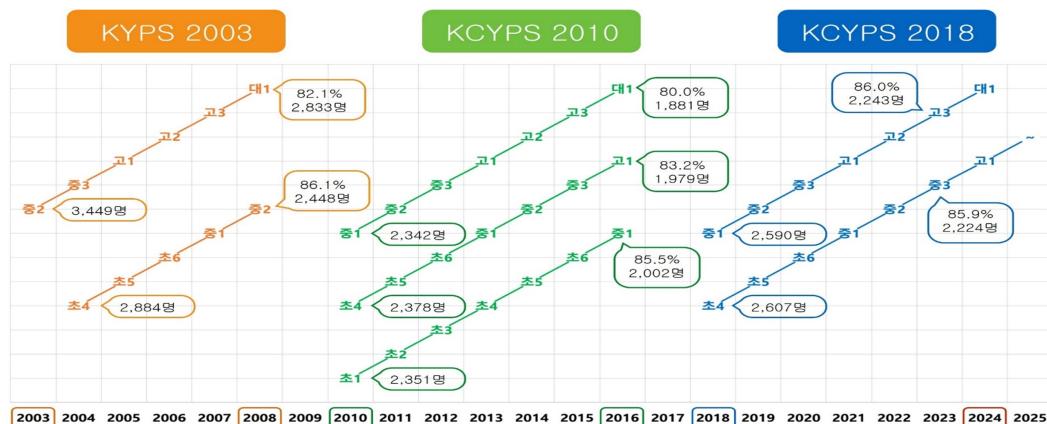
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02 연구 방법 – 분석 자료

-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3기에 걸쳐서 청소년과 아동(2기부터), 보호자, 형제자매(3기부터) 대상 조사

- 1기(KYPS2003)는 2008년까지, 2기(KCYPs2010)는 2016년, 3기(KCYPs2018)는 2024년까지 수행

<본조사 연도별 조사 현황>



자료: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령(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02 조사 현황 - 분석자료

- 3개 코호트의 고3시점 교육 및 취업선택을 종속변수로 선형연구들을 토대로 독립변수들의 영향 분석

- 독립변수들은 성별, 학업성취도,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자존감, 가족배경 변수, 고교계열 및 소재지 등

<본조사 연도별 조사 현황>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조사 대상

청소년 + 보호자
청소년 : 직업선택,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 생활시간,
자아관 등

아동 · 청소년 + 보호자

아동 · 청소년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아동 · 청소년 + 명제자매 : 기본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 스페셜모듈

조사 내용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 **기본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 · 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모듈**

조사 방식

청소년 :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 전화조사

아동 · 청소년 :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 전화조사

아동 · 청소년 + 명제자매: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 **개별 면접 조사**

자료: 하영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영(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01 아동 · 청소년패널 조사 코호트 결과 비교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3개 코호트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4년제 대학까지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

- 반면, 고졸 희망자는 2007년 2.9%에서 2015년 7.6%로 증가했으나 2023년 3.1%로 급감, 대학원 역시 크게 감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육기대 분포(%, 2007/2015/2023년)>



자료: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원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0, 2017) 원자료
출처: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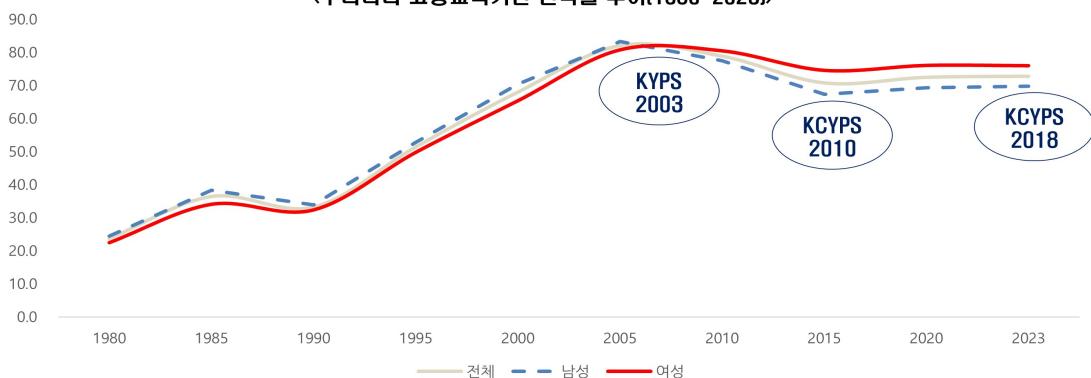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 각 코호트별 학교 이행 여건을 살펴보면, KYPS 2003 코호트는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을 때 고3 시기를 보냄

- KCYPS 2010 코호트는 대학진학률이 완화되었던 시점에, KCYPS 2018은 진학률이 유지하는 시점에 고3 시기를 보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1980~2023)>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10.29.). 등록기준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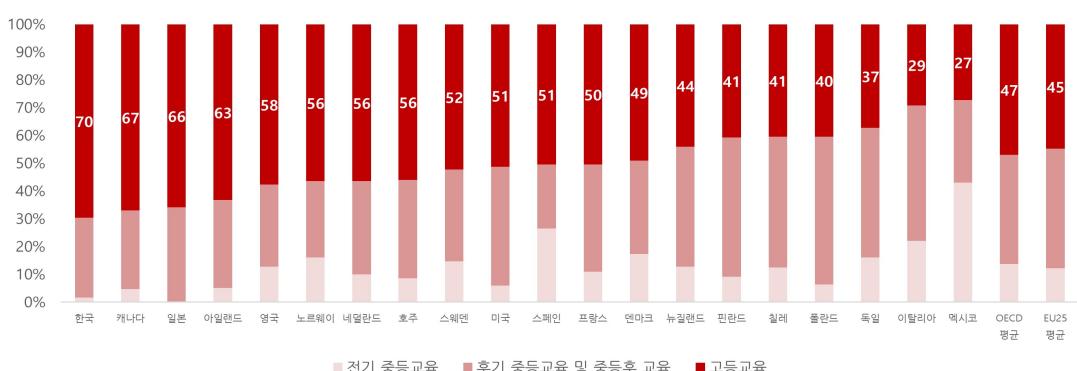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 OECD 국가 중 25~34세 인구에서 최종 교육수준이 고등교육 이상인 비율은 한국이 최고 수준을 보여줌.

-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3%p나 높은 수준이며 EU 보다도 26%p나 높은 수준임.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국제비교(%), 2022년>



자료: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검색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오병돈(2024: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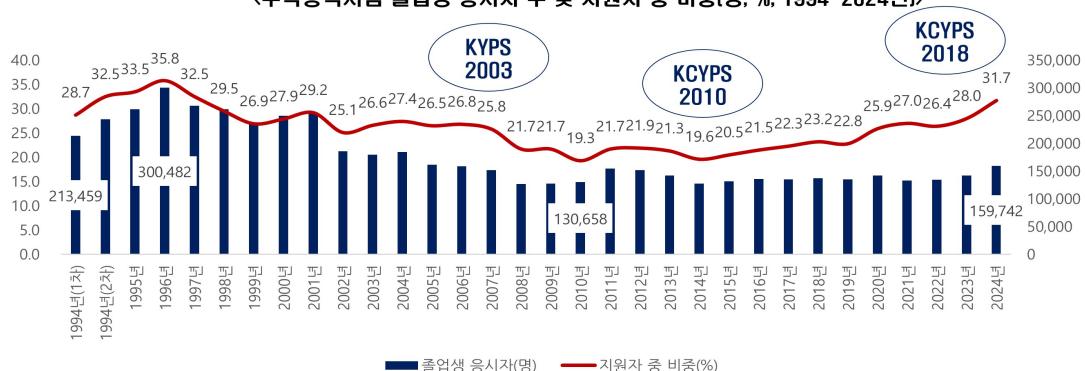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 KCYPS 2010 코호트의 고3 시기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학생생활기록부로 별는 수시전형이 확대됨.

- KCYPS2019 코호트의 경우 졸업생에게 유리한 정시 확대와 쉬운 수능 출제,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크게 늘어남.

<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자 수 및 지원자 중 비중(명, %, 1994~2024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4). 수능통계(<https://www.suneung.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오병돈(2024: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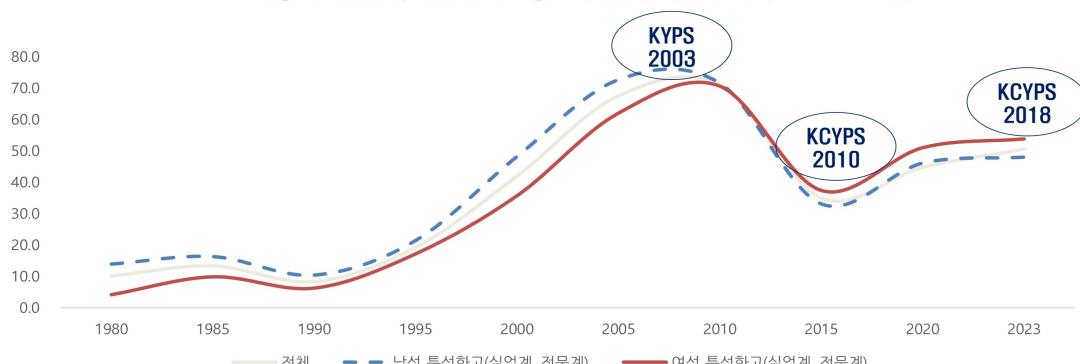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o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 고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KCYPS 2010 코호트 시기에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크게 감소

- 이 시기에 고졸 취업 지원이 활발했는데 KCYPS 2018의 경우 잇따른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진학 상승세로 전환

<특성화고(실업계, 직업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1980~2023년>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10.29.). 등록기준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2장 고3 시기의 진학 선택

o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 OECD 국가 중 25~34세 인구에서 고등교육 이상 비율은 최고 수준이지만 석사·박사학위자 비중은 전혀 다른 상황임

- 우리나라 청년의 석사, 박사학위비중은 3.1%로 OECD 보다 12%p나 낮은 수준이며 EU 보다도 16%p나 낮은 수준임.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석사·박사학위자 비율 국제비교(%), 2022년>



자료: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검색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오병돈(2024: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KYP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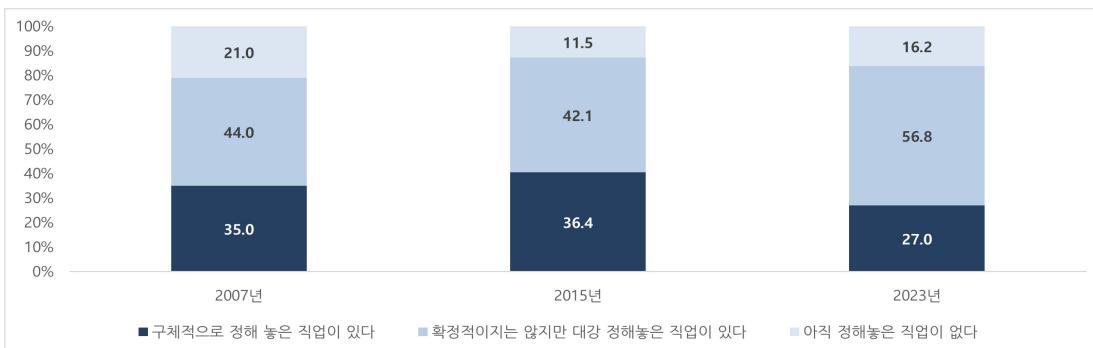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1 아동 · 청소년패널 조사 코호트 결과 비교

고3 학생의 직업 선택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은 2023년 크게 감소(9.4%p)

“아직 정해놓은 직업이 없다”는 응답은 반대로 2015년 11.5%에서 2023년 16.2%로 증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직업선택 분포(%), 2007/2015/2023년>



자료: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원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2017) 원자료
출처: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KYP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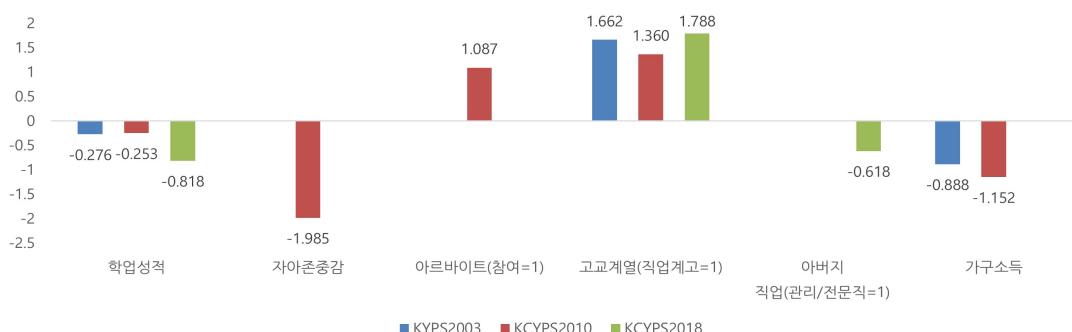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1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코호트 결과 비교

- 취업결정 및 대학진학 대비 취업미결정 및 대학미진학(미결정 포함) 가능성이 직업계고의 경우 매우 높게 추정됨.

- 아르바이트 경험은 정(+)의 효과를, 학업성적이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족배경은 부(-) 효과를 보여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계수, 취업미결정 · 대학미진학/취업결정 · 대학진학)>



자료: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원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0, 2017) 원자료
출처: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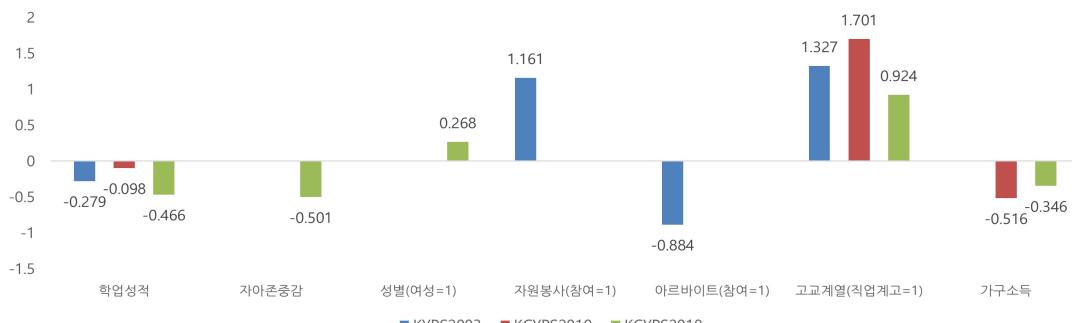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1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코호트 결과 비교

- 직업을 정하고 대학에 가는 대신 진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직업계고인 경우가 높게 추정됨.

- 자원봉사 경험은 정(+)의 효과를, 학업성적이나 자존감, 아르바이트 경험, 가구소득은 부(-)의 효과를 보여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계수, 취업미결정 · 대학미진학/취업결정 · 대학진학)>



자료: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원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0, 2017) 원자료
출처: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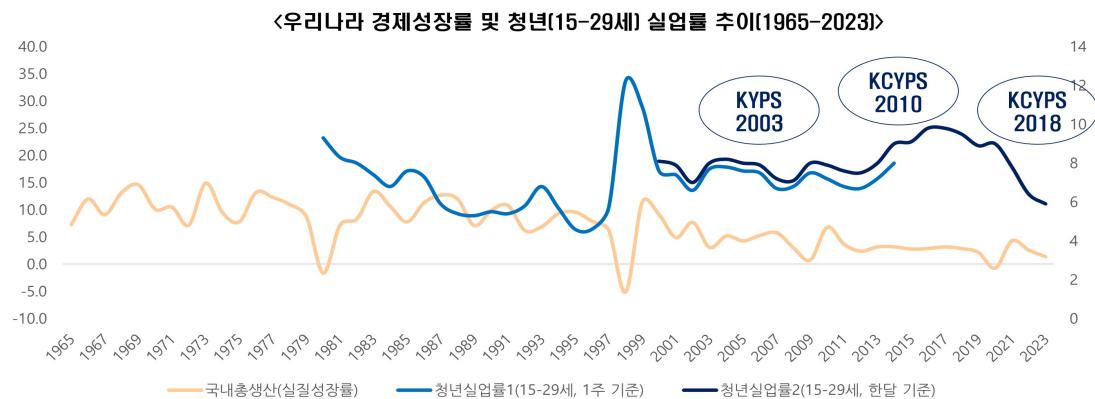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청년 실업률(15~29세)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로 급등한 후 낮아졌으나 2009 글로벌위기 이후 상승

- 엔데믹의 기저효과와 저출생 여파로 2022년 이후 청년 실업률 감소, KCYPS 2018 코호트 직업미결정 비중은 증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연령집단별 실업률은 1980년부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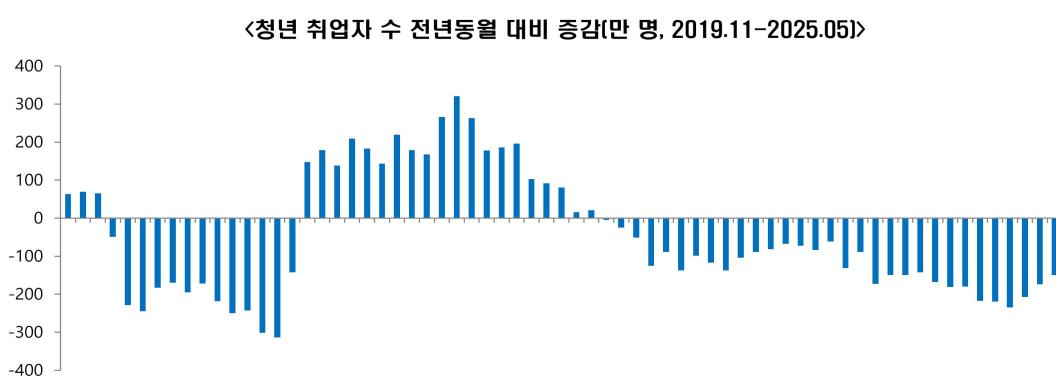
17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월별로 2022년 추세를 보면 첫년 치어가 소는 2022년 반년 이후 2023년 오히려 가스 추세

- 청년 창업자 수 마이너스(-) 충세는 2025년 5월까지 지속 체감 고용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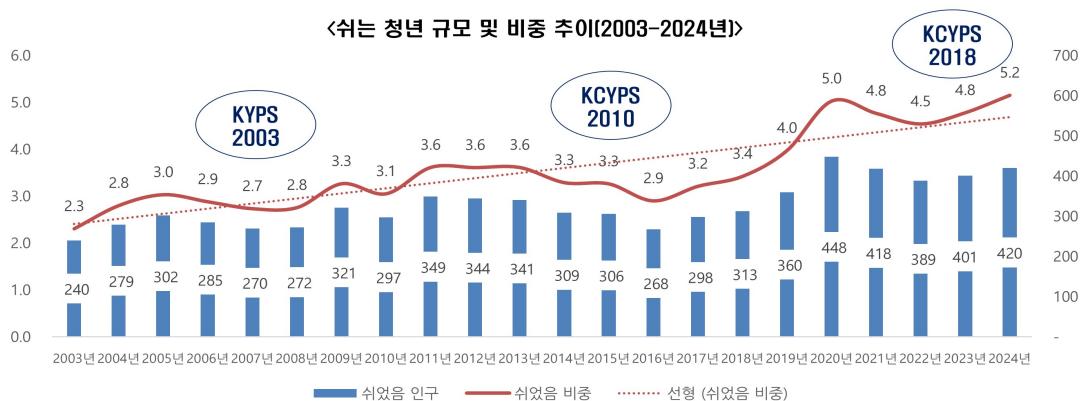
新课标人教版小学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 주로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 비율은 2020년 들어 급격히 증가 사회 문제로 대두

- 초기 코로나 영향이 커으나 엔데믹 이후에도 청년 비정규직 증가와 신규졸업자 취업경쟁 심화 등으로 계속 증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쉬는 청년 통계는 2003년부터 집계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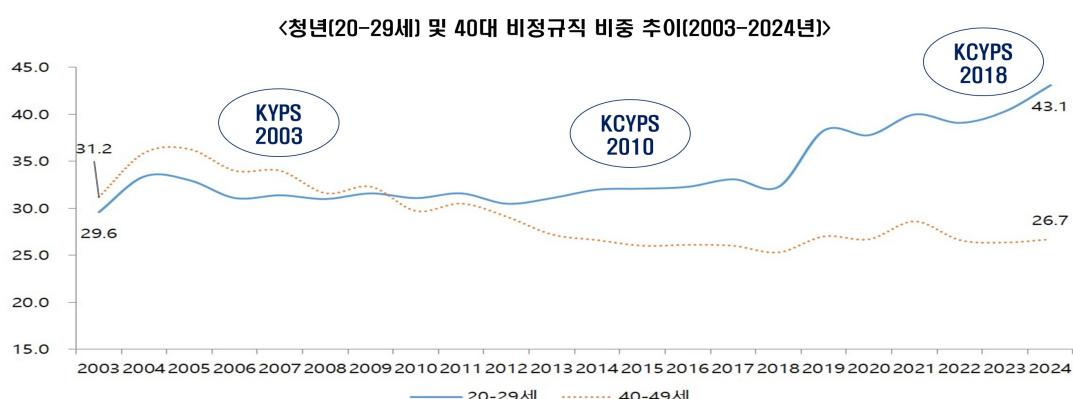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 쓸림 현상을 가져오고 미래의 직업 결정에 어려움을 가져옴.

-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크게 증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쉬는 청년 통계는 2003년부터 집계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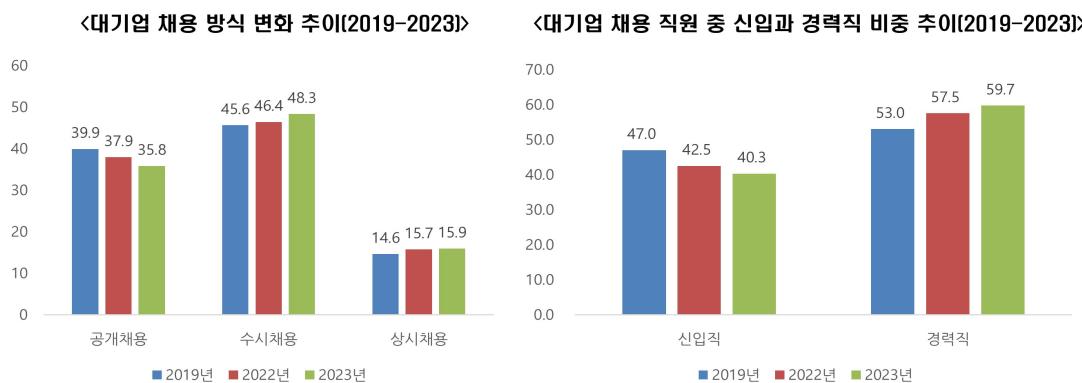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은 기업의 채용 방식이 공개, 신입직에서 수시(상시), 경력직으로 바꾸면서 더욱 어려워짐.

-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2019년 39.9%에서 2023년 35.8%로, 신입직 비중은 같은 기간 47.0%에서 40.3%로 감소



자료: 이상준, 노세리, 오진욱, 박지성, 노성철(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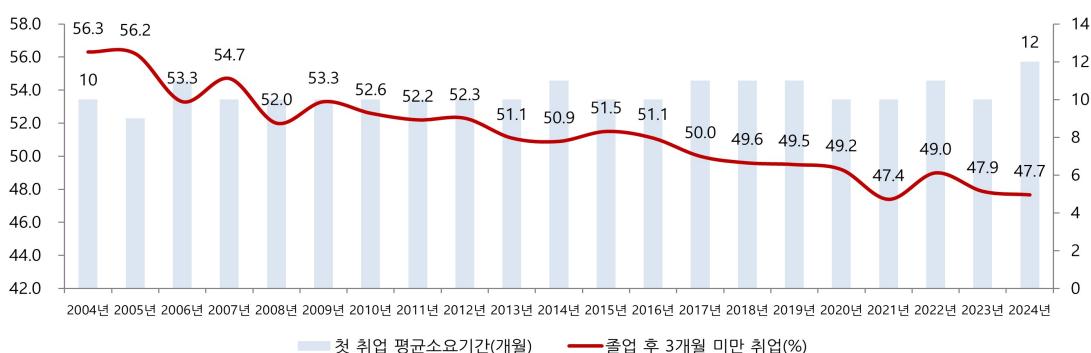
3장 고3 시기의 취업 선택과 영향요인

02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to Work)

-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소요기간은 2004년 10개월에서 2024년 12개월로 증가

- 3개월 미만 조기 취업 비율은 2004년 56.3%에서 2024년 47.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줌

<청년(15~29세)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 기간 및 조기취업 비율 추이(개월, %, 2004~2024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5월) 각 년도 월별 결과. 2024년 8월 8일 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3장

정책적 시사점

▲ 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장 정책적 시사점

01 정책 방향



3장 정책적 시사점

o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3장 정책적 시사점

o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1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는 조기 개입과
예방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임

2

유럽연합은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실업을
비롯한 니트화 예방 주력

3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니트비율 감소 가시적 성과

4

코로나 이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
사업 확장 추진 중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 Youth Guarantee – a driver for reform | |
|---------------------------------------|--|
| A. Accelerated reform | DE, DK, FR, NL, PL, TC, EL, LV, PL, PT, SI |
| B. Reinforced policy framework | AT, DE, DK, ES, PT, H, LU, MT, NL, SE, UK |
| C. More limited reform | CY, CZ, EL, ES, RO, SK |

▶ 유럽연합은 청년 실업자와 청년 니트(NEET)의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보장제를 2013년부터 추진함.

▶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실업자이거나 니트(NEET)일 경우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보장제 이행과 관련하여 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② 조기 개입(니트 상태에서 개입하는 시점을 4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대응), ③ 노동시장 통합(채용장려금, 임금보조금 등 실업자 지원과 니트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촉진 지원 등을 통합해 운영), ④ 유럽연합 예산의 적극적 활용(회원국의 재정투자 외에 유럽사회기금, 청년고용 이니셔티브 등 EU 재정 연계), ⑤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⑥ 신속한 이행(2013년까지 실행계획 수립) 등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3장 정책적 시사점

o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1

학교-일자리 이행 집중 지원을 위한 첫 출발은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 연계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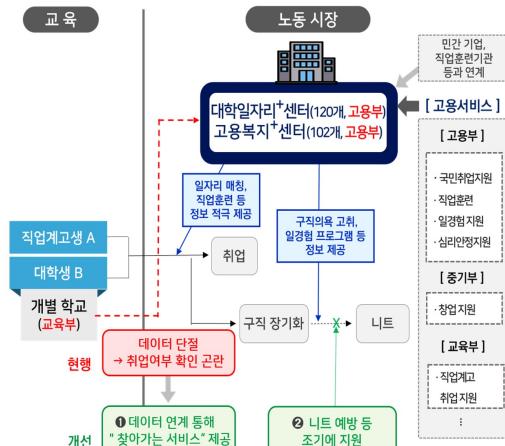
2

기획재정부 주도로 2024년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 매칭하기 위한 사업 추진

3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법적으로 정보 연계 근거 마련 필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추진체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

3장 정책적 시사점

o3 진학과 취업 선택지의 다변화

1

직업계고 정상화는 성인기 이행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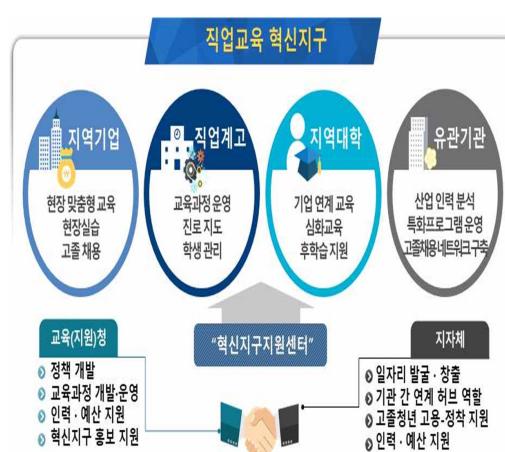
2

산업안전 이슈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산실로 탈바꿈 필요

3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학과 개편, 마이스터고 확대 등 강화 필요

직업교육 혁신지구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8

3장 정책적 시사점

03 진학과 취업 선택지의 다변화

1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 된다면 쓸림 현상과 대출 경쟁 완화에 기여

2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인력 어려움 가중, 생활비 지원 등 개선책도 등장

3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감사합니다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1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 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

キム・ギホン 主任研究委員(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青年政策分析評価センター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

キム・ギホン 主任研究委員(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2025. 07. 28.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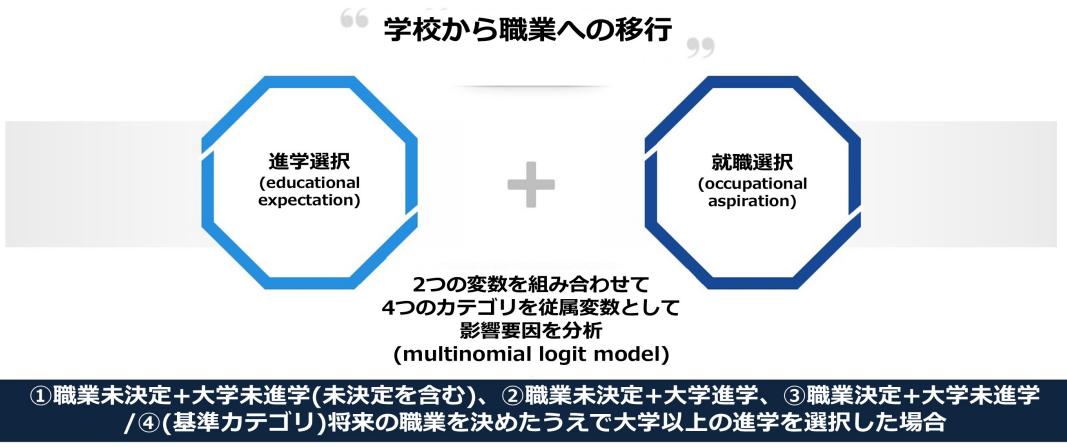
第1章 研究の目的と方法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第1章 研究の目的と方法

01 研究目的と分析内容

成人期移行において、高校3年生は大学進学と就職という進路の分岐点にあたり、本研究は教育期待(educational expectation)と職業志望(occupational aspiration)に対する分析を通じて、韓国の成人期移行の特性を明らかにし、政策的な示唆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資料：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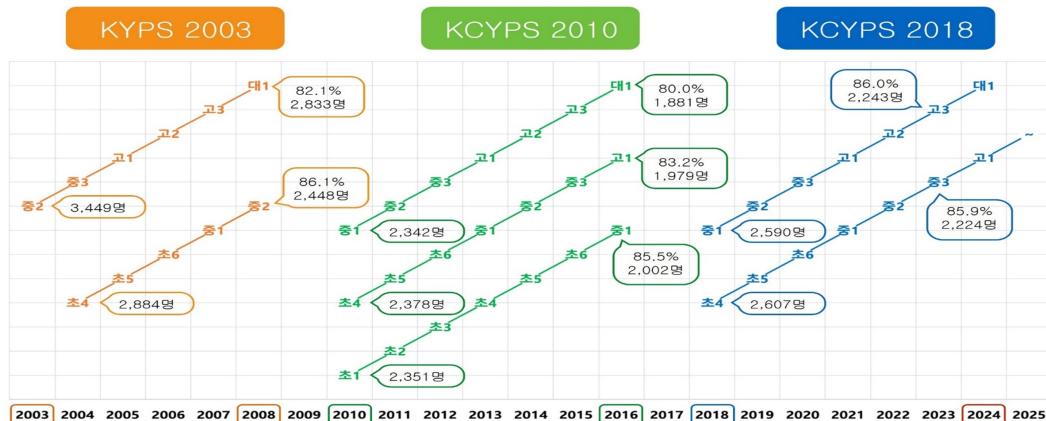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第1章 研究の目的と方法

02 研究方法 - 分析データ

-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は3つのコホートで実施され、青少年と保護者、児童(2期から)、兄弟姉妹(3期から)を対象に調査
- 1期(KYPS 2003)は2008年まで、2期(KCYS 2010)は2016年、3期(KCYS 2018)は2024年まで実施

<本調査の年度別調査の現況>



資料：ハ・ヒョンソク, キム・ギホン, チェ・インジエ, ハン・ジヒョン(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第1章 研究の目的と方法

02 調査の現況 - 分析データ

- 3つのコホートの高校3年時の教育・就職選択を従属変数として、先行研究を基に独立変数の影響を分析

- 独立変数：性別、学業成績、ボランティア活動、アルバイト、自己肯定感、家族背景、高校の系列・所在地など

<本調査の年度別調査の現況>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조사 대상

청소년 + 보호자
청소년 : 직업선택,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 생활시간,
자아관 등

아동 · 청소년 + 보호자

아동 · 청소년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발
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지역
사회,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아동 · 청소년 + 경제자매 + 보호자

아동 · 청소년 + 경제자매 : 기본모
델[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
발달 등) 및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
구, 매체, 활동문화환경 등)]
+ 스페셜모델

조사 내용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 기본모델[배경변인[학력, 직
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
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 · 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모델

조사 방식

청소년 : 개별 면접 조사

아동 · 청소년 : 개별 면접 조사

아동 · 청소년 + 경제자매 :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 전화조사

보호자 : 전화조사

보호자 : 개별 면접 조사

資料: ハ・ヒョンソク, キム・ギホン, チェ・インジェ, ハン・ジヒョン(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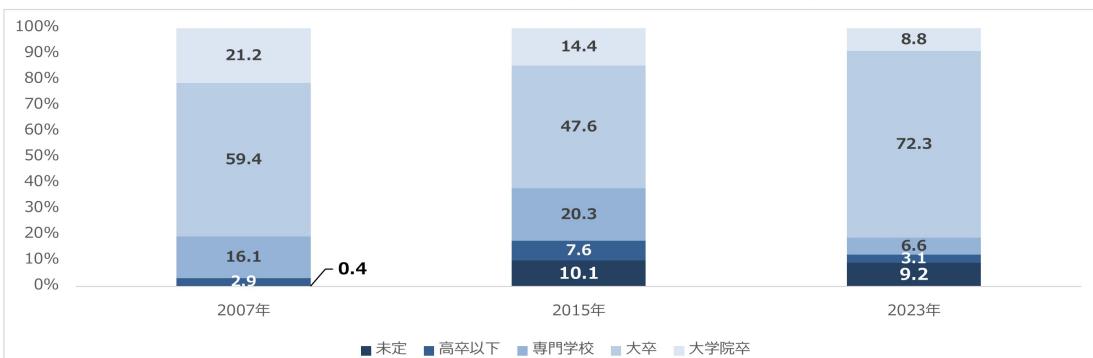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1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コホート別比較

-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3つのコホートで、最近であるほど4年制の大学まで進学を希望するという回答が大きく増加

- 反面、高卒希望者は2007年2.9%から2015年7.6%へと増加するも、2023年3.1%へと急減、大学院も大きく減少

<高校3年生の教育期待の分布(%, 2007/2015/2023年)>



資料：青少年パネル調査(KYPS 2003)原資料、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KCYS 2010, 2017)原資料
出典：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 (2024). 2024 韓国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データ分析報告書-成人期移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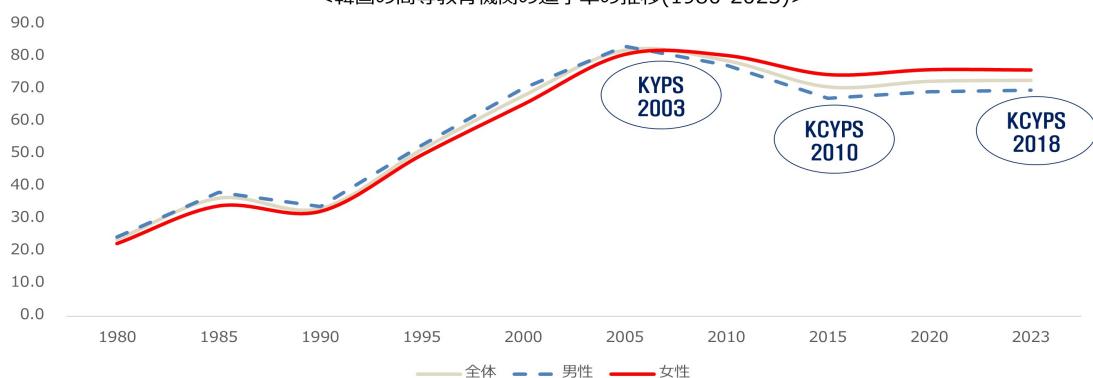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2 学業継続(school continuation)の実態

- 各コホート別の学業継続の状況を見てみると、KYPS 2003コホートは大学進学率が最も高い時期に高校3年生を迎えた

- KCYS 2010コホートは大学進学率が低下傾向にあった時期、KCYS 2018は進学率が横ばいだった時期に高校3年生を迎えた

<韓国の高等教育機関の進学率の推移(1980-2023)>



資料：教育部.韓国教育開発院 教育統計サービス(2024). KESS(<https://kess.kedi.re.kr/>)データ取得(検索日：2024.10.29.)。登録基準。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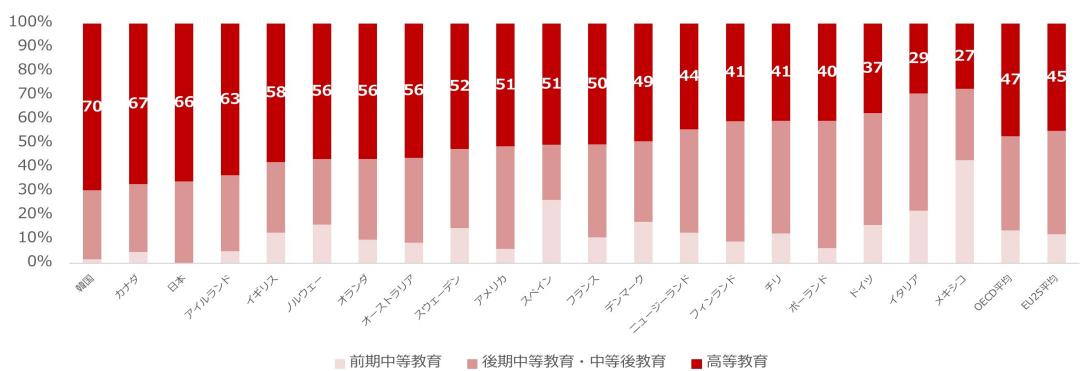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2 学業継続(school continuation)の実態

- OECD加盟国の中25-34歳の人口における教育水準が高等教育以上の比率は、韓国が最高水準となっている

- 韓国の若年層の高等教育の比率はOECD平均より23%pも高い水準であり、EUより26%pも高い水準

<25-34歳の最終教育水準の国際比較(%, 2022年)>



資料 :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検索日 : 2024.09.14.)
出典 : 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2024: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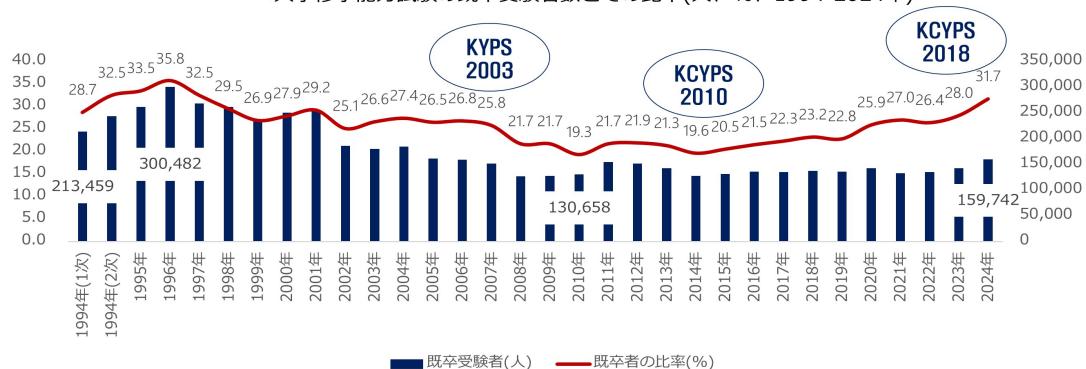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2 学業継続(school continuation)の実態

- KCYPS 2010コホートが高3時に入学査定官制度が導入され、学生生活記録簿(内申書)による随時選考(総合型選抜)が拡大

- KCYPS 2019コホートは、既卒者に有利な一般選考の拡大、易化した共通テスト、医学部の定員拡大により浪人生が大幅に増加

<大学修学能力試験の既卒受験者数とその比率(人、%、1994-2024年)>



資料 : 韓国教育課程評価院(2024). 大学修学能力試験統計(<https://www.suneung.re.kr/>)データ取得(検索日 : 2024.09.14.)
出典 : 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2024: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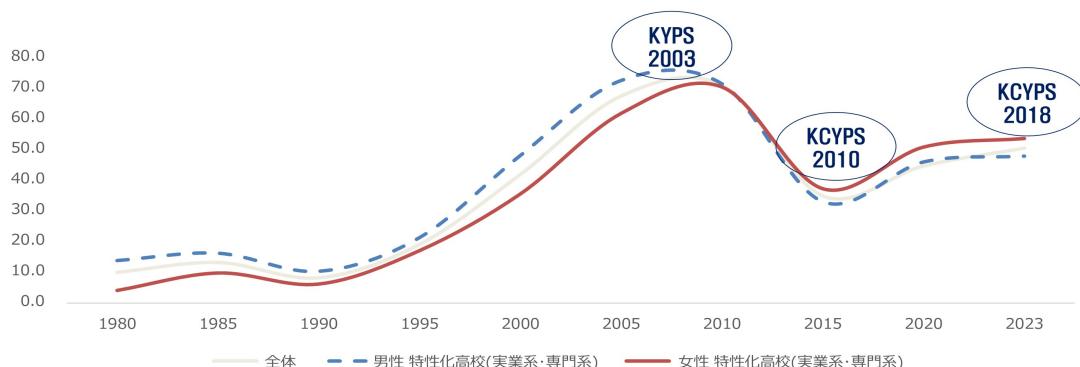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2 学業継続(school continuation)の実態

- 高卒を選択する比率が高かったKCYPS 2010コホートの時期に特性化高校卒業者の大学進学率は大きく減少

- この時期に高卒の就職志望が強まっていたが、KCYPS 2018では相次ぐ現場実習での死亡事故により進学が上昇に転じた

<特性化高校(実業系・職業系高校)の高等教育機関進学率の推移(%、1980-2023年)>



資料：教育部.韓国教育開発院教育統計サービス(2024). KESS(<https://kess.kedi.re.kr/>)データ取得(検索日：2024.10.29.)。登録基準。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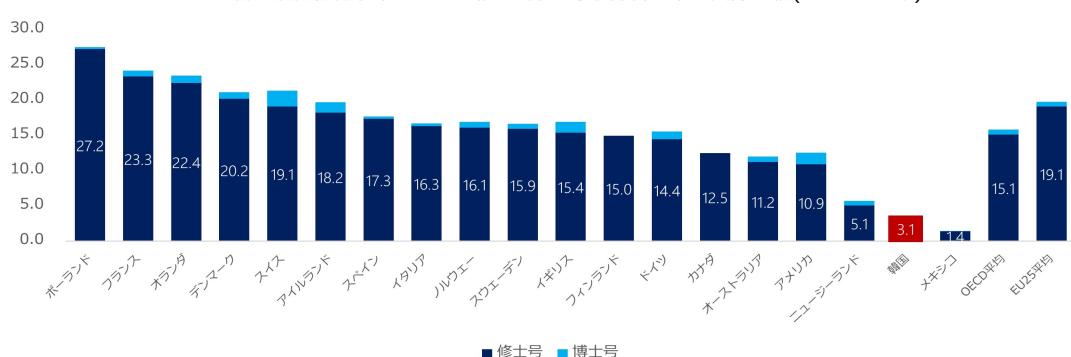
第2章 高校3年時の進学選択

02 学業継続(school continuation)の実態

- OECD加盟国のうち25-34歳における高等教育以上の比率は最高水準だが、修士・博士号取得者の比率は大きく異なる

- 韓国の若年層の修士・博士号取得者の比率は3.1%とOECD平均より12%pも低く、EU平均より16%pも低い

<25-34歳の最終教育水準における修士・博士号取得者比率の国際比較(%、2022年)>



資料：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検索日：2024.09.14.)
出典：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2024: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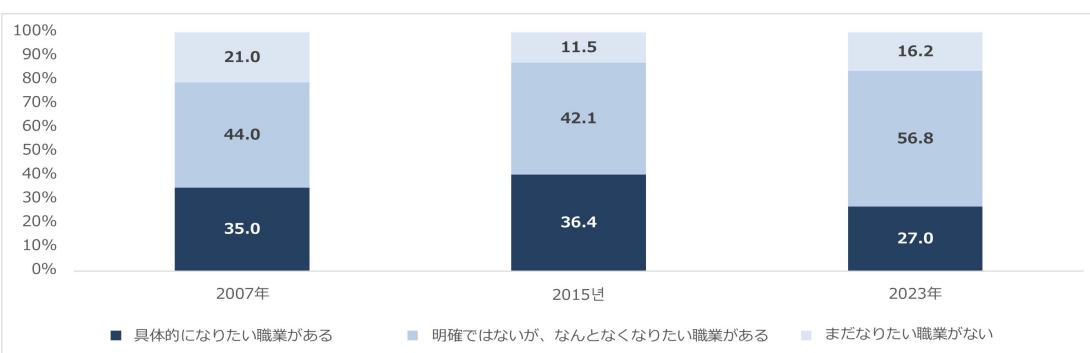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1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コホート別比較

高校3年生の職業選択において「具体的になりたい職業がある」という回答は2023年に大きく減少(9.4%p)

反面、「まだなりたい職業がない」という回答は2015年11.5%から2023年16.2%に増加

<高校3年生の職業選択の分布(%, 2007/2015/2023年)>



資料：青少年パネル調査(KYPS 2003)原資料、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KCYS 2010, 2017)原資料
出典：キム・ギホン, オ・ビョンドン (2024). 2024 韓国の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データ分析報告書-成人期移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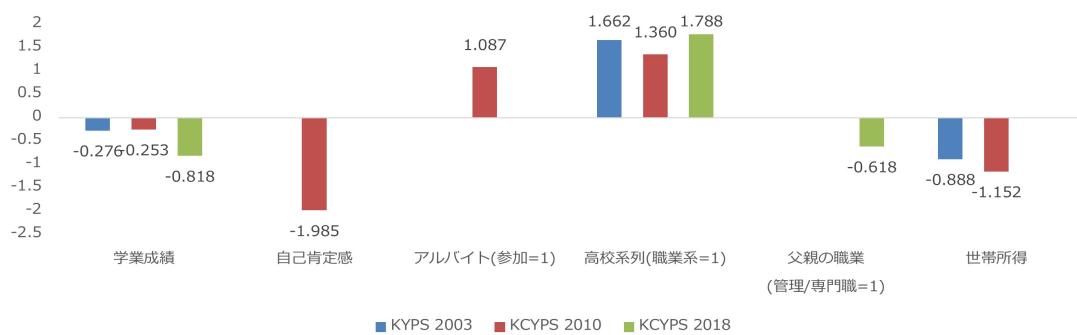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1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コホート別比較

- 職業系高校は、就職決定・大学進学に比べて就職未決定・大学未進学(未決定を含む)の可能性が極めて高いものと推定される

- アルバイト経験はプラス効果、学業成績や自己肯定感、家族背景はマイナス効果を示す

<高校3年生の就職・進学選択における影響要因(係数、就職未決定・大学未進学/就職決定・大学進学)>



資料：青少年パネル調査(KYPS 2003)原資料、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KCYPS 2010, 2017)原資料
出典：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 (2024). 2024 韓国の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データ分析報告書-成人期移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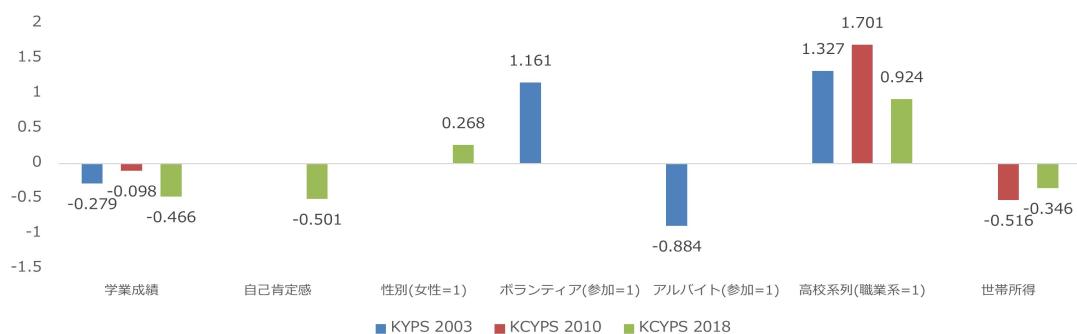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1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コホート別比較

- 職業を決めて大学に進学する代わりに進学しない可能性もまた職業系高校が高いものと推定される

- ボランティア活動経験はプラス効果、学業成績や自己肯定感、アルバイト経験、世帯所得はマイナス効果を示す

<高校3年生の就職・進学選択における影響要因(係数、就職未決定・大学未進学/就職決定・大学進学)>



資料：青少年パネル調査(KYPS 2003)原資料、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KCYPS 2010, 2017)原資料
出典：キム・ギホン, オ・ビヨンドン (2024). 2024 韓国の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データ分析報告書-成人期移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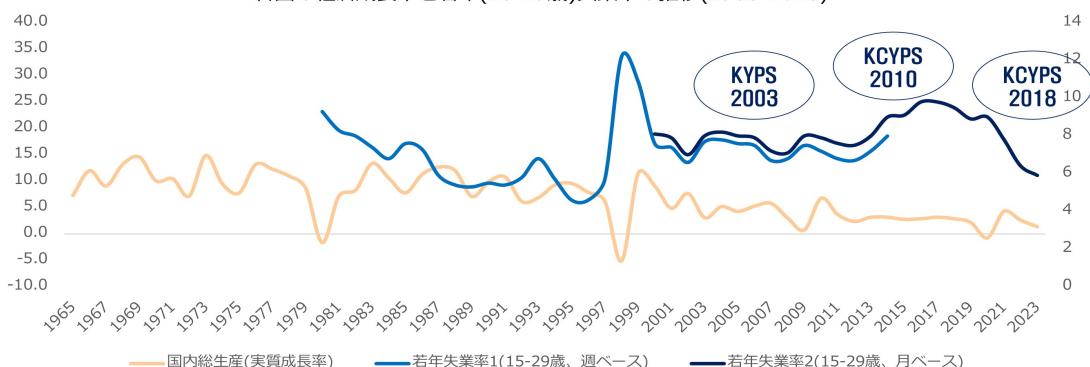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若年失業率(15-29歳)は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による急上昇後に下落したが、2009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に上昇

- エンデミックによるベース効果や少子化の影響で2022年以降は若年失業率が減少、KCYPS 2018コホートの職業未決定の比率は増加

<韓国の経済成長率と若年(15-29歳)失業率の推移(1965-2023)>



資料：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https://kosis.kr/>)、年齢集団別の失業率は1980年から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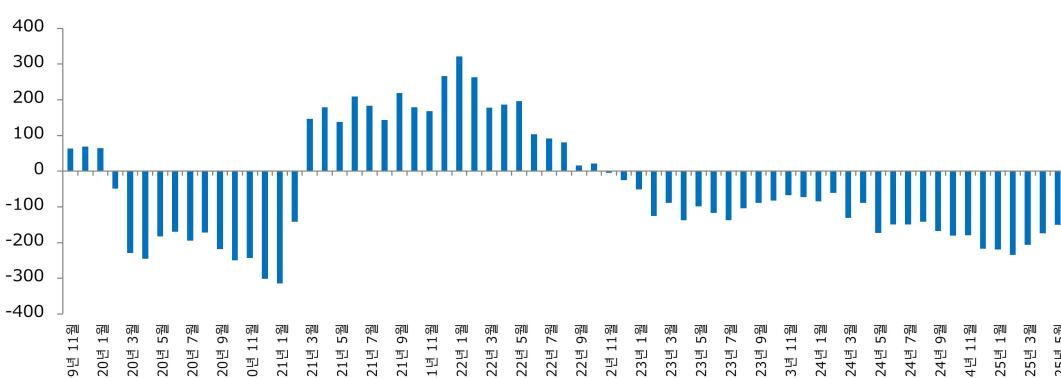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月別に見た2022年の推移では、若年就業者数は2022年に一時回復した後、2023年に再び減少傾向に

- 若年就業者数のマイナス傾向は2025年5月まで続き、体感的な雇用環境は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

<若年就業者数の前年同月比の増減(万人、2019.11-202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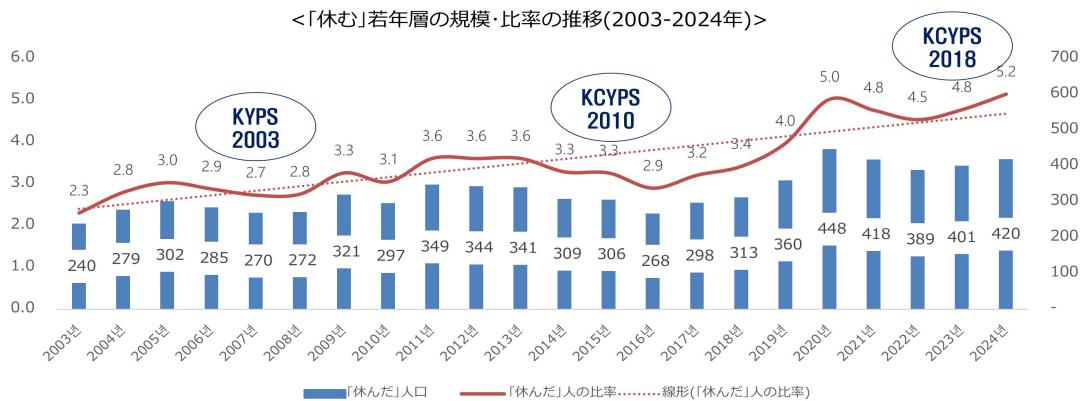


資料：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kosis.kr)、経済活動人口調査各年度の月別統計。2025年6月8日検索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非経済活動人口のうち「先週は主に休んだ」と答えた若年層の比率は2020年から急増し、社会問題として浮上
- 初期の新型コロナの影響が大きかったものの、エンデミック以降も若年非正規雇用の増加や新卒者の就職競争の激化などで増加続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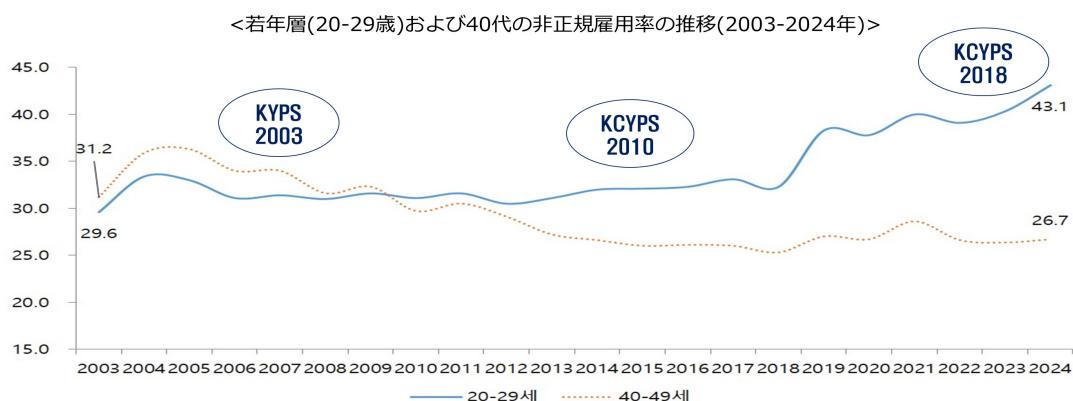
資料：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https://kosis.kr/>)。『休んだ』若者の統計は2003年から集計可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労働市場の二重構造問題は、若年層雇用の偏重傾向をもたらし、将来の職業決定を難しくしている
- 大企業・中小企業、正規雇用・非正規雇用間の格差拡大が続いている、20代の非正規雇用率は大きく増加



資料：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https://kosis.kr/>)。『休んだ』若者の統計は2003年から集計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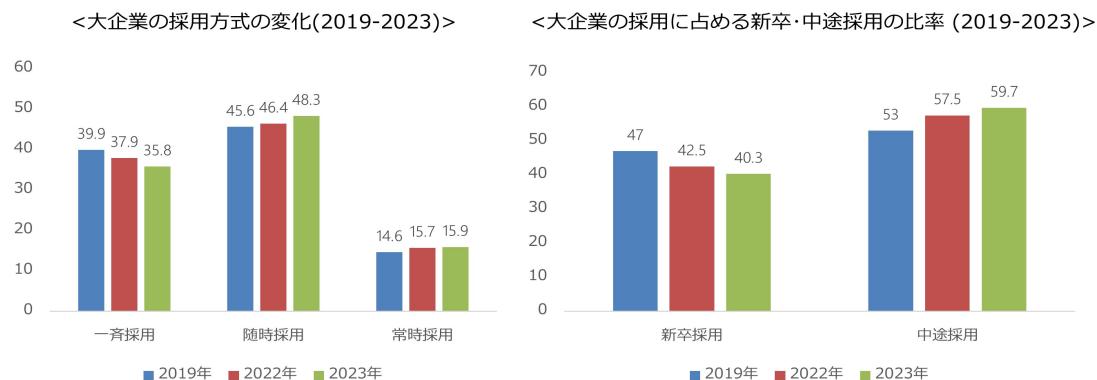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新卒者の就職は、企業の採用方式が「一斉・新卒採用」から「随時(常時)・中途採用」へ移行したことの一層困難に

- 大企業の一斉採用は2019年39.9%から2023年35.8%に、新卒採用の比率は同期間47.0%から40.3%に減少



資料：イ・サンジュン, ノ・セリ, オ・ジヌク, パク・ジソン, ノ・ソンチョル (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第3章 高校3年時の就職選択と影響要因

02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School to Work)

- 学校を卒業・中退してから初の就職までの所要期間は、2004年10ヵ月から2024年12ヵ月に増加

- 3ヵ月未満の早期就職の比率は、2004年56.3%から2024年47.7%へと持続的な低下傾向を示している

<若年層(15-29歳)の卒業・中退から初就職までの期間と早期就職の比率の推移(ヵ月、%、2004-2024年)>



資料：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kosis.kr)、経済活動人口調査若年層付加調査(5月)各年度の月別結果。2024年8月8日検索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第3章

政策的な示唆

▲ 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第3章 政策的な示唆

01 政策方向



第3章 政策的な示唆

02 在学中または卒業直後の早期介入



第3章 政策的な示唆

02 在学中または卒業直後の早期介入

- 1 欧州連合の若者保証制度は早期介入と予防的アプローチの代表的な事例
 - 2 欧州連合は卒業後4ヶ月以内の失業・ニート化の予防に注力
 - 3 欧州連合の若者保証制度、ニート率減少の目に見える成果
 - 4 新型コロナ以降の若年問題解決のため2段階の事業拡大を推進中
- European Union's Youth Guarantee (youth guarantee)**

Youth Guarantee – a driver for reform
 A. Accelerated reform
 DE, DK, FR, NL, PL, TC, ES, LV, PL, PT, SI
 B. Reinforced policy framework
 AT, DE, DK, ES, PT, IE, LU, MT, NL, SE, UK
 C. More limited reform
 CY, CZ, EL, ES, RO, SK

▶ 欧州連合は若年層の失業者やニートの増加を受け、これを最小限に抑え、小化し、若者の雇用を保証するためのプログラムとして「若者保証制度」を2013年より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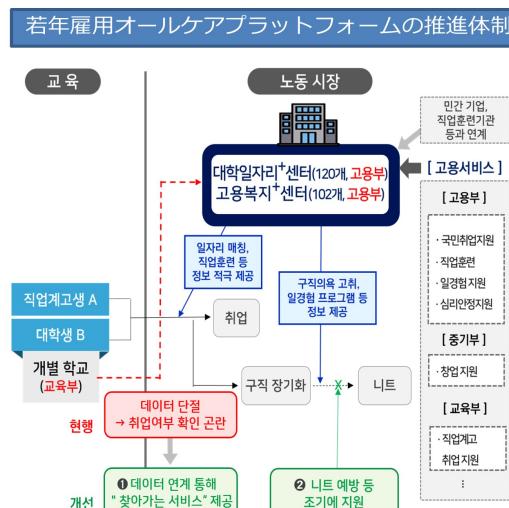
▶ 若者保証制度は、25歳未満の若者が失業し場合や正規教育を終えた時点から4ヶ月以内に失業者やニートとなっている場合に、質の良い雇用、持続的な教育、見習い・訓練を提供するプログラム

▶ 欧州連合理事会は若者保証制度の実施にあたり、6つのガイドラインを提示 ①すべての利害関係者間の強力な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公的機関だけでなく民間も参加する官民協力モデル)、②早期介入(ニート状態となってから4ヶ月以内に介入する迅速な対応)、③労働市場の統合(採用奨励金、賃金補助金など失業者支援やニートなど非経済活動人口に対する支援、起業促進支援などを統合して運営)、④欧州連合予算の積極的活用(加盟国への財政投資以外にも欧州社会基金、若年雇用イニシアティブなどEUの財政と連携)、⑤制度に対する評価と持続的な改善、⑥迅速な実施(2013年まで実行計画策定)

第3章 政策的な示唆

02 在学中または卒業直後の早期介入

-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に対する集中的支援の第一歩は教育と労働市場情報の連携にある
 - 企画財政部の主導で2024年から教育部と雇用労働部の統計をマッチさせるための事業を推進
 - 学校外の青少年支援に関する法律のように法的な情報連携の根拠づくりが必要



* 資料・関連部署合同(2024)

第3章 政策的な示唆

03 進学・就職の選択肢の多様化

- 1 職業系高校の正常化は成人期移行の遅延問題を解決する上で極めて重要
 - 2 産業安全問題を完全に払拭し
新技術人材の育成拠点への転換が必要
 - 3 職業教育革新地区や新産業分野の職業系高校の学科の改編、マイスター校拡大などの強化が必要



* 資料：関連部署合同(2024)

第3章 政策的な示唆

03 進学・就職の選択肢の多様化

1

大学院進学が代案となれば
偏重傾向や大卒者の競争緩和に貢献

2

R&D予算削減による研究人材不足の深刻化
生活費支援などの改善策も登場

3

大学院進学を誘導する支援策を
よりきめ細かく講じることが必要

理工系向け研究生活奨励金支援事業



AP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주제발표2

Diverging Pathways: A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Independence, Among Young Korean Men and Women

Dr. Byeongdon Oh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SUNY Polytechnic Institute)

Diverging Pathways

A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Independence, Among Young Korean Men and Women

July 15, 2025

Byeongdon (Don) Oh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SUNY Polytechnic Institute



Visiting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 earlier version of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South Korea.

Background Social Inequality Research 1/2

Adolescence

- Socioeconomic & demographic background

Adulthood

- Education
- Occupation
- Income



Background Social Inequality Research 2/2

Adolescence

- Socioeconomic & demographic background

Life Transitions

Adulthood

- Education
- Occupation
- Income

Byeongdon (Don) Oh



2

Who Is an Adult? 1/3



Byeongdon (Don) Oh



3

Who Is an Adult? 2/3



Byeongdon (Don) Oh



4

Who is an Adult? 3/3

Legal adulthood



Socioeconomic adulthood

- Adolescents are legally recognized as adults at the age of 19 in South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Korea).

- Around age 19, most young Koreans graduate from high school and start transitioning into socioeconomic adulthood

Q1. What distinct life transition pathways emerge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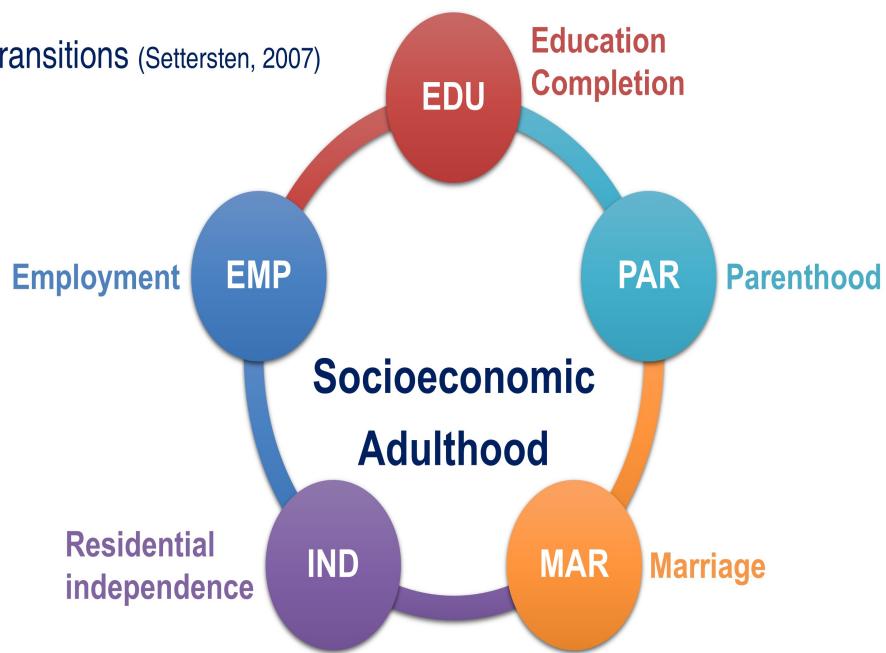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5

Transitions to Adulthood Traditional Societies

- Big five transitions (Setterste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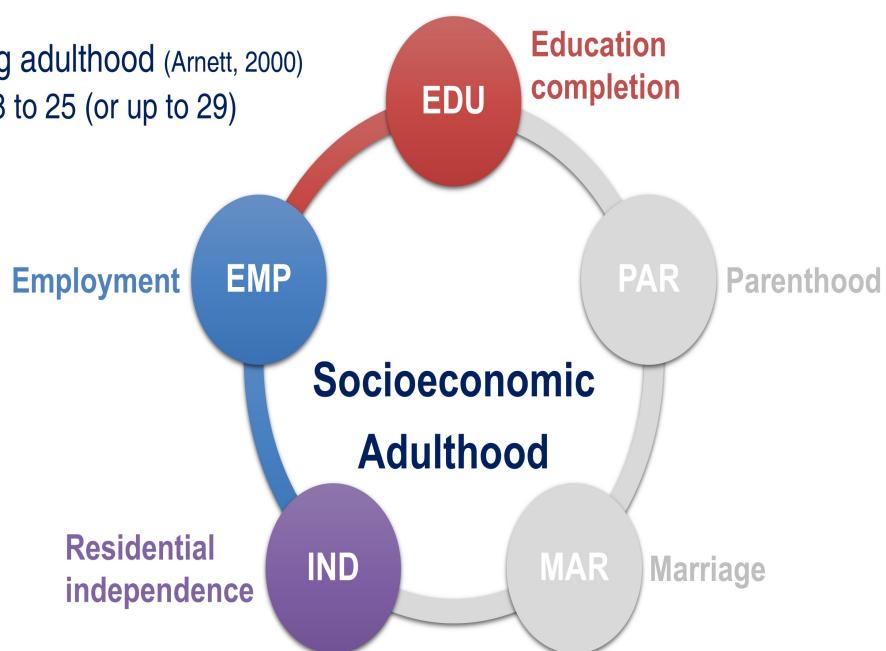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6

Transitions to Adulthood Industrialized Societies

- Emerging adulthood (Arnett, 2000)

- Ages 18 to 25 (or up to 29)



Byeongdon (Don) Oh

7

Emerging Adulthood Theoretical Debates

Five distinguishing features

VS.

Diversity and heterogeneity

- Identity exploration
- Instability
- Self-focus
- Feeling in-between
- Possibilities/optimism

- Social class
- Educational attainment
- Gender
- Race/ethnicity

- ❑ Q2. How do transition pathway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differ by social class, education, and gender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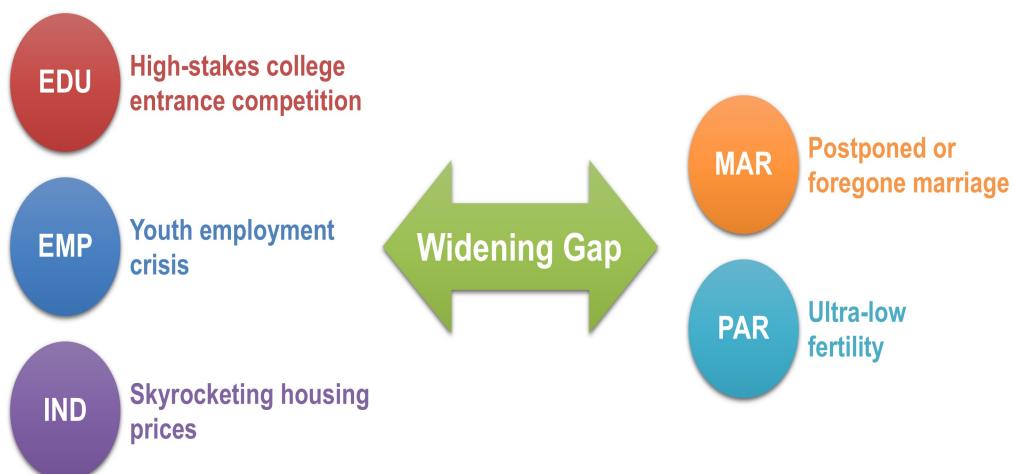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8

Emerging Adulthood Korean Case 1/2

- ❑ Korea, as a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offers a unique context to examine emerging adult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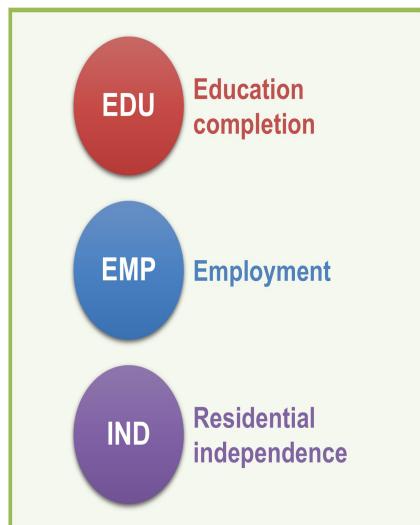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9

Emerging Adulthood Korean Case 2/2

- Korea, as a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offers a unique context to examine emerging adult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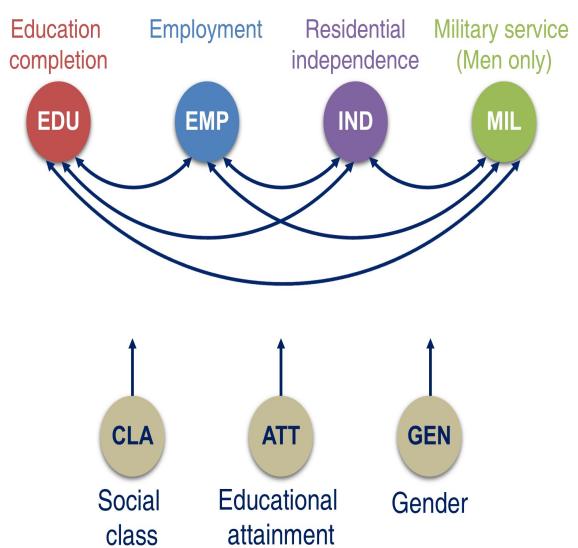


10

Research Questions

- Q1. What distinct life transition pathways emerge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in Korea?

- Timing and sequence of four transitions



- Q2. How do transition pathway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differ by social class, education, and gender in Korea?



Method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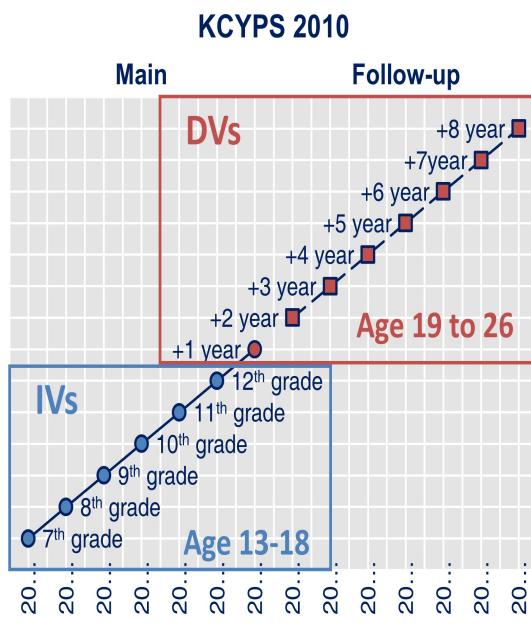
□ Data

-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 Main surveys: 2010-2016
- Follow-up surveys: 2017-2023

- Final sample size
 - Men: 269
 - Women: 326



Byeongdon (Don) Oh



12

Methods Timing and Sequence

□ Dependent variables

EDU Are you enrolled in school? (Yes or No)

EMP Are you employed? (Yes or No)

IND Are you living apart from your parents? (Yes or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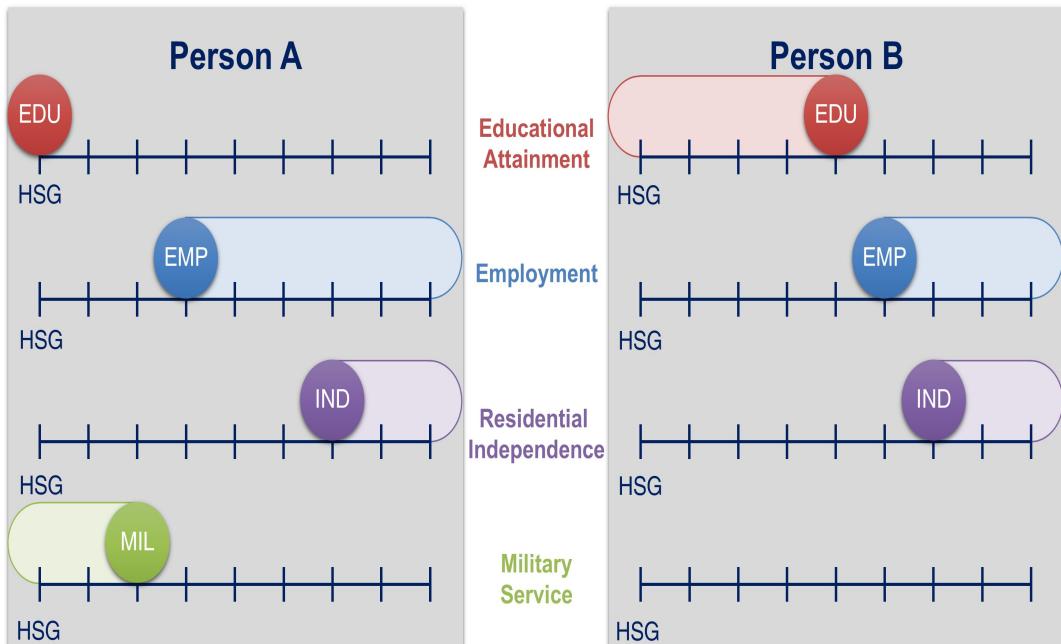
MIL Are you serving in the military? (Yes or No)

Byeongdon (Don) Oh



13

Methods Timing and Sequence



14

Methods Timing and Sequence

□ Dependent variables

- | | | | | |
|-----|---|-------------|---|--|
| EDU | Are you enrolled in school? | (Yes or No) | 2 | 2 ⁴ for 8 years = (2 ⁴) ⁸ = 4,294,967,296 |
| EMP | Are you employed? | (Yes or No) | 2 | |
| IND | Are you living apart from your parents? | (Yes or No) | 2 | |
| MIL | Are you serving in the military? | (Yes or No) | 2 | |

Byeongdon (Don) Oh



15

Methods DVs: LLCA 1/3

□ Dependent variables

▪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LLCA)

- Latent Class Analysis (LCA) is a person-centered approach that categorizes respondents into mutually exclusive latent classes.
- Each latent class analysis defined by a unique pattern of responses across the observed variables.
- When variables are repeatedly measured over multiple time points, it becomes essential to account for correlations among these repeated measures, making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LLCA) an appropriate method.
- However,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as LLCA is a data-driven, exploratory technique.

Byeongdon (Do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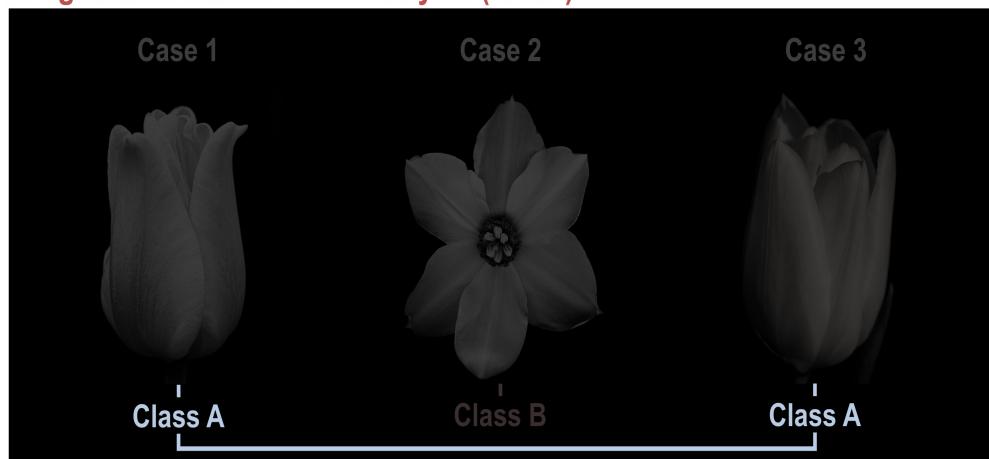


16

Methods DVs: LLCA 2/3

□ Dependent variables

▪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LLCA)



Byeongdon (Do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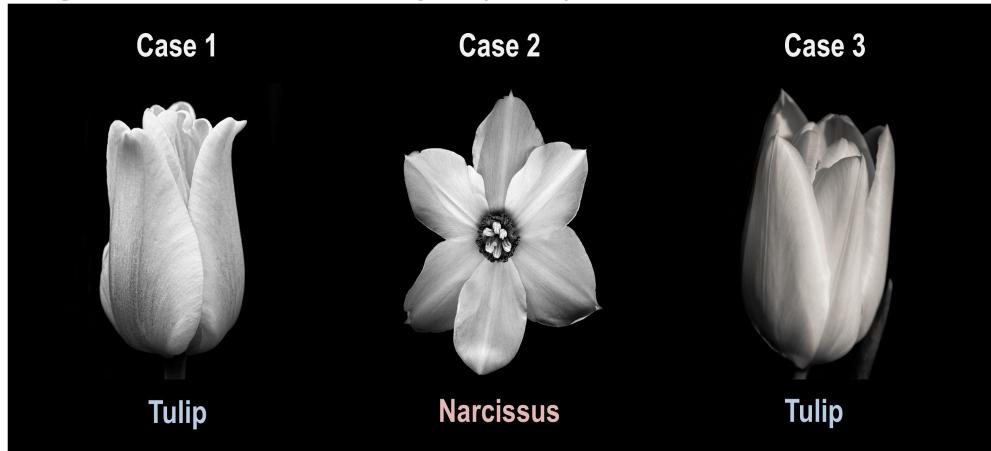


17

Methods DVs: LLCA 3/3

□ Dependent variables

▪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LLCA)



Byeongdon (Don) Oh



18

Methods IVs

□ Independent variables

| | |
|-------------------------------|--|
| CLA Social class | Family income (percentile) |
| |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percentile) |
| ATT Educational attainment | Graduated from academic high school |
| | Enrolled in four-year colle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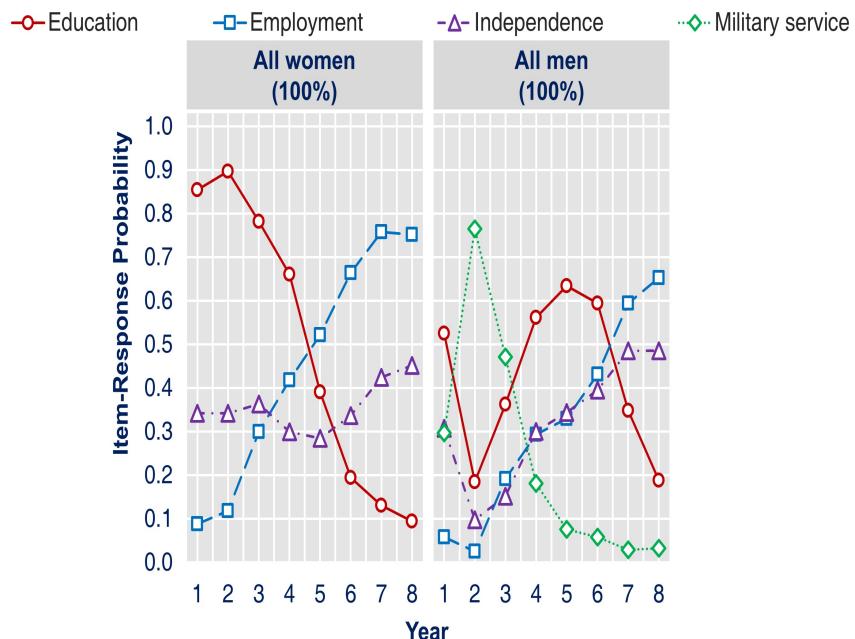
- GEN Gender: Models are estimated separately for men and women

Byeongdon (Don) Oh



19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Men and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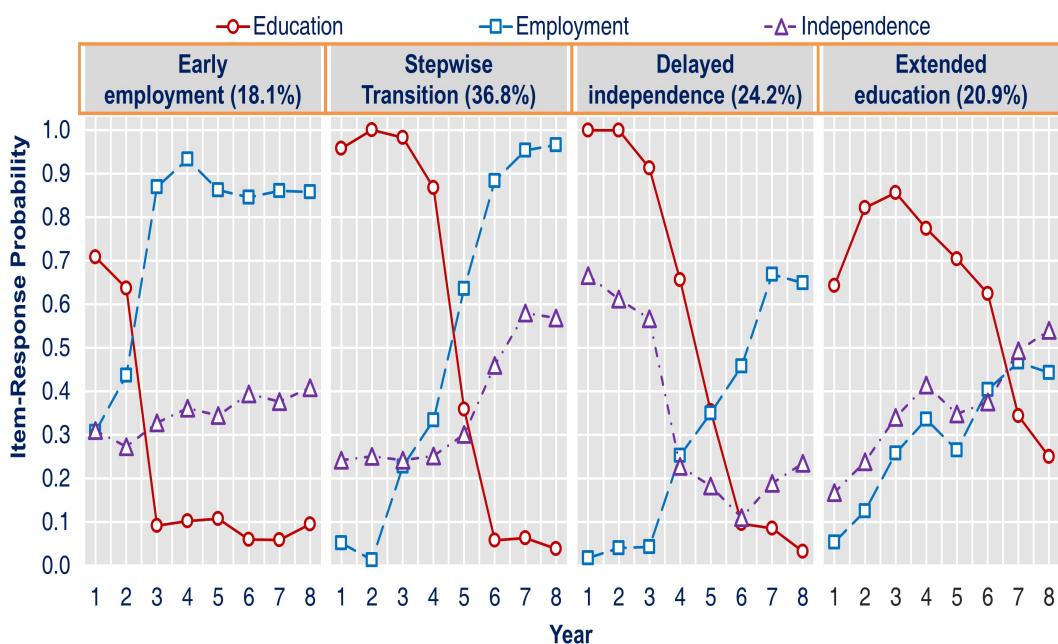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20

Results Women: LL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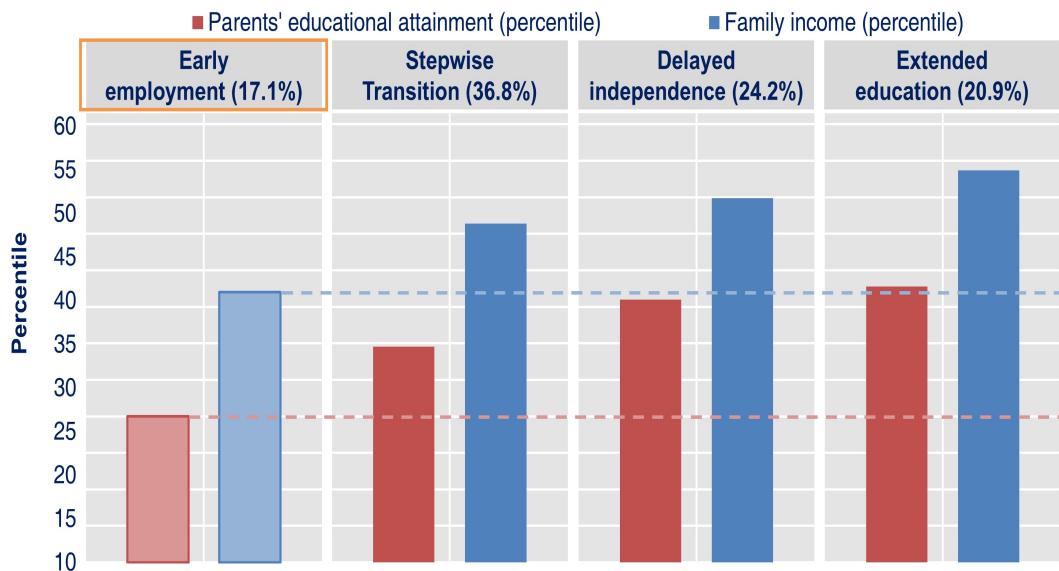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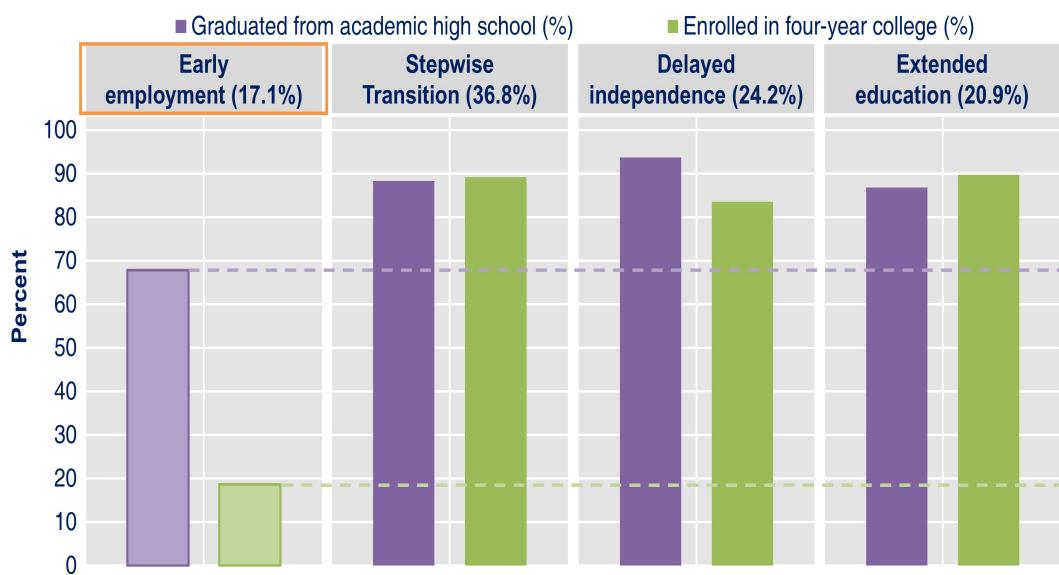
Results Women: Social Class & LLCA



Byeongdon (Don) Oh

22

Results Women: Educational Attainment & LLCA



Byeongdon (Don) Oh

23

Results Wome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Relative Risk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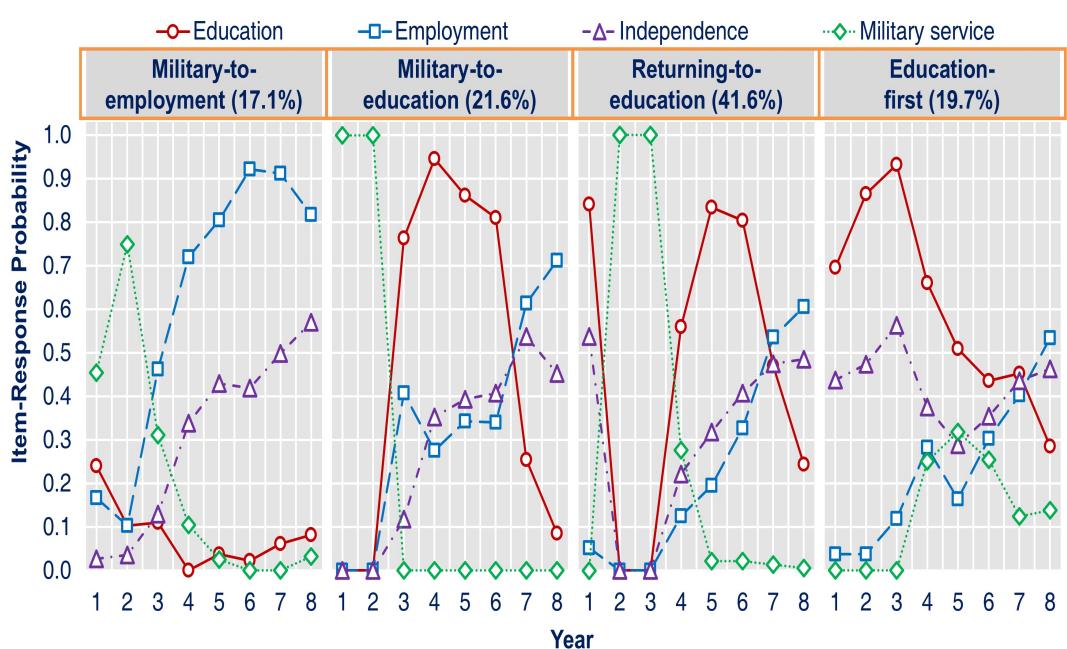
| | Stepwise transition over Early employment | | Delayed independence over Early employment | | Extended education over Early employment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1 | |
| | | | | | | |
| Social class | | | | | | |
|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percentile) | 1.011 | 1.007 | 1.019 | 1.014 | 1.019 | 1.015 |
| Family income (percentile) | 1.011 | 1.003 | 1.013 | 1.005 | 1.018 | 1.011 |
| Educational attainment | | | | | | |
| Graduated from academic high school | | 1.098 | | 2.264 | | 0.761 |
| Enrolled in four-year college | | 32.775 | | 16.475 | | 33.059 |

Note: Red Bold p < .05

Byeongdon (Don) Oh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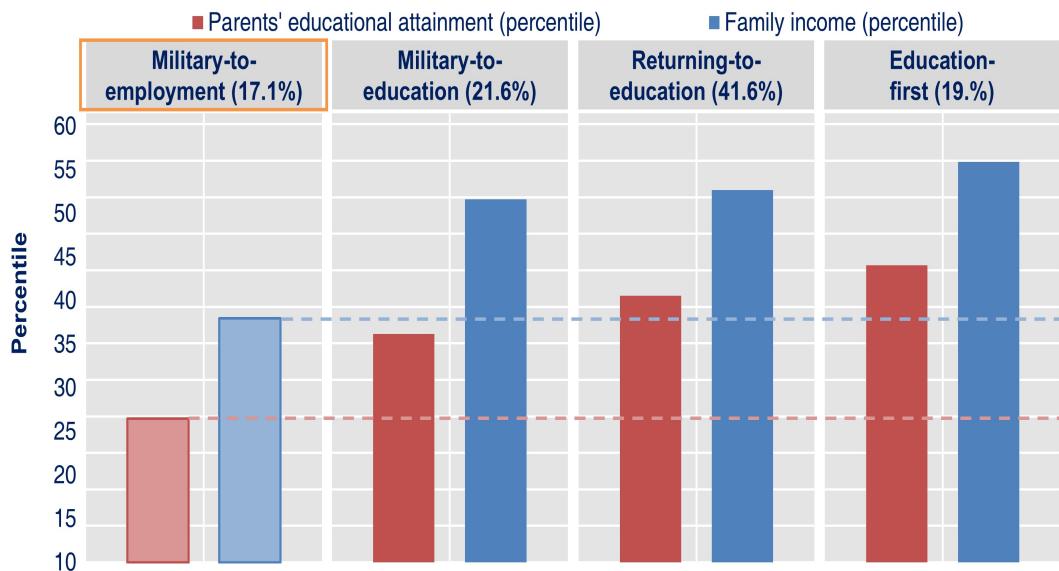
Results Men: LLCA



Byeongdon (Don) Oh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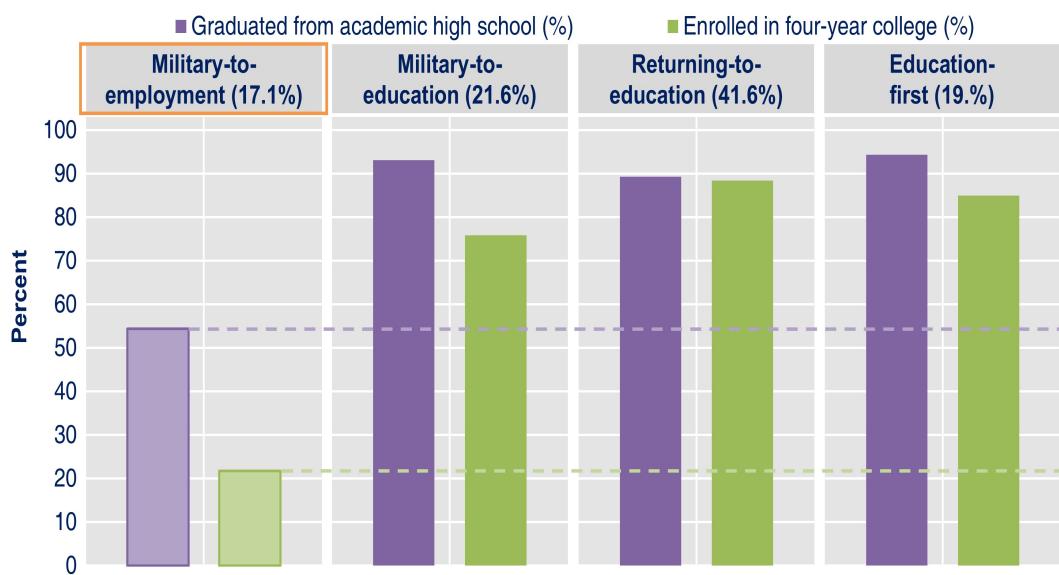
Results Men: Social Class & LLCA



Byeongdon (Don) Oh

26

Results Men: Educational Attainment & LLCA



Byeongdon (Don) Oh

27

Results Me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Relative Risk Ratio

| | Military-to-education over Military-to-employment | | Returning-to-education over Military-to-employment | | Education-first over Military-to-employment | |
|--|---|--------------|--|---------------|---|---------------|
| | Model 1 | | Model 1 | | Model 1 | |
| | Model 2 | Model 2 | Model 2 | Model 2 | Model 2 | Model 2 |
| Social class | | | | | | |
|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percentile) | 1.009 | 1.000 | 1.017 | 1.006 | 1.020 | 1.010 |
| Family income (percentile) | 1.022 | 1.017 | 1.020 | 1.015 | 1.024 | 1.019 |
| Educational attainment | | | | | | |
| Graduated from academic high school | | 5.386 | | 2.329 | | 5.011 |
| Enrolled in four-year college | | 6.608 | | 17.413 | | 10.150 |

Note: Red Bold p < .05

Byeongdon (Don) Oh



28

Discussion Divergent Pathway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ition pathways to adulthood among Korean young adults aged 19 to 26, a period commonly referred to as emerging adulthood.
- Four distinct pathways were identified separately for men and women.

Women

- Early employment
- Stepwise transition
- Delayed independence
- Extended education

Men

- Military-to-employment
- Military-to-education
- Returning-to-education
- Education-first

Byeongdon (Don) Oh



29

Discussion Gender

□ Differences by gender

- The completion of education an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occur later for men compared to women.
 - Military service mandatory for men



- In contrast, residential independence tends to occur later for women.
 - Gendered social norms

Byeongdon (Don) Oh



30

Discussion Social Class & Education

□ Differences by social class

- Young adults from higher social class backgrounds tend to prioritize education over employment during their early transition to adulthood.



□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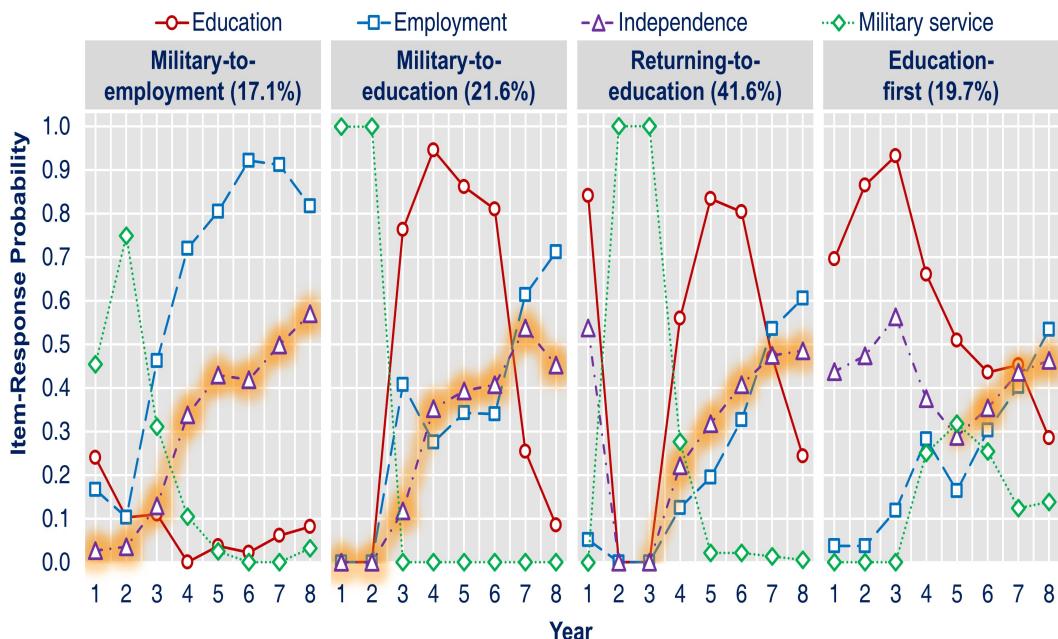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s mediated by educational attainment.

Byeongdon (Don) Oh



31

Results Intersectionality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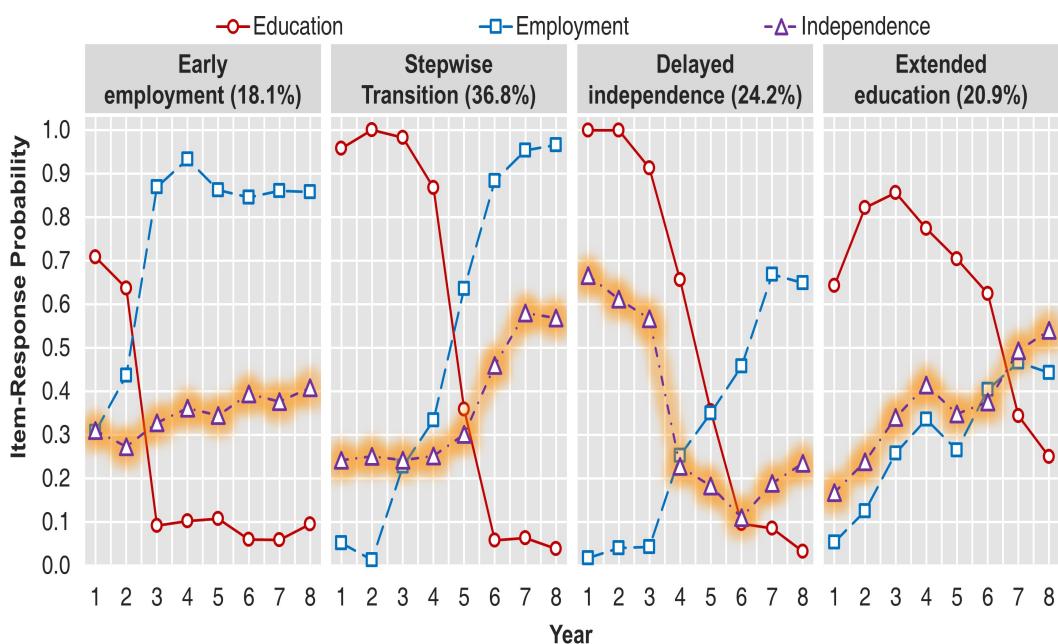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32

Discussion Intersectionality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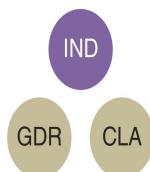


Byeongdon (Don) Oh



33

Discussion Intersectionality 3/3



- 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class in independent living
 - Potential causes of delayed independent living among women
 - Early employment
 - Lack of economic capacity
 - Responsibility for assisting parents
 - Delayed independence
 - Extended support from affluent parents

Byeongdon (Don) Oh



34

Discussion Implications 1/2

Five distinguishing features

- Identity **exploration**
- Instability
- Self-focus
- Feeling in-between
- Possibilities/**optimism**

VS.

Diversity and heterogeneity

- Social class
- Educational attainment
- Gender
- Race/ethnicity

- The transition pathways to adulthood vary substantially by social class,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Byeongdon (Don) Oh



35

Discussion Implications 2/2

□ Theoretical implications

- Further investigations, focusing on psychological as well as social factors, are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theory of emerging adulthood is applicable to Korean society.

□ Policy implications

- Social interventions to support transitions to adulthood should consider the substantial variation by social class,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 “Early employment (18.1%)” among women and “Military-to-employment (17.1%)” among men are often overlooked, yet they represent some of the most precarious groups.
- Difficulti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may exacerbate Korea's ultra-low fertility rate.

Byeongdon (Don) Oh



36

Thank You!

Byeongdon (Don) Oh



<https://byeongdonoh.com>

ohb@sunypoly.edu

dono@berkeley.edu

Q & A

SUPPLEMENT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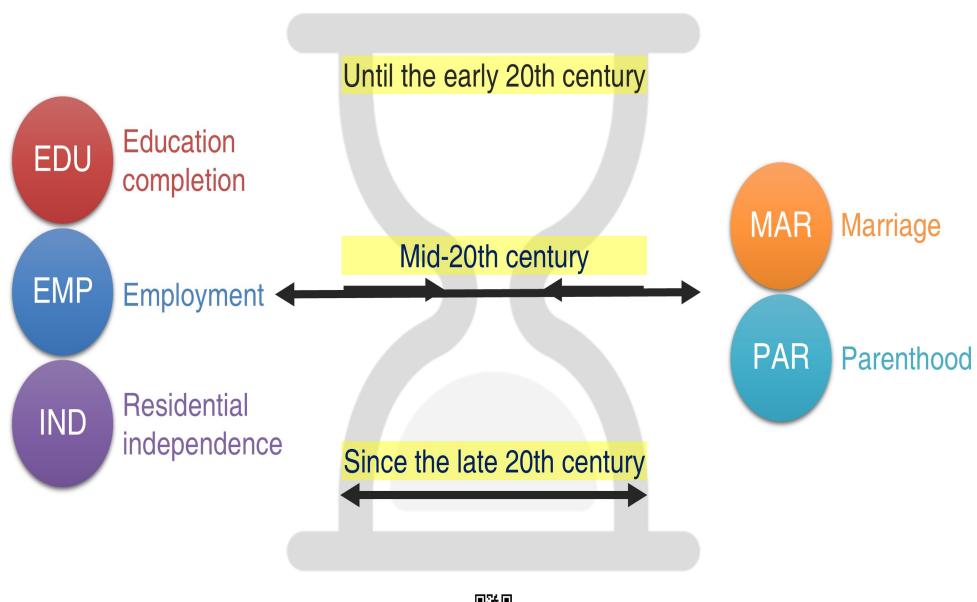
| | Women | | Men | |
|--|--------|---|--------|----------|
| | Mean | SD | Mean | SD |
| Social class | | | | |
| Family income (percentile) | 47.053 | (26.236) | 48.463 | (26.929) |
|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percentile) | 31.077 | (27.456) | 33.331 | (28.284) |
| Educational attainment | | | | |
| Graduated from academic high school (%) | 85.583 | (35.180) | 85.130 | (35.645) |
| Enrolled in four-year college (%) | 75.153 | (43.279) | 73.606 | (44.159) |
| <i>N</i> | 326 | | 269 | |
| Byeongdon (Don) Oh | |  | | 40 |

Results LLCA Model-Fit Indices

| Number of classes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 |
|-------------------|--------------------------------------|----------|
| | Men | Women |
| 1 | 8480.390 | 8115.151 |
| 2 | 8201.924 | 7828.651 |
| 3 | 7770.262 | 7676.660 |
| 4 | 7599.580 | 7599.506 |
| 5 | 7671.569 | 7644.305 |
| 6 | 7690.657 | 7660.759 |

Emerging Adulthood Hourglass Shape

- Hourglass shape (Jones and Wallace 1992)



Byeongdon (Don) Oh

42

Thank You!

Byeongdon (Don) Oh



<https://byeongdonoh.com>

ohb@sunypoly.edu

dono@berkeley.edu

END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2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짬재계층 분석

오병돈 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교)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

2025년 7월 28일

오병돈



사회학 조교수
뉴욕주립대학교 폴리테크닉 연구소



객원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와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배경 사회적 불평등 연구 1/2

청소년기

-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적 배경

성인기

- 교육
- 직업
- 소득



배경 사회적 불평등 연구 2/2

청소년기

-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적 배경

생애 이행

성인기

- 교육
- 직업
- 소득

오병돈



2

누가 성인인가? 1/3



오병돈



3

누가 성인인가? 2/3



오병돈



4

누가 성인인가? 3/3

법적 성인



사회경제적 성인

- 대한민국(이하 ‘한국’)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면 법적 성인으로 인정됨

- 한국 청년들은 대개 19세 전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경제적 성인기 이행 시작

□ Q1.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두드려지는 생애 경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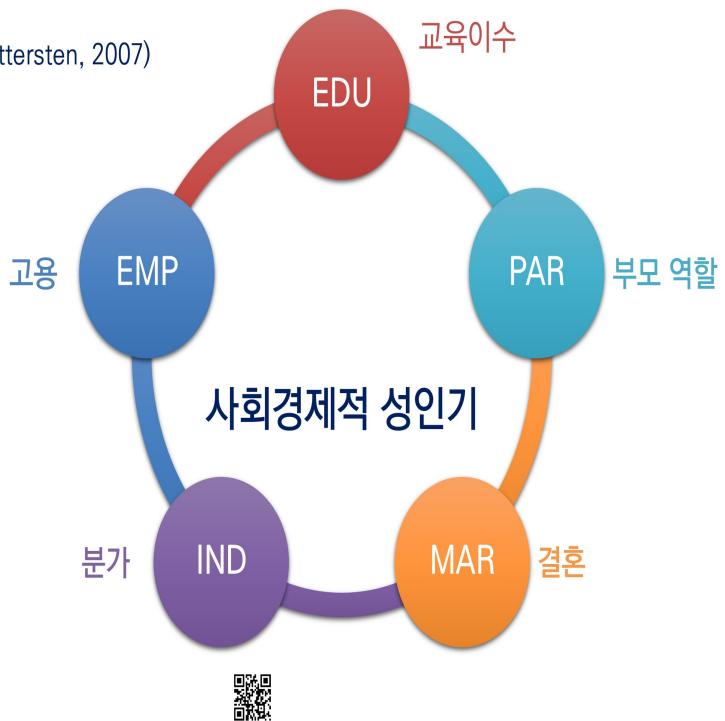
오병돈



5

성인기 이행 전통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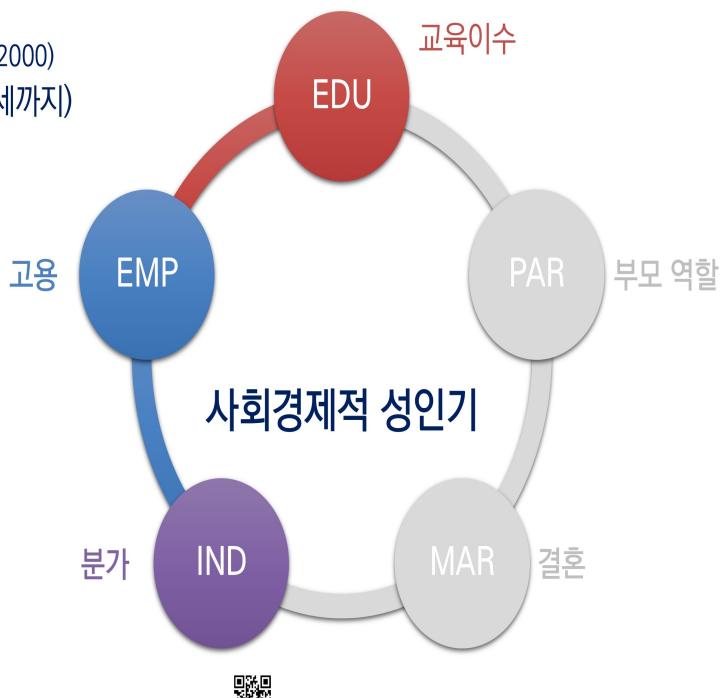
□ 5가지 핵심 이행(Settersten, 2007)



성인기 이행 산업 사회

□ 초기 성인기(Arnett, 2000)

- 18~25세(또는 29세까지)



초기 성인기 이론적 쟁점

5가지 주요 특징

- 정체성 탐색
- 불안정성
- 자기 중심성
- 과도기적 감각
- 가능성/낙관주의

VS.

다양성 및 이질성

- 사회계층
- 교육수준
- 성별
- 인종/민족

□ Q2.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는 사회계층, 교육,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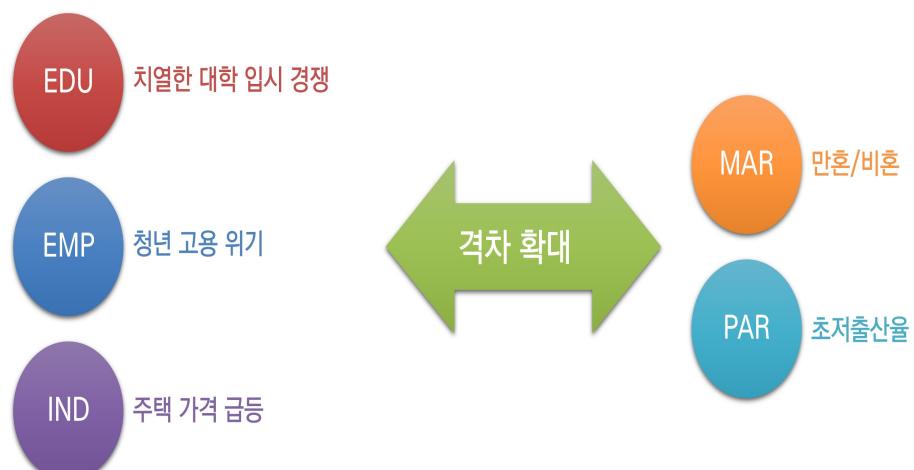
오병돈



8

초기 성인기 한국 사례 1/2

□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인 한국은 초기 성인기 연구에 독특한 환경 제공



오병돈



9

초기 성인기 한국 사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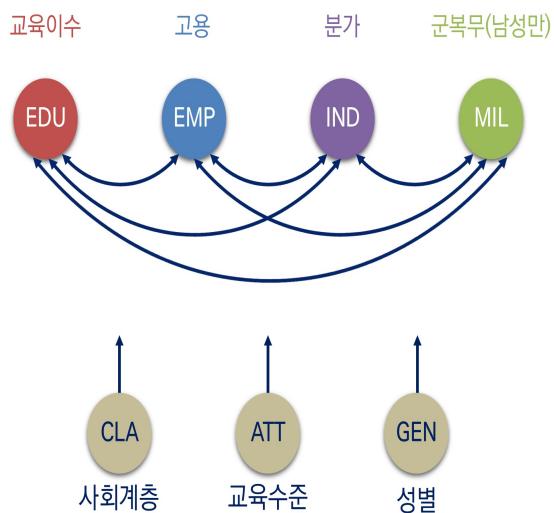
-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인 한국은 초기 성인기 연구에 독특한 환경 제공



연구 질문

- Q1.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생애 경로는 무엇인가?
▪ 4가지 이행 시기와 순서

- Q2.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는 **사회계층**, **교육**,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방법 데이터

□ 데이터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0(KCYPS 201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본조사: 2010-2016
- 유지조사: 2017-2023

▪ 최종 표본 수

- 남성: 269
- 여성: 326



오병돈

12

방법 시기 및 순서

□ 종속변수(DVs)

EDU

재학 중입니까?

(예/아니오)

EMP

취업했습니까?

(예/아니오)

IND

부모와 따로 살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MIL

군복무 중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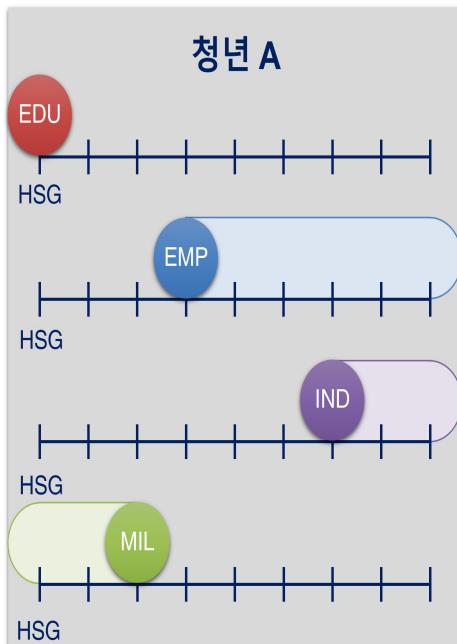
(예/아니오)

오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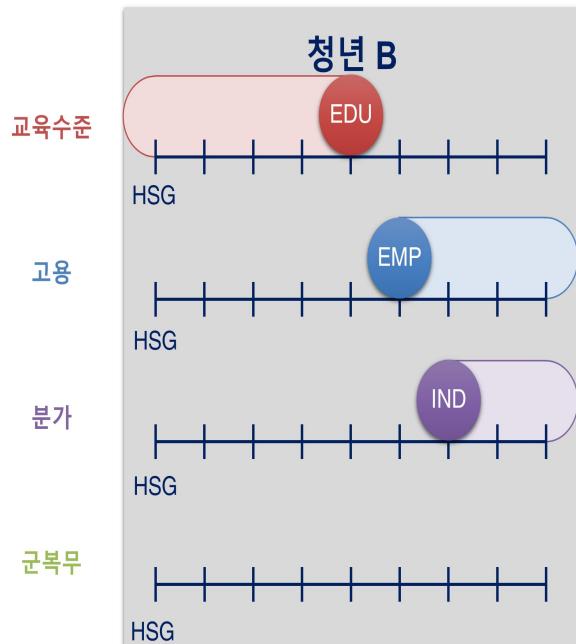


13

방법 시기 및 순서



오병돈



14

방법 시기 및 순서

□ 종속변수(DVs)

| | | | | |
|-----|--------------------|---------|---|--------------------------------|
| EDU | 재학 중입니까? | (예/아니오) | 2 | |
| EMP | 취업했습니까? | (예/아니오) | 2 | |
| IND | 부모와 따로 살고 있습니까? | (예/아니오) | 2 | $2^4 \text{ (8년 간)} = (2^4)^8$ |
| MIL | 군복무 중입니까? | (예/아니오) | 2 | $= 4,294,967,296$ |

오병돈



15

방법 DVs: LLCA 1/3

□ 종속변수(DVs)

▪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LLCA)

- 잠재계층분석(LCA)은 응답자를 상호 배타적인 잠재계층(latent class)으로 분류하는 개인 중심 접근법
- 각 잠재계층은 관측된 변수들 전반에 걸친 고유한 응답 패턴에 따라 정의
- 변수가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된 경우 측정값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럴 때는 LLCA가 적절한 방법
- 다만, LLCA는 데이터 기반의 탐색적 기법이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 필요

오병돈



16

방법 DVs: LLCA 2/3

□ 종속변수(DVs)

▪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LLCA)



3개 사례 → 2개 계층

오병돈



17

방법 DVs: LLCA 3/3

□ 종속변수(DVs)

▪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LLCA)



오병돈



18

방법 IVs

□ 독립변수(IVs)

| | |
|-------------|---------------|
| CLA 사회계층 | 가구소득(백분위) |
| | 부모의 교육수준(백분위) |
| ATT 교육수준 | 인문계고 졸업 |
| | 4년제 대학 진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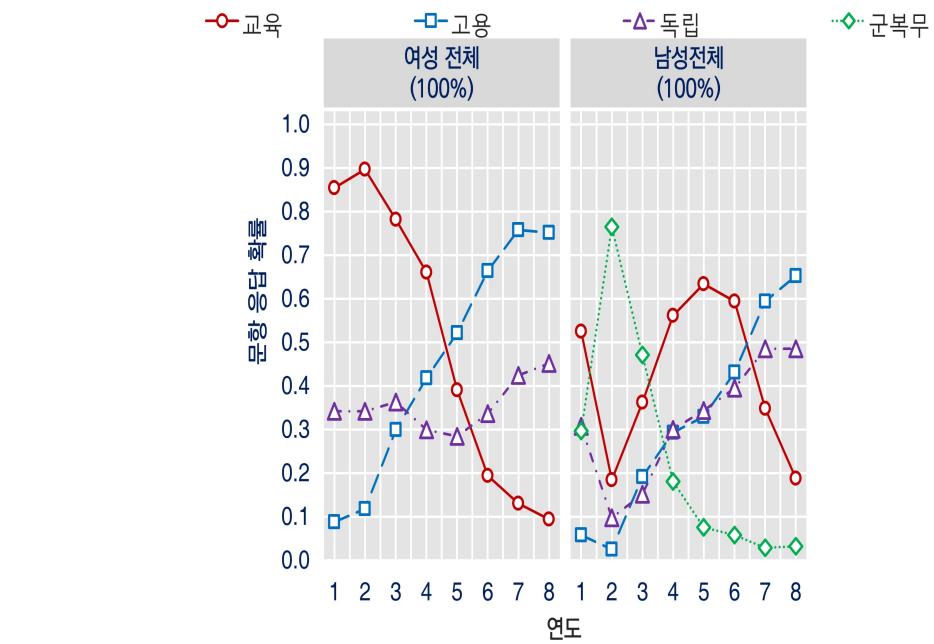
□ GEN 성별: 모형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추정

오병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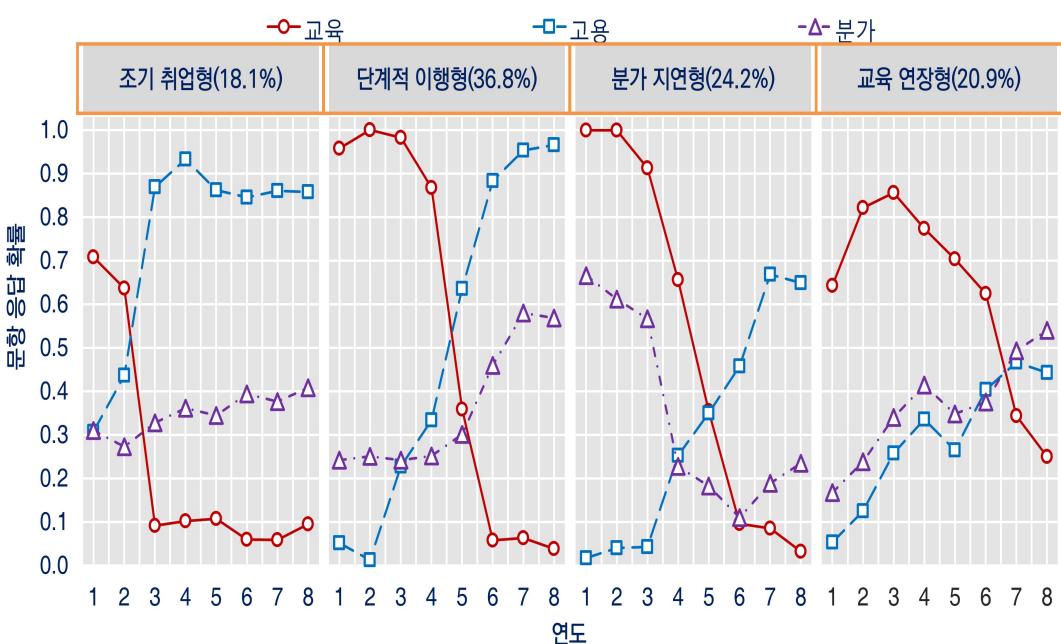
결과 기술통계: 남성 및 여성



오병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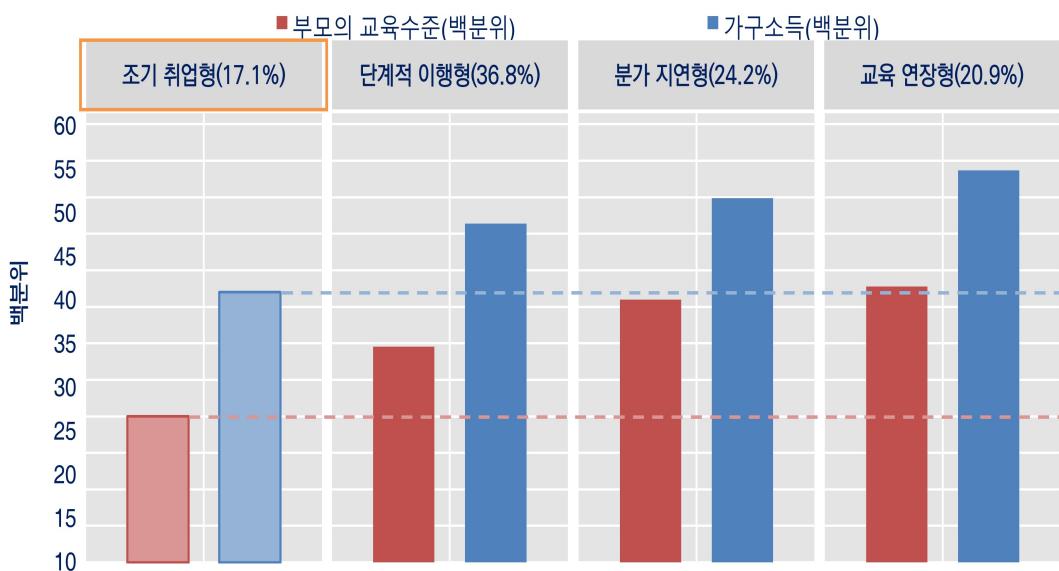
결과 여성: LLCA



오병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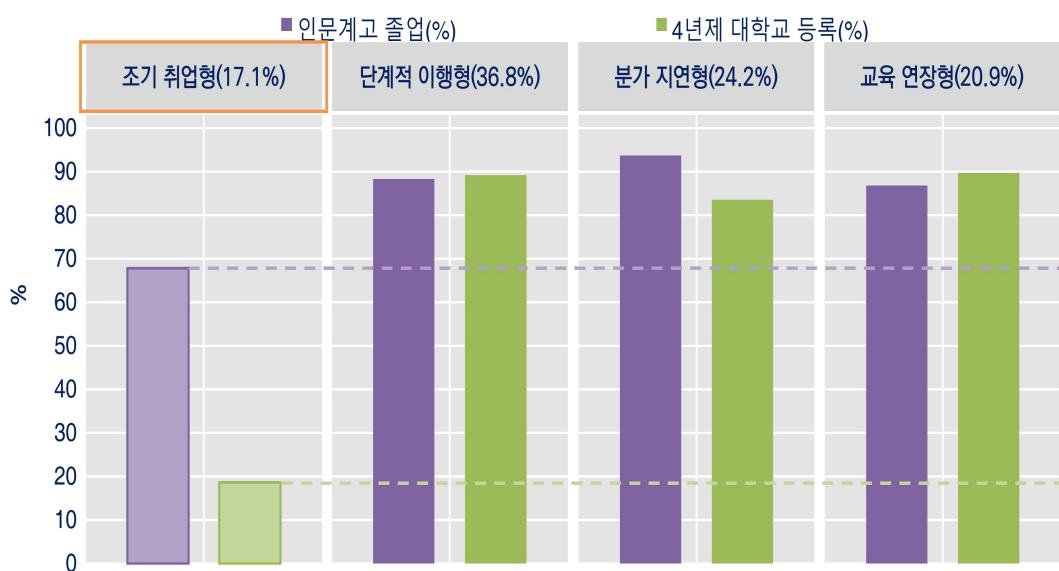
결과 여성: 사회계층 & LLCA



오병돈

22

결과 여성: 교육수준 & LLCA



오병돈

23

결과 여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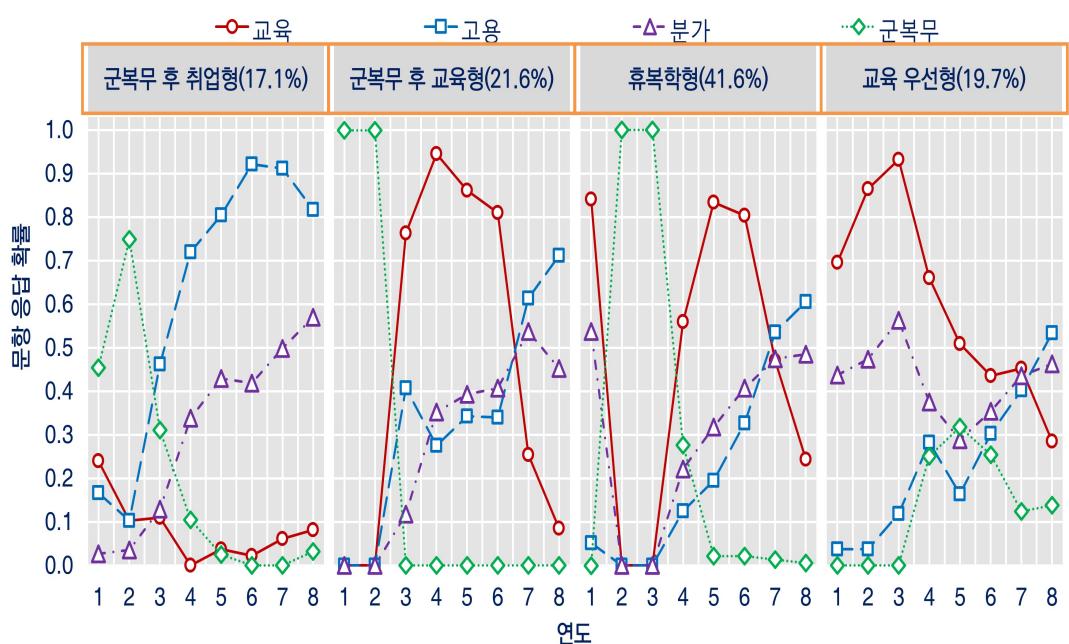
| | 단계적 이행형 vs. 조기 취업형 | | 분가 지연형 vs. 조기 취업형 | | 교육 연장형 vs. 조기 취업형 | |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1 | 모형 2 | 모형 1 | 모형 2 |
| 사회계층 | | | | | | |
| 부모의 교육수준 (백분위) | 1.011 | 1.007 | 1.019 | 1.014 | 1.019 | 1.015 |
| 가구소득(백분위) | 1.011 | 1.003 | 1.013 | 1.005 | 1.018 | 1.011 |
| 교육수준 | | | | | | |
| 인문계고 졸업 | | 1.098 | | 2.264 | | 0.761 |
| 4년제 대학 진학 | | 32.775 | | 16.475 | | 33.059 |

주) 붉은색 볼드체 p < .05

오병돈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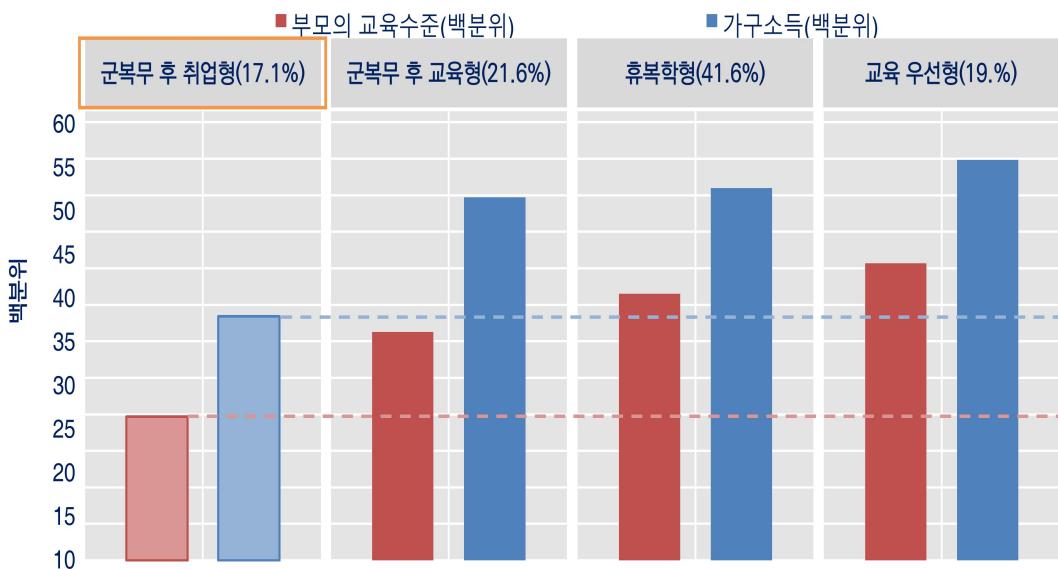
결과 남성: LLCA



오병돈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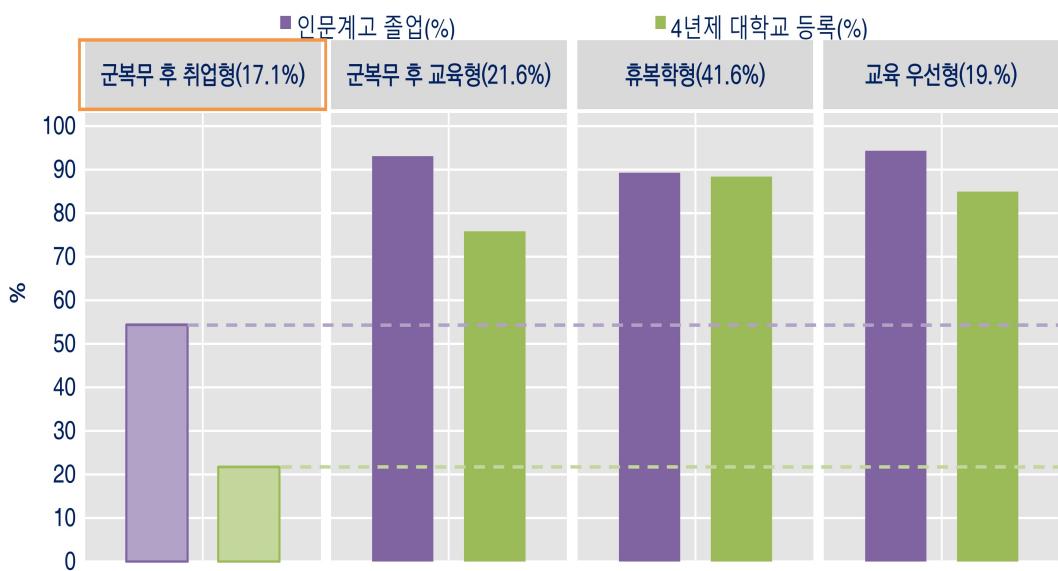
결과 남성: 사회계층 & LLCA



오병돈

26

결과 남성: 교육수준 & LLCA



오병돈

27

결과 남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Ratio)

| | 군복무 후 교육형 | | 휴복학형 | | 교육 우선형 | |
|-------------------|------------------|-------|------------------|-------|------------------|--------|
| | vs. 군복무 후 취업형 | | vs. 군복무 후 취업형 | | vs. 군복무 후 취업형 |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1 | 모형 2 | 모형 1 | 모형 2 |
| 사회계층 | | | | | | |
| 부모의 교육수준 (백분위) | 1.009 | 1.000 | 1.017 | 1.006 | 1.020 | 1.010 |
| 가구소득(백분위) | 1.022 | 1.017 | 1.020 | 1.015 | 1.024 | 1.019 |
| 교육수준 | | | | | | |
| 인문계고 졸업 | | | 5.386 | | 2.329 | 5.011 |
| 4년제 대학 진학 | | | 6.608 | | 17.413 | 10.150 |

주) 붉은색 볼드체 p < .05

오병돈



28

고찰 엊갈린 삶의 경로

□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불리는 시기인 만 19~26세 한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 분석

□ 남성과 여성 각각 다른 4가지 이행 경로 확인

여성

- 조기 취업형
- 단계적 이행형
- 분가 지연형
- 교육 연장형

남성

- 군복무 후 취업형
- 군복무 후 교육형
- 휴복학형
- 교육 우선형

오병돈



29

고찰 성별

□ 성별에 따른 차이

- 여성 대비 남성이 교육 이수 및 노동 시장 진입 시기가 늦음
 - 남성의 병역 의무



- 이에 반해, 남성 대비 여성이 분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림
 - 성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오병돈



30

고찰 사회계층 & 교육

□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

- 사회적 배경이 높은 청년일수록 성인 이행기에 취업보다 교육 우선시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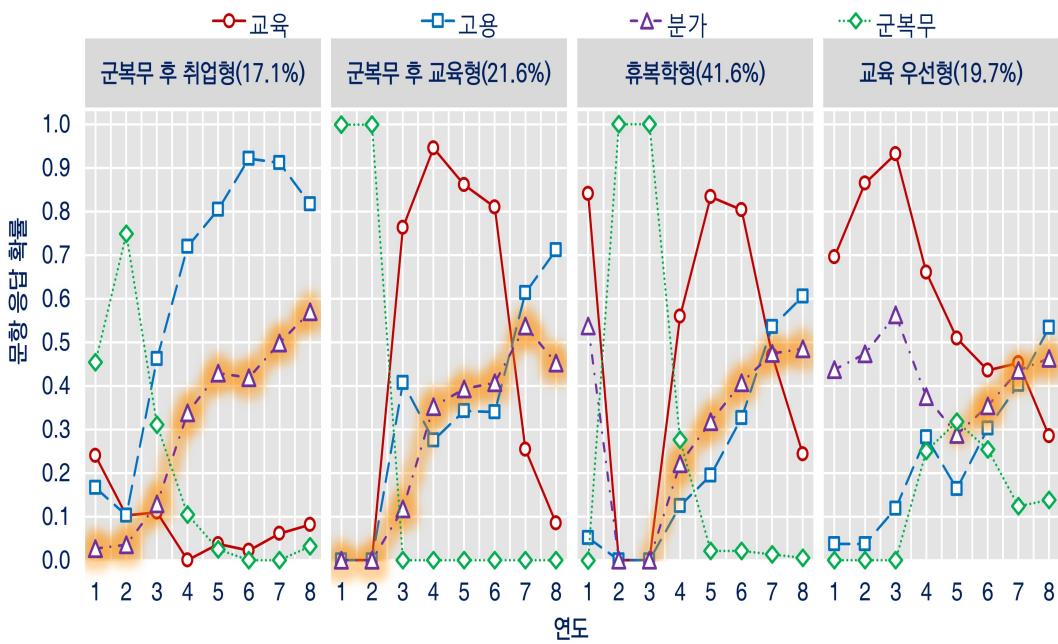
- 사회계층과 성인기 이행 간 관계는 교육수준에 의해 매개됨

오병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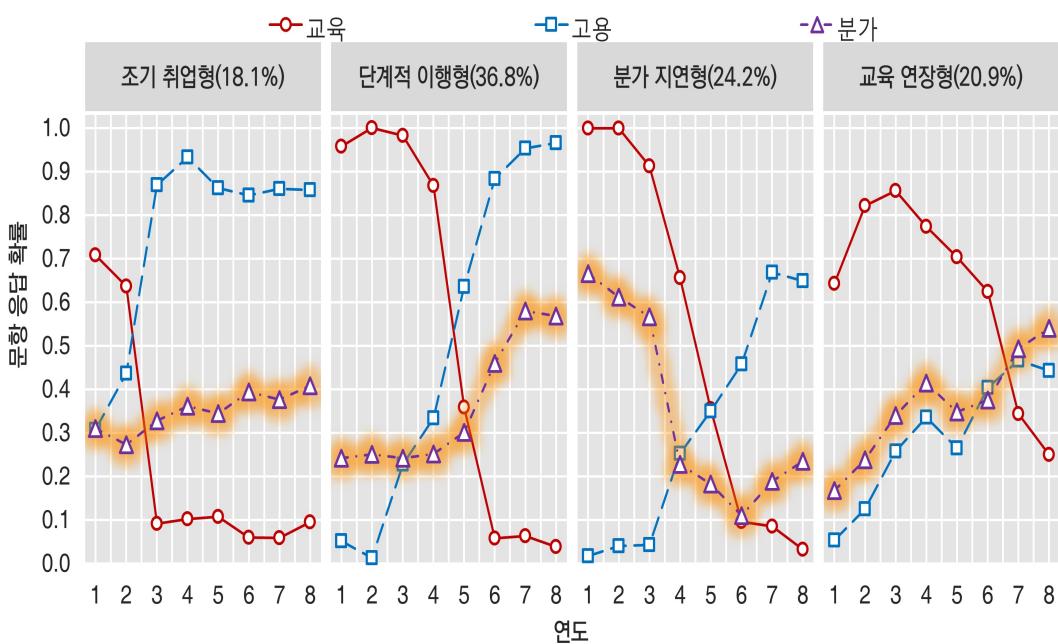
결과 교차성 1/3



오병돈

32

고찰 교차성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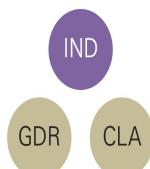


오병돈

33

고찰 교차성 3/3

- 분가에서 성별 및 계층 교차성
▪ 여성의 분가 지연 잠재적 원인



- 조기 취업형
◦ 경제적 역량 부족
◦ 부모 지원 책임
- 분가 지연형
◦ 부유한 부모의 지원 확장

오병돈



34

고찰 함의 1/2

5가지 주요 특징

- 정체성 탐색
- 불안정성
- 자기 중심성
- 과도기적 감각
- 가능성/**낙관주의**

VS.

다양성 및 이질성

- 사회계층
- 교육수준
- 성별
- 인종/민족

- 성인기 이행 경로는 사회계층, 교육 수준,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

오병돈



35

고찰 함의 2/2

□ 이론적 함의

- 초기 성인기(emerging adulthood) 이론이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추가 연구 필요

□ 정책적 함의

-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사회적 개입은 사회계층,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여성의 “조기 취업형(18.1%)”과 남성의 “군복무 후 취업형(17.1%)”은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불안정한 집단 중 하나
- 성인기 이행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오병돈



36

감사합니다!

오병돈



<https://byeongdonoh.com>

ohb@sunypoly.edu

dono@berkeley.edu

Q & A

부록

결과 기술통계

| | 여성 | | 남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사회계층 | | | | |
| 가구소득(백분위) | 47.053 | (26.236) | 48.463 | (26.929) |
| 부모의 교육수준(백분위) | 31.077 | (27.456) | 33.331 | (28.284) |
| 교육수준 | | | | |
| 인문계고 졸업(%) | 85.583 | (35.180) | 85.130 | (35.645) |
| 4년제 대학 진학(%) | 75.153 | (43.279) | 73.606 | (44.159) |
| 표본 수 | 326 | | 269 | |
| 오병돈 | | | | 40 |

결과 LLCA 분석 모형 적합도

| 잠재 계층 수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 |
|---------|--------------------------------------|----------|
| | 남성 | 여성 |
| 1 | 8480.390 | 8115.151 |
| 2 | 8201.924 | 7828.651 |
| 3 | 7770.262 | 7676.660 |
| 4 | 7599.580 | 7599.506 |
| 5 | 7671.569 | 7644.305 |
| 6 | 7690.657 | 7660.7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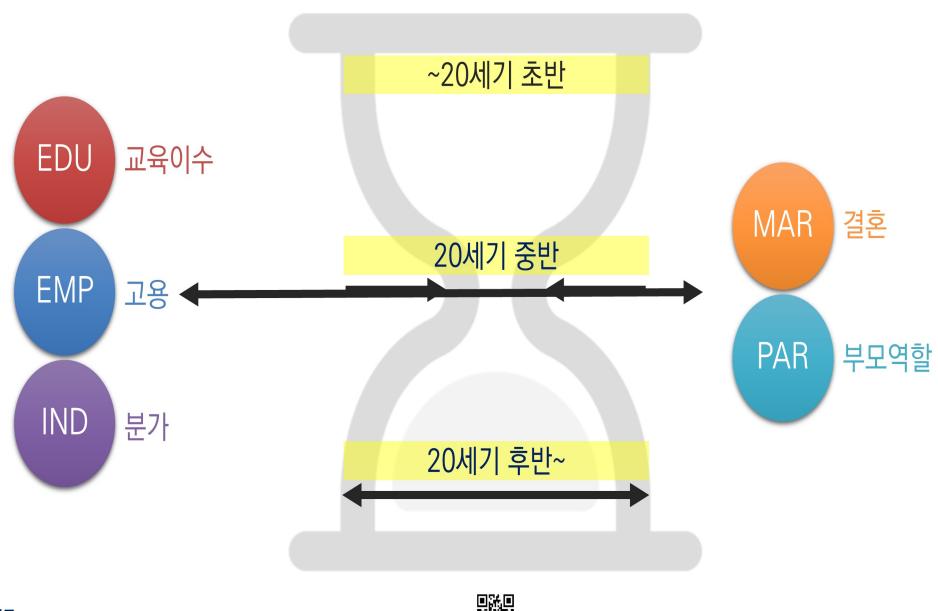
오병돈



41

초기 성인기 모래시계형

□ 모래시계형(Jones and Wallace 1992)



오병돈

42

감사합니다!

오병돈



<https://byeongdonoh.com>

ohb@sunypoly.edu

dono@berkeley.edu

END

주제발표2

번역자료2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주제발표3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

三輪 哲 教授(立教大学)

青年国際フォーラム「青年の交差する人生経路：韓日における成人期への移行」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

三輪 哲

(立教大学社会学部)

2025年7月28日 於：ポストタワースカイホール ソウル（韓国）

研究の背景

- 成人期への移行は、学校卒業、離家、就職、結婚、子を持つ（出産）などのライフイベントを経験して、大人になることをさす（Shanahan 2000）
- 1990年代以降、日本含む先進諸国では、成人期移行が遅くなってき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 日本では、こうした遅れを「巣立ちの失敗」としてとらえ、その原因を若者の「甘え」た性格や価値意識、親の育て方にあるという見方が一般的になされている（Newman 2012=2013）
- 一方、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において不利な階層出身者ほど、不安定な移行を経験しやすいともいわれている（Furlong et al. 2003）

動機と研究目的

- 以上の2つの見解は、まったく逆の見方となる
 - 若者個人の問題なのか？それとも、社会構造の問題なのか？
 - とりわけ日本では、パラサイトシングル論（山田 1999）にみられるように、（実態を見ずに）若者に厳しい論調になることが多く、警戒が必要
- そこで、本研究では、以下の条件を満たす資料と根拠に基づいて、日本における成人期移行の遅れがもつ意味を再検討したい
 - 条件1：若者個人の価値観や態度を測定した変数を有していること
 - 条件2：育った家庭環境や、階層的地位の変数も有していること
 - 条件3：成人期移行の時間的経過を的確にとらえていること
 - 条件4：日本全国をカバーし、代表性のある良質な大規模定量的調査から得られたデータであること
- 東大社研若年パネル調査データを用い、日本の成人期移行の特徴を検証する

パネル調査データの必要性

- 政府統計では検証が困難
 - 日本にも、正規職についているか、親と同居しているか、婚姻状況や子どもの有無を調べられる確かな政府統計はさまざま存在する
 - だがそれらでは、調査時点現在で同居しているか、配偶者がいるか、はわかるのだが、回答者が人生でいつ初めて親と離れて暮らしたか、初めて結婚したかはわからない
 - ワンショットの社会調査データでも検証は難しい
 - いくつかの社会調査データならば、初婚や第一子出生、正規職就職の年齢が調べられている
 - しかし、回答者の価値観・態度がその後の成人期移行に影響するかどうかは、ワンショットの調査データではせまることができない
- ⇒ ゆえに、やはりパネル調査のデータを精査する必要がある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若年パネル調査

・調査の目的

「労働市場の構造変動、急激な少子高齢化、グローバル化の進展などとともに、日本社会における就業、結婚、家族、教育、意識、ライフスタイルのあり方は大きく変化を遂げようとしている。これから日本社会がどのような方向に進むのかを考える上で、現在生じている変化がどのような原因によるものなのか、あるいはどこが変化してどこが変化していないのかを明確にする。」

・調査設計

- ・日本全国居住の1972～86年出生の人びとを母集団とした
- ・層化二段無作為抽出法により、標本を抽出した
- ・2007年の第1波調査では、9,771名のうち、3,367名から有効回収を得た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若年パネル調査

・継続調査

- ・その後、毎年1回（1～3月）調査を継続し、パネルデータを構築
- ・既に、第18波（2025年）まで続いている
 - ・2025年7月現在で、第14波までは、データが東大社研のSSJDAより公開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https://csrda.iss.u-tokyo.ac.jp/english/>
 - ・比較対象を得るために、壮年パネル調査も同時に実施
 - ・基本的な設計や質問項目は同一、ただし回答者は1966～71年出生の世代

・質問項目

- ・調査時点の質問 職業を中心に、さまざまな社会経済的地位を測定
- ・出身背景の質問 15歳時の家族の状況、家庭の様子など
- ・価値観・態度 社会や政治の意識、人生で重視するもの、など
- ・過去の経験 生徒・学生時の生活、成績、人生での経験など

質問項目

- 今回の分析では、以下の質問項目を主に用いる
 - 第1波調査の問10における「経験していない」の回答割合
 - その後、第2波以降での累積生存率（未経験のまま残っている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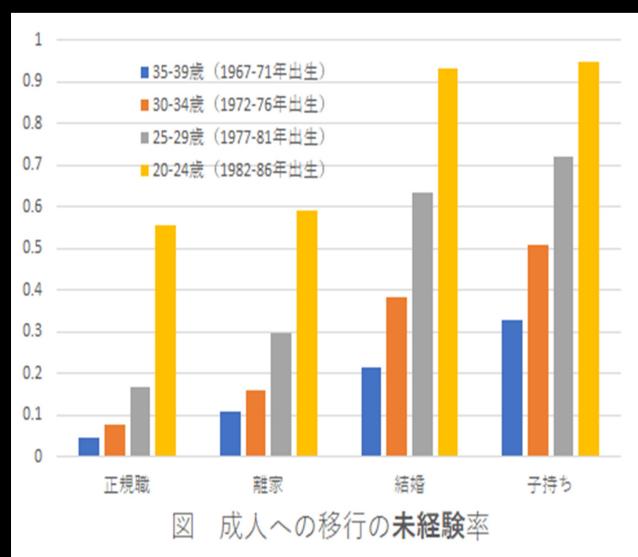
問10. 以下の出来事について、あなたは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あてはまる番号1つに○をつけてください。

| | すでに 経験した | 経験して いない |
|-----------------------|-------------|-------------|
| A. 正規の社員・職員の 仕事に就く | 1 | 2 |
| B. 親とちがうところに住む | 1 | 2 |
| C. 結婚する | 1 | 2 |
| D. 子どもを持つ | 1 | 2 |

付問.(経験していない方へ)
今後、何歳までに経験したいです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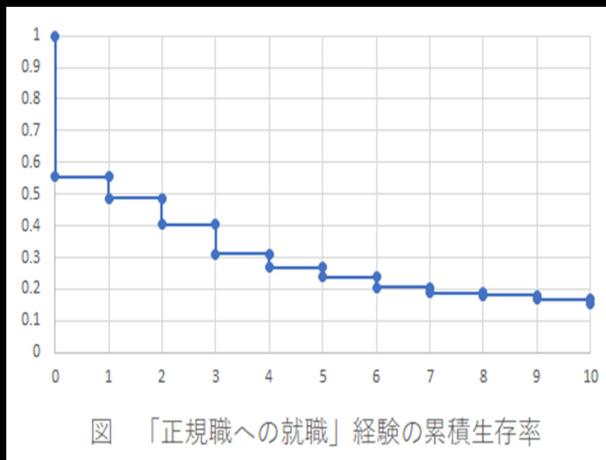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成人への移行経験のコード間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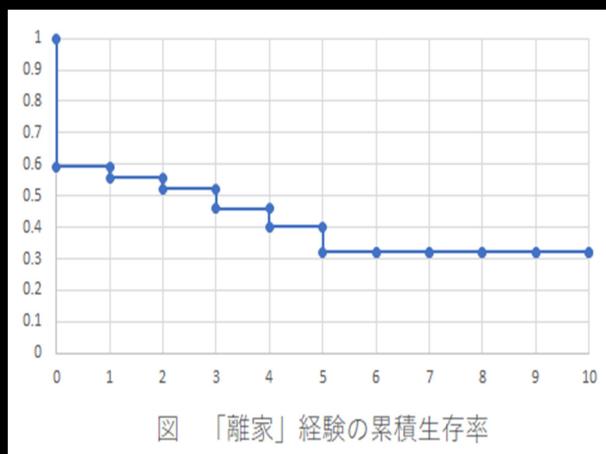
- 左の図は、4種類の成人への移行の未経験率
- 調査時（2007年）の20-24歳の若年者は、正規職についての経験や、離家した経験がない者が6割弱
- 結婚の経験、子を持つ経験になると、9割以上がまだ経験していない

日本の若年者の成人への移行：正規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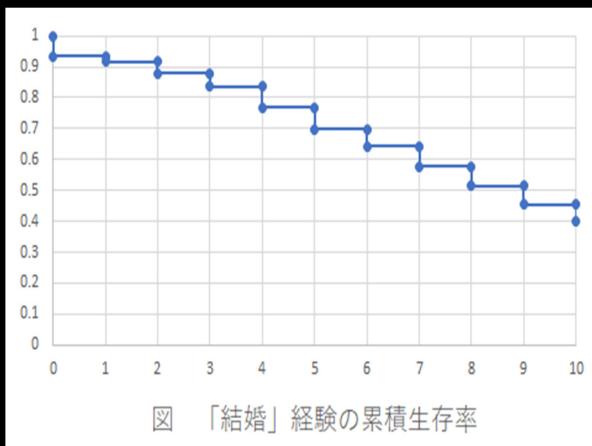
- 累積生存率により、何年後に経験するかを図示
- 2~3年後に正規職へ就職する確率が高め
 - 大学卒業の時期に重なる
- 5年後に未経験なのは約25%、10年後では約15%
 - 前の世代よりもやや高い
 - この世代が「後期就職氷河期」にあたることも一因

日本の若年者の成人への移行：離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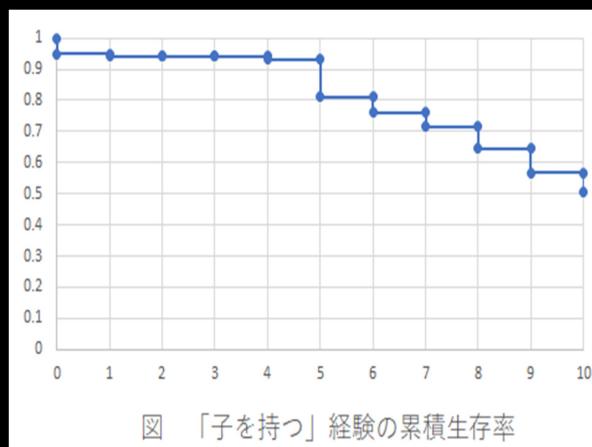
- 離家は、20代前半時点で4割が経験（未経験は6割）
 - 日本では多くが大学進学や、高校卒業後就職といったタイミングで離家をする
 - 5年後の時点では未経験は3割ほどに
 - この値は前の世代と変わらない
- 【6年後以降は、質問項目が変わり、データの挙動が不明瞭】

日本の若年者の成人への移行：結婚



- ・結婚については、20代前半では経験した者はわずか
- ・その後、4年目以降に、一定のペースで結婚が起き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 ・5年目時点で未経験率は約7割、10年目時点で約4割
 - ・前の世代より若干高め
 - ・これが未婚/晩婚化の反映か、パネル調査の性質（脱落）のせいかはわからない

日本の若年者の成人への移行：子持ち



- ・子を持つ経験の生存率の形状は、4年後まではほとんど起こらず、5年目以降に生じる
 - ・結婚経験より遅め
- ・5年後時点で未経験率は約8割、10年後で約5割
 - ・前の世代よりやや高いが、これについても評価は保留

成人期移行の分析モデルと変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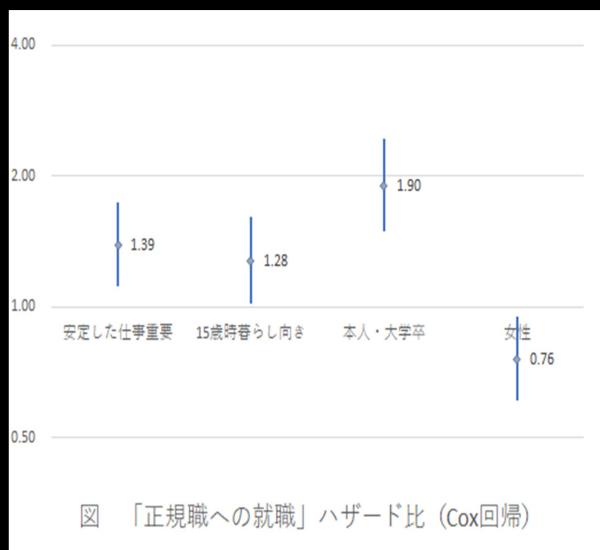
- これより、若年者の成人期移行の規定要因を検証する
- モデル
 - Cox比例ハザードモデル（Cox回帰）
 - これから起きうる事象（右センサー）のデータを適切に扱える
 - 独立変数により、移行の起きやすさ（タイミングの早さ）をとらえる
- 変数
 - 従属変数 人生で初めて以下の経験をするタイミング

| | |
|------------|--------------------------|
| 1) 正規職への就職 | 働き方が「経営者・役員」または「正規社員・職員」 |
| 2) 離家 | 父親、母親のどちらとも同居していないこと |
| 3) 結婚 | 婚姻状態が「有配偶」、「離別」、「死別」 |
| 4) 子を持つこと | 子どもの有無の質問で「あり」と回答 |

成人期移行の分析モデルと変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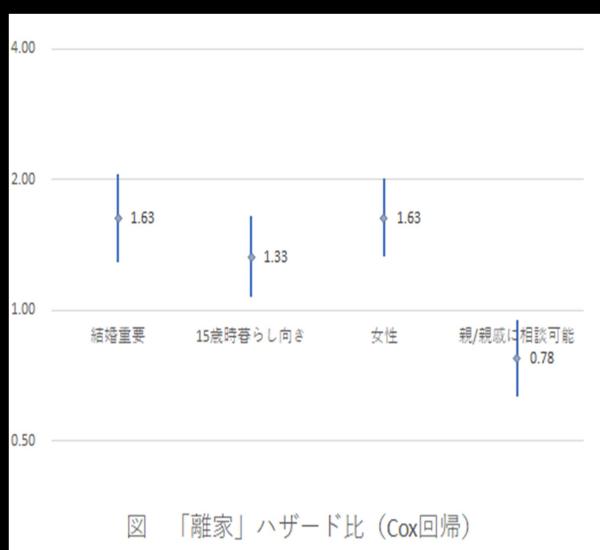
- 変数
 - 独立変数
 - 本人の属性 性別（女性ダミー変数）、学歴（大卒ダミー変数）
 - 出身の経済資本 15歳時暮らし向き、父・上層ホワイトカラー
 - 出身の文化資本 親・大卒ダミー変数、幼少時の自宅の蔵書数
 - 出身の社会関係資本 仕事や人間関係について親や親戚に相談可能か
 - 親による育てられ方 15歳時の家庭の雰囲気、父の育児への関与
 - 本人の価値観など 「将来よりも今の生活を楽しみたい」、「やりたくない仕事にはつきたくない」
「結婚して幸せな生活を送るのは重要」、「金持ちになるのは重要」
「子どもに恵まれた機会を与えるのは重要」、「安定した仕事につくのは重要」
これらをもとに、ステップワイズ法により変数選択した

成人への移行の規定要因：正規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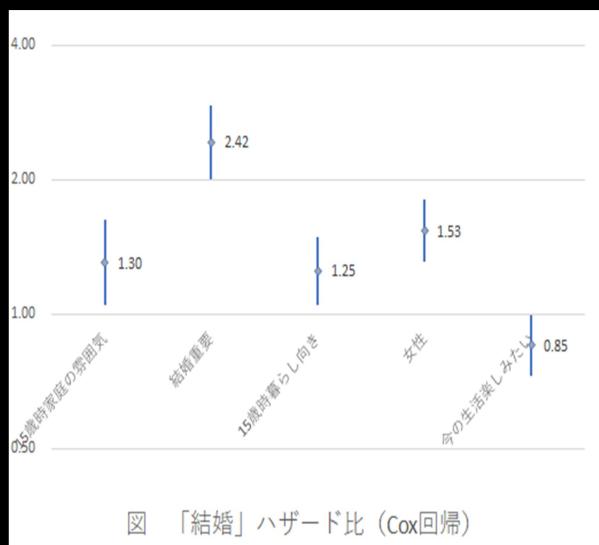
- 統計的有意な効果がみられたのは左の4つの要因
- 本人が大卒だと、1.9倍ほど正規職に移行しやすい
- 女性は、男性よりも、正規職につきにくい
- 15歳時暮らし向きがよいほど、正規職に移行しやすい
 - 出身階層による機会不平等
- 本人が安定した仕事につくのを重視していると、1.4倍ほど正規職移行しやすい
 - 若年期の価値観も重要

成人への移行の規定要因：離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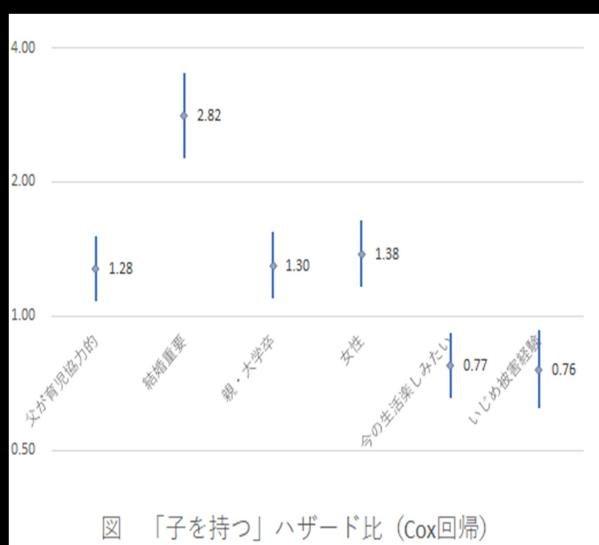
- 女性は離家しやすい
 - 夫の家に入る、日本の慣習
- 15歳時暮らし向きが豊かなほど、離家しやすい
 - 実家に「お金」を入れることを求められ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
- 仕事について親や親戚に相談可能な人は、離家をしにくい傾向
 - 離家していないから相談しやすい？逆因果の可能性も…
- 結婚して幸せな生活を送るのを重視している人は、離家しやすい
 - 結婚と結びついているから？

成人への移行の規定要因：結婚



- 女性のほうが結婚しやすい
- 15歳時暮らし向きが恵まれているほうが結婚しやすい
- 本人の価値観・態度では、「結婚して幸せな生活を送りたい」という価値観はポジティブに、「今の生活を楽しむたい」という態度はネガティブに影響
 - 若年期の価値観はここでも鍵になる（特に前者は効果が強い）
- 家庭環境では、15歳時家庭の雰囲気が良好であった場合、結婚への移行が1.3倍起こりやすい
- 出身家庭でみていた家族生活のイメージは案外重要なのは

成人への移行の規定要因：子持ち



- 女性は、子を持ちやすい
- 親が大卒のほうが子を持ちやすい
- 価値観の効果は、向きは結婚移行の場合と類似、ただしより強め
 - 結婚重視はポジティブ、今の生活楽しみたい場合はネガティブ
- 父親が育児に協力的だった場合は、子を持ちやすくなる
- いじめ被害経験があると、子を持つ傾向が低くなる
 - 過去のよい記憶、よくない記憶は、自身の子どもを持つ意思決定にも何らかの影響を及ぼすのか？

分析結果の要約

- 成人への移行のタイミング
 - 20代前半の頃に、正規職就職、離家経験の割合は、全体の半数弱
 - 他方、同じ頃に、結婚や子を持った割合はわずかしかいない
 - その後徐々に成人への移行を経験する、子を持つことだけ動きが遅い
- 成人への移行の規定要因
 - 女性は、正規職になりにくいが、離家、結婚、子持ちになりやすい
 - 出身階層（暮らし向き、親学歴）が高いほど、成人期移行は早まる
 - 値値観については、安定した仕事重視すると正規職へつきやすく、結婚して幸せな生活重視だと離家・結婚・子持ちになりやすい、また今の生活を楽しみたい志向があるとむしろ結婚・出産はしなくなる
 - 家庭環境がよいと、結婚や子を持つことにポジティブに影響し、成人期移行が早まる

結論

- 現代日本の若年者に見る成人期移行の特徴
 1. 人生初期の価値観の重要性
 - 20代前半の価値観は、その後の成人への移行を後押しもするし、妨げもある
 - ただし、若者が自立を拒んで就職や離家を避けているような証拠は得られない
 2. 看過できない出身背景の影響
 - 出身の社会階層的地位が高いと、成人への移行がしやすくなる
 - 良好的な家庭環境で育つと、特に、家族形成において成人への移行がしやすくなる
 - これらは、「後から」「本人が努力して」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条件
 - 自立するチャンスは、必ずしも平等に開か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 自立の遅れを若者個人の「甘え」と見ずに、社会問題として認識すべき
- 示唆
 - 真面目に働くこと、家族を持つことの価値をいかに醸成するか
 - 情報の提供、必要な支援をおこなう組織やしくみをどう整えるか

文献・謝辞

【文献】

Furlong, A., F. Cartmel, A. Biggart, H. Sweeting and P. West, 2003, "Youth Transitions: Patterns of Vulnerability and Processes of Social Inclusion," *Enterprise and Lifelong Learning Research Programme Research Findings No.8: 1-4.*

Newman, K. S., 2012, *THE ACCORDION FAMILY: Boomerang Kids, Anxious Parents, and the Private Toll of Global Competition*, Boston: Beacon Press. (=2013, 萩原久美子・桑島薰訳『親元暮らしという戦略—アコーディオン・ファミリーの時代』岩波書店。)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ies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筑摩書房。

【謝辞】

本研究は、日本学術振興会(JSPS)科学研究費補助金・特別推進研究(25000001, 18H05204), 基盤研究(S)(18103003, 22223005), 特別研究員奨励費(24KJ2064)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ある。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東大社研)パネル調査の実施にあたっては、社会科学研究所研究資金、株式会社アウトソーシングからの中學寄付金を受けた。パネル調査データの使用にあたっては東大社研パネル運営委員会の許可を受けた。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3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미와사토시 교수(릿쿄대학교)

청년국제포럼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미와 사토시

(릿쿄대학교 사회학부)

2025년 7월 28일 장소·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서울(한국)

연구 배경

- 성인기 이행은 학교 졸업, 분가, 취업, 결혼, 자녀(출산) 등 삶의 이벤트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뜻한다.(Shanahan 2000)
-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일본에서는 이를 「둥지 떠나기(자립) 실패」라 여기는데, 그 원인이 청년의 「의존적」 성격과 가치의식, 부모의 양육 방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Newman 2012=2013)
- 한편,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할 때 불리한 계층 출신자일수록 불안정 이행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Furlong et al. 2003)

동기 및 연구 목적

- 이상의 두 가지 견해는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다.
 - 청년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인가?
 - 특히 일본은 ‘패러사이트 싱글(야마다 1999)’에서 볼 수 있듯이, (실태를 안 본 채) 청년들에게 비판적 논조를 떠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료 및 근거를 토대로 일본의 성인기 이행 지연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조건 1: 청년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를 측정한 변수가 있음
 - 조건 2: 자라온 가정 환경 및 계층적 지위 변수도 있음
 - 조건 3: 성인기 이행의 시간적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 조건 4: 일본 전국을 커버하며 대표성 있는 양질의 대규모 정량적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임
-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의 성인기 이행 특징을 검증한다.

패널조사 데이터의 필요성

- 정부 통계로는 검증이 어렵다.
 - 일본에도 정규직으로 취업했는지, 부모와 함께 사는지, 혼인 상태 및 자녀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하고 다양한 정부 통계가 존재한다.
 - 그러나, 이들 조사로는 조사 시점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배우자 존재 여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인생에서 언제 최초로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했는지, 언제 처음 결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원샷(one-shot) 사회조사 데이터로도 검증이 어렵다.
 - 몇 가지 사회조사 데이터를 보면 초혼 및 첫 자녀 출생, 정규직 취업의 연령 조사 결과는 있다.
 - 그러나 응답자의 가치관/태도가 그 후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원샷 조사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다.
- ⇒ 따라서, 역시 패널조사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 조사 목적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글로벌화 등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 취업, 결혼, 가족, 교육, 의식, 라이프스타일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향후 일본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한다.」

• 조사 설계

- 일본에 거주하는 1972~86년 출생자들을 모집단으로 삼았다.
- 총화 2단계 무작위 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했다.
- 2007년 1차 조사에서 9,771명 중 3,367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이 있었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 지속적 조사

- 그 후 매년 1회(1~3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
- 이미 18차(2025년)까지 진행.
 - 2025년 7월 현재, 14차 데이터까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SSJDA에서 공개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https://csrda.iss.u-tokyo.ac.jp/english/>
 - 비교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장년패널조사도 동시에 진행
 - 기본적 설계 및 질문 항목은 동일. 단, 응답자는 1966~71년 출생 세대

• 질문 항목

- | | |
|------------|----------------------------|
| • 조사 시점 질문 | 직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측정 |
| • 출신 배경 질문 | 만 15세 당시의 가족 상황, 가정 상태 등 |
| • 가치관/태도 | 사회 및 정치 의식, 인생에서 중시하는 것 등 |
| • 과거 경험 | 학창 시절 생활, 성적, 인생 경험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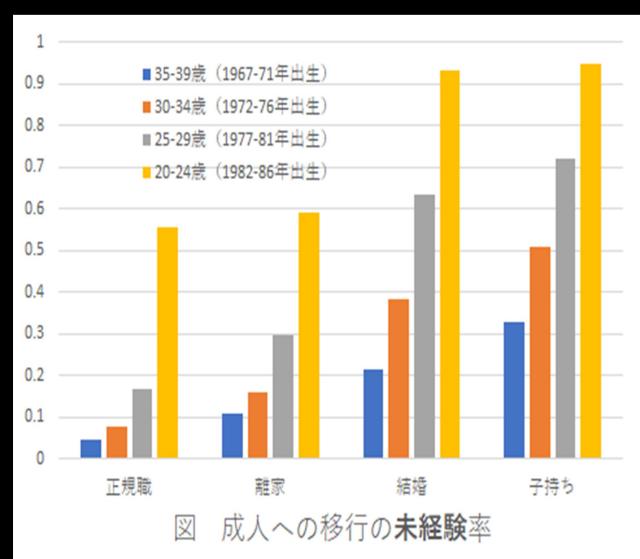
질문 항목

- 이번 분석에서는 아래 질문 항목을 주로 이용
 - 1차 조사의 질문 10에 대해 「경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 그 후, 2차 조사 이후의 누적 생존율(여전히 미경험 상태인 비율)

問10. 以下の出来事について、あなたは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あてはまる番号1つに○をつけ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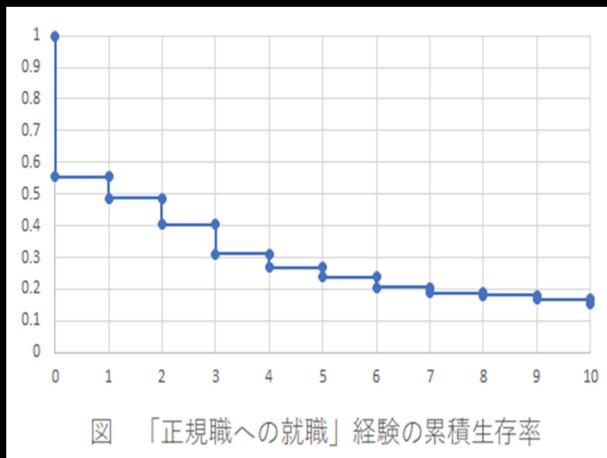
| | すでに 経験した | 経験して いない | 付問。(経験していない方へ) 今後、何歳までに経験したいですか。 |
|-----------------------|-------------|-------------|-------------------------------------|
| A. 正規の社員・職員の 仕事に就く | 1 | 2 |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 B. 親とちがうところに住む | 1 | 2 |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 C. 結婚する | 1 | 2 |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 D. 子どもを持つ | 1 | 2 | → 1.したい:()歳までに 2.したくない |

성인 이행 경험의 코호트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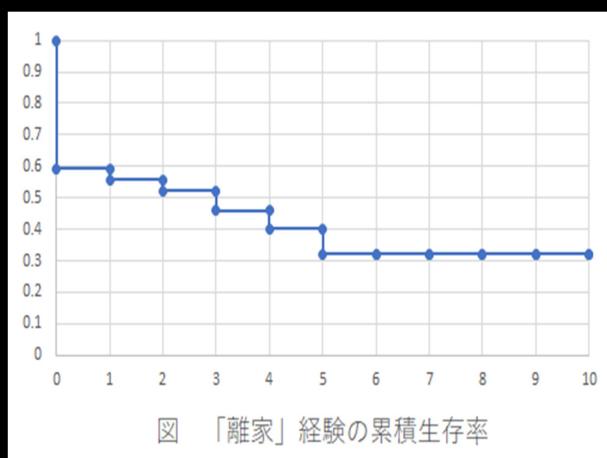
- 좌측 그래프는 4종류의 성인 이행의 미경험률
- 조사 당시(2007년), 만 20~24세 청년 중 정규직 미 경험자 및 분가 미경험자가 약 60%
- 결혼 경험, 자녀 경험은 90% 이상이 미경험

일본 청년의 성인 이행 : 정규직



- 누적 생존율 통해 몇 년 후에 경험할지 예측
- 2~3년 후 정규직 취업 확률 높음
 - 대학 졸업 시기와 겹침
- 5년 후 미경험은 약 25%, 10년 후에는 약 15%
 - 이전 세대보다 조금 높음
 - 이 세대가 「후기 취업 빙하기」에 놓인 것도 원인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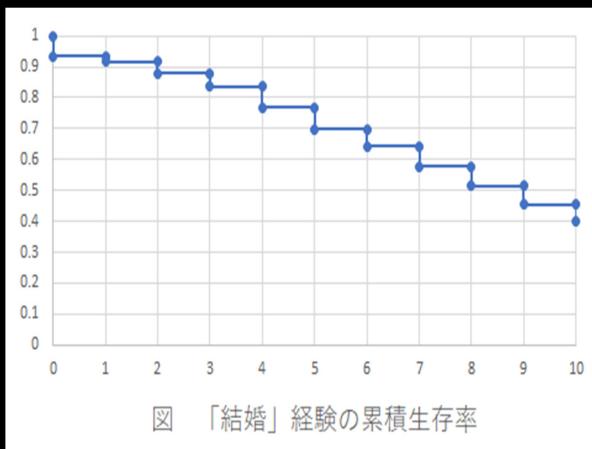
일본 청년의 성인 이행 : 분가



- 분가는 20대 전반에 40%가 경험 (미경험은 60%)
 - 일본에서는 대부분 대학 진학 또는 고교 졸업 후 취업 등의 타이밍에 분가한다
- 5년 후 미경험은 약 30%
 - 이 수치는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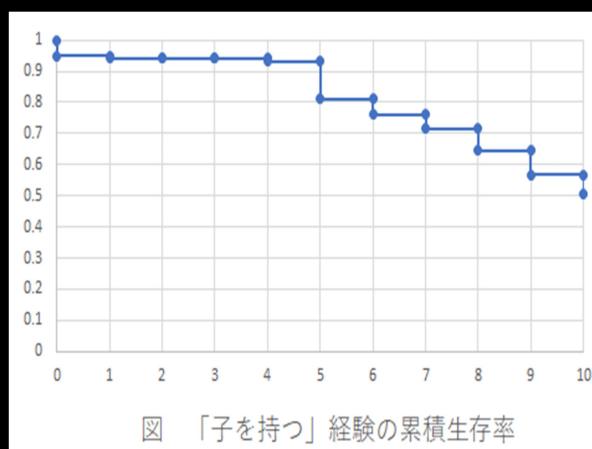
【6년 후부터는 질문 항목이 달라져서 데이터 움직임이 명료하지 않음】

일본 청년의 성인 이행 : 결혼



- 결혼을 20대 전반에 경험한 사람 은 드물다.
- 그 후, 4년째 이후에 일정 속도로 결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 5년째의 미경험률은 약 70%, 10년째에는 약 40%
 - 이전 세대보다 조금 높다.
 - 이것이 미혼/만혼화 때문인지, 패널조사의 성질(탈락)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 청년의 성인 이행 : 자녀



- 자녀 경험의 생존율 패턴은 4년 후까지는 거의 없고 5년 째 이후부터 발생했다.
 - 결혼 경험보다 늦다.
- 5년 후의 미경험률은 약 80%, 10년 후에는 약 50%.
 - 이전 세대보다 조금 높지만 이것도 평가는 보류

성인기 이행의 분석 모델 및 변수

- 이를 통해 청년의 성인기 이행의 규정 요인을 검증한다

- 모델

- Cox 비례 위험 모델 (Cox 회귀)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우측 센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취급
- 독립 변수를 통해 이행 용이성(타이밍의 빠름 정도) 파악

- 변수

- 종속변수 인생 최초로 다음을 경험한 시기

- | | |
|-----------|--------------------------------|
| 1) 정규직 취업 | 근무 형태가 「경영자/임원」 또는 「정규직 사원/직원」 |
| 2) 분가 | 부/모 그 어느쪽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다 |
| 3) 결혼 |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 「이별」, 「사별」 |
| 4) 자녀 출산 | 자녀 유무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 |

성인기 이행의 분석 모델 및 변수

- 변수

- 독립변수

- | | |
|--------------|---------------------------------|
| • 본인의 속성 | 성별 (여성 더미변수), 학력 (대출 더미변수) |
| • 출신의 경제 자본 | 만 15세 시의 생활 수준, 부친/상류층 화이트칼라 |
| • 출신의 문화 자본 | 부모/대출 더미변수, 어린 시절 자택의 장서 수 |
| • 출신의 사회적 자본 |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부모나 친척에게 상담 가능한가 |
| • 부모의 양육방식 | 만 15세 시의 가정 분위기, 부친의 육아 참여 |
| • 본인의 가치관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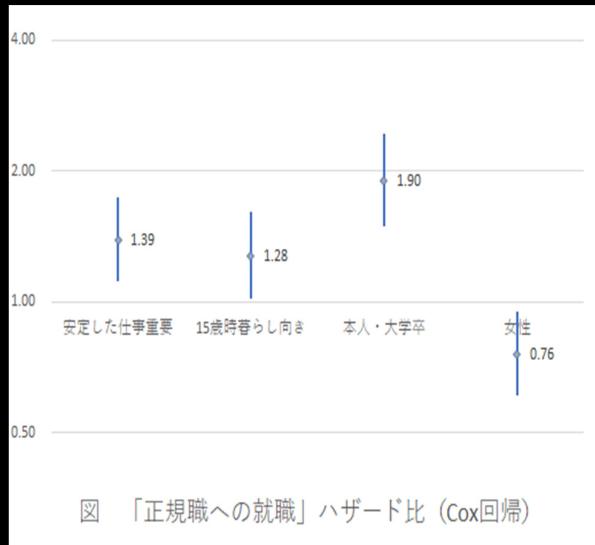
「미래보다 현재 생활을 즐기고 싶다」,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은 싫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자녀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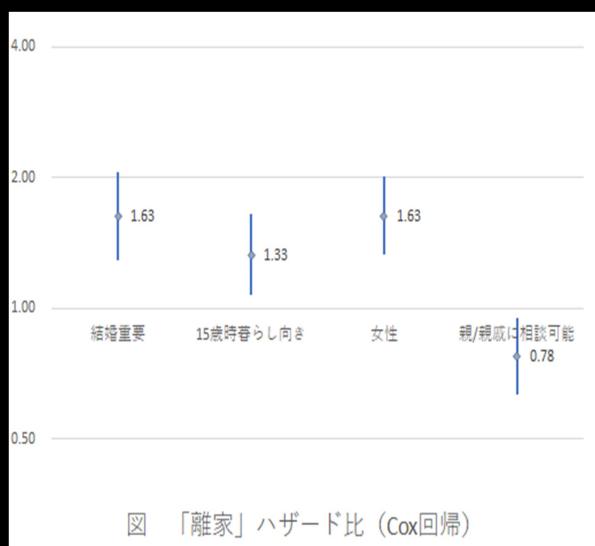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스텝와이즈기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함

성인 이행의 규정 요인 : 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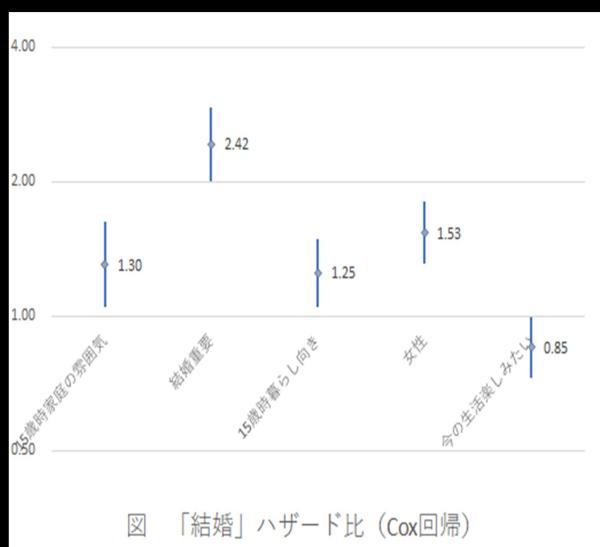
-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인정된 것은 좌측 4가지 요인
- 본인이 대졸일 경우 1.9배 정도 정규직 이행이 용이
- 여성이 남성보다 정규직 취업이 어려움
- 만 15세 시의 생활 수준이 좋을 수록 정규직 이행이 용이
 - 출신 계층에 따른 기회 불평등
- 본인이 안정적 취업을 중시할 경우 1.4배 정도 정규직 이행이 용이
 - 청년기 가치관도 중요

성인 이행의 규정 요인 : 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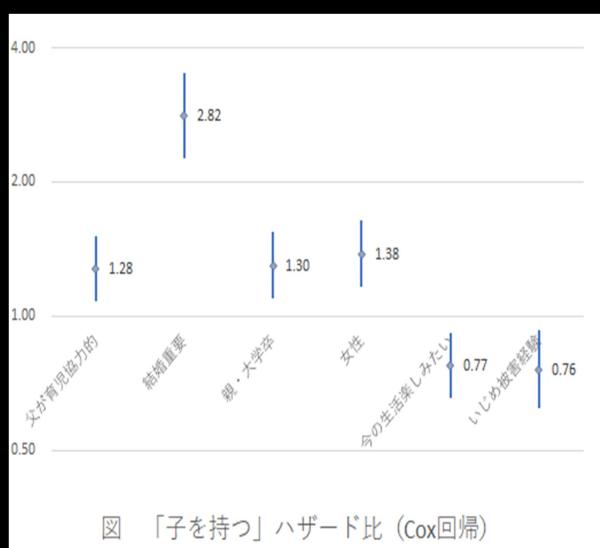
- 여성은 분가하기 쉬움.
 - 남편 집에 시집가는 일본적 관습
- 만 15세 시 생활 수준이 풍족할수록 분가 용이
 - 친정으로부터 「돈」을 보태달라는 요구가 없을 수도
- 일에 대해 부모나 친척에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분가가 어려운 경향
 - 분가를 안했기 때문에 상담하기 편함?
역인과 가능성도 ...
-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분가하기 쉬움.
 - 결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성인 이행의 규정 요인 : 결혼



-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하기 쉬움.
- 만 15세 시의 생활 수준이 여유로울수록 결혼이 용이
- 본인의 가치관/태도는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지금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태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청년기 가치관이 여기서도 중요(특히 전자의 효과가 큼)
- 가정 환경은 15세 시의 가정 분위기가 양호했을 경우 결혼이행이 1.3배 높음
- 자라온 가정에서 겪은 가족생활 이미지가 의외로 중요

성인 이행의 규정 요인 : 자녀



- 여성은 자녀를 갖기 쉬움.
- 부모가 대졸일 경우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 있음.
- 가치관이 주는 효과는 결혼 이행과 비슷하나 조금 더 강력
 - 결혼을 중시할 경우 긍정적으로, 현재 생활을 즐기고 싶을 경우에는 부정적
- 부친이 육아에 협력적이었다면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 학폭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낮아진다
 - 과거의 좋은 기억/안 좋은 기억들은 자녀를 낳으려는 의사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 요약

• 성인 이행 타이밍

- 20대 전반에 정규직 취업, 분가를 경험한 비율은 약 절반
- 반면, 같은 시기에 결혼 및 자녀를 가진 비율은 드물다
- 그 후 점차 성인 이행을 경험. 자녀 출생만 움직임이 느림

• 성인 이행의 규정 요인

- 여성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렵지만 분가, 결혼, 자녀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 출신 계층(생활 수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기 이행이 빨라짐.
- 가치관 관계에서는, 안정적 직업을 중시할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중시한다면 분가/결혼/자녀를 가지고자 한다.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면 오히려 결혼/출산을 하지 않게 된다.
- 가정 환경이 좋으면 결혼/자녀 낳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성인기 이행이 빨라진다.

결론

• 현대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

1. 인생 초기 가치관의 중요성

- 20대 전반의 가치관은 그 후의 성인 이행을 촉진시키기도, 또는 방해하기도 한다.
- 단, 청년들이 자립을 거부하며 취업/분가를 회피하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간과할 수 없는 출신 배경의 영향

- 출신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으면 성인 이행이 용이.
-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특히 가족 형성에 있어 성인 이행이 쉬워진다.
- 이것은 「나중에」 「본인의 노력으로」 는 바꿀 수 없는 조건
- 자립의 기회가 반드시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립 지연을 청년 개인의 「의존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함.

• 시사점

-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정보 제공,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직 및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문헌/감사의 글

【문헌】

Furlong, A., F. Cartmel, A. Biggart, H. Sweeting and P. West, 2003, "Youth Transitions: Patterns of Vulnerability and Processes of Social Inclusion," *Enterprise and Lifelong Learning Research Programme Research Findings No.8*: 1-4.

Newman, KS, 2012, *THE ACCORDION FAMILY: Boomerang Kids, Anxious Parents, and the Private Toll of Global Competition*, Boston: Beacon Press. (=2013, 萩原久美子・桑島薰訳『親元暮らしひう戦略—アコードィオン・ファミリーの時代』이와나미서점.)

Shanahan, M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ies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ちくまサークル.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JSPS) 과학연구비보조금/특별추진연구(25000001, 18H05204), 기반연구(S)(18103003, 22223005), 특별연구원장려비(24KJ2064) 지원을 받음.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패널조사 실시를 위해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자금, 주식회사 아웃소싱으로부터 장학 기부금을 받음. 패널조사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패널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음.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주제발표4

不安定社会における 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

杉田 真衣 准教授(東京都立大学)

青年国際フォーラム 青年の交差する人生経路 韓日における成人期への移行

不安定社会における 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

杉田 真衣 (東京都立大学)

本日の報告の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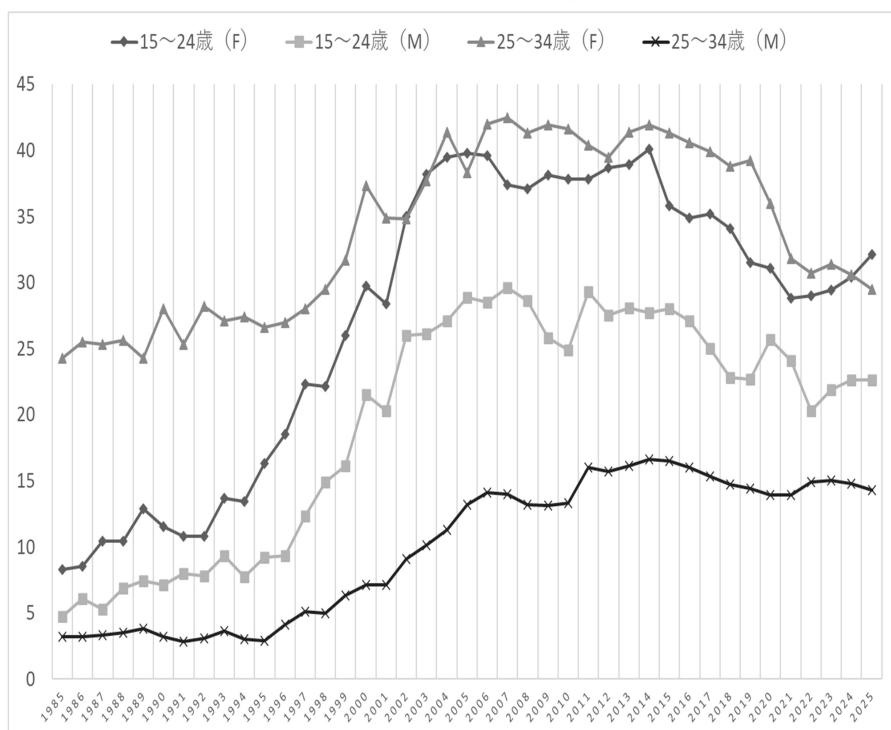
1. 研究の背景
2. 研究の方法
3. 4人の女性たちの概況
4. 彼女たちの語りから浮かび上がったこと
5. いま求められること

1. 研究の背景

研究の背景1

- ・ 1990年代後半以降の〈学校から仕事へ〉の移行の変容
- ・ 日本の戦後の標準的な〈学校から仕事へ〉の移行のパターン
「間断なき移行」から「終身雇用」へ
- ・ 非正規雇用や失業が増加
標準的な移行パターンが縮小・解体

若年非正規雇用率推移(1985-2025)



2001年以前は「労働力調査特別調査」、2002年以降は「労働力調査詳細集計」より作成。2001年までは2月、2002年以降は1~3月平均の数値。15~24歳は「在学中」を除いている。

雇用の不安定化の要因

- ・日本経営者団体連盟「新時代の『日本の経営』」（1995年）

「長期蓄積能力活用型グループ」（管理職・総合職・技能部門の基幹職）

<終身雇用>

「高度専門能力活用型グループ」（企画・営業・研究開発の専門部門）

<有期雇用>

「雇用柔軟型グループ」（一般職・技能部門・販売部門）

<有期雇用・時給制>

雇用の不安定化の要因

- ・労働者派遣法（1985年～）の「改正」

1999年：製造以外のほとんどの業務での派遣の自由化
(それ以前は26業務に限定)

2004年：製造での派遣も可能に／派遣期間が1年から3年に延長

2015年：企業は人を入れ替えれば3年以上派遣で雇用できる
(派遣労働者の側は3年で雇い止め)

- ・労働契約法の「改正」（2013年）

有期雇用労働者が5年働き続けた場合、本人が申請したら会社はその人を無期雇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5年未満の雇い止めの横行。

研究の背景2

- ・非正規雇用の拡大の要因を若者の意識（「勤労観」）の問題とみなす世論

- ・一人ひとりの履歴を詳細に聞き取ることによって、「非正規の仕事を転々と」と表されがちなありようの奥にある、かれらが自分でつくる生のかたちを記述したい。

2. 研究の方法

研究の方法：共同調査

- 東京都立大学／首都大学東京のグループの共同調査
- 調査時期
 - 2002年：高校3年在学時（89人）
 - 2003年～2004年：高卒1年目（53人）
 - 2005年～2006年：高卒3年目（39人）
 - 2007年～2008年：高卒5年目（33人）
- 若者を対象とした経年的インタビュー
- 東京都内の二つの公立普通科高校
 - A高校：「中位校」
 - B高校：「最低位校」

研究の方法：単独調査

- ・共同調査終了後、B高校出身の4人の女性たちを単独で追跡
- ・高卒であり、女性である、つまり社会階層とシェンダーから重に不利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若者たちへの着目
- ・調査時期
 - 2012~13年：高卒10年目：4人
 - 2014~15年：高卒12年目：4人
 - 2022年：高卒18年目：2人
- ・現在も4人との関係は継続
2025年現在40歳～41歳
(今年度に調査を実施する予定)

研究成果

乾彰夫編（2013）『高卒5年 どう生き、これからどう生きるのか』大月書店



杉田真衣（2015）『高卒女性の12年－不安定な労働、ゆるやかなつながり』大月書店



本日の報告

- ・4人の女性の軌跡を紹介しながら、ノンエリート若年女性たちがどのよう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
- ・いま何が必要なのかを提起する

※女性の名前はすべて仮名

3. 4人の女性たちの概況

今回報告する調査の対象者である庄山さんの語り

「長生きはしたくない」

「できれば30歳になる前に死にたい」

・浜野美帆さんは、正規で就職した美容室を1年3ヶ月で辞めてからは非正規で働き、高卒10年目に風俗店を経営する会社でアルバイトで働き始め、その5ヶ月後に正規雇用に転換。

・庄山真紀さんは一貫して非正規で働いている。

・西澤菜穂子さんは縁故で正規就職をするも3ヶ月で離職し、それからは非正規で働き続けた。（現在は病気療養中。）

・岸田さやかさんはアルバイトで働き、高卒4年目に、高校の同級生の相良健さんと結婚。高卒6年目に第一子、8年目に第二子が誕生して仕事を中断したが、11年目に再開。（その後第三子も生まれ、現在子どもは16歳、14歳、8歳。）

4人の高卒女性の軌跡1 (2003年～2006年)

| | 2003(18~19歳) | | | | | | 2004(19~20歳) | | | | | | 2005(20~21歳) | | | | | | 2006(21歳~22歳)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浜野 美穂 | 正規 | | | | | | | |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非正規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 非正規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西澤 菜穂 子 | 内定先で 非正規 | 正規 | | 非正規 | 非正規 | | 非正規 | 非正規(複数箇所で)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非正規 | | | | | | 父の会社の手伝い | | | | | | | | | | | | | | |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庄山 真紀 | 非正規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バンドのライブに通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岸田 さや か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バンドのライブに通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相良 健 (伴 奏)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人の高卒女性の軌跡2 (2007年～2010年)

4人の高卒女性の軌跡3 (2011年～2014年)

| | 2011(26～27歳) | | | | 2012(27～28歳) | | | | 2013(28～29歳) | | | | 2014(29～30歳) | | | | 2015(30～31歳)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 浜野 美穂 | | | | | 職業訓練 | | | | | 職業訓練 | | | 非正規 | | 非正規 | 非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正規 |
| 西澤 菜穂子 | | | | | 非正規 | | | | | ポイストレーニング | 演劇レッスン | | | | | | | | | | | | | | | | |
| 庄山 真紀 | | | | | 非正規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非正規 |
| 井田 さやか | | | | | | | | | | | | | 舞踏を出 でて一人暮 らし | | | | | | | | | | | | | | 非正規 |
| 相良 健 (井田) | | | | | | | | | | | | | | | | | | | | | | | | | | | 非正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彼女たちの語りから浮かび
上がったこと

彼女たちの進路選択

- ・高校生のときから労働者であり、家計を支える存在。
- ・進路選択において経済的な制約を著しく受ける。
(4人とも専門学校への進学を望むが断念。)
進路選択にはジェンダー差も見られる。

彼女たちの労働経験

- ・アルバイトでしていたのは、弁当屋、飲食店、カラオケ店や雀荘等での販売や接客の仕事。
- ・時給は低いうえに（時給は2000年代当時、日本円で800円台）、希望通りにシフトを入れら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働かされすぎたり、逆に働けなくて収入が減らされていたりした。
- ・正社員並に働かされながら病休すら許されず、ハラスメントにも遭う。

彼女たちの労働経験

- ・複数の仕事をかけもちすることで安定させようとしても、なかなか思うようにはいかない。
- ・より高い収入を求めて「性的サービス」の仕事へと参入しても、収入を安定させて仕事を継続するのは困難なことだった。

彼女たちの労働経験

- ・正規で就職できた場合であっても、長時間・低賃金で酷使され、同期不在のなかで孤立させられて、辞めることになった。
- ・一度正規の仕事を辞めると、女性は再就職が難しい。

彼女たちの労働経験

・たとえ不安定な仕事でも、働き続けるための知恵や技を身につけていっていた。

例：週1日以上は休む、オープニングスタッフ

・とはいっても、仕事を通じては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するのが難しく、将来展望も描きにくかった。

彼女たちの生活

・結婚願望を抱く時期があっても、結婚や子を持つことは難しい。交際相手の男性もまた不安定な仕事に就かざるを得ないうえに、女性に「貢がせ」たり束縛したりした。

・先の見えない生活において、バンドの追っかけ、コスプレ、声優、「同人誌」、テーマパークなどの消費文化が支えになっていく。こうした文化を通して将来展望を描くこともある。

彼女たちの生活

- ・高校の友人関係に支えられる。

時に関係が切れたり、つながっていてもさほど会わなくなったりするが、関係が完全に切断されることはない。

考えられる条件：育った範囲を大きく超えて生活することがない。

B高校の思い出話を共有している。

「いま、ここにいる」ということの感触を得られる関係や場

彼女たちの生活

- ・地域に生きる年上の人たちや医療・福祉関係者に支えられる。

庄山さんのことを見守る西澤さんの親たちや地域のメンタルクリニックの医師

浜野さんに生活保護を受け続けるよう働きかけるケースワーカー

彼女たちの生活

- ・岸田さん以外の3人の状況は、その後、悪化している。
(岸田さんは夫が過労状態。)

→中高年女性の貧困の問題につながっていく

5. いま求められること

いま求められること

- ・報告者の専攻は教育学であるが、教育以前の問題である。

劣化した雇用状況の改善

社会保障の拡充

公営住宅の拡充や家賃補助

いま求められること

- ・学校教育で、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知識や技術を伝える。

－妊娠や性感染症、暴力、依存症を含む病気、心身のケア、働くルール、生活保護や育児支援、消費者金融、料理など

－家庭科、社会科、保健体育、総合学習などの教科で

- ・「自分のせい」だと誤認して社会的に孤立することのないような学びとつながり。

いま求められること

- ・学校以外にも、生活していくために必要な情報が得られ、場合によつては専門機関等につながれると同時に、安心していられる場（居場所）をあちらこちらにつくる。

庄山さん「西澤さんちにいるときはやっぱり、何も考えずに楽しいです。」

家族の難しさや地域コミュニティの閉鎖性を考えると、私的なつながりに依拠しなくともいい公的なものとして、そのような場がつくられる必要がある。

例：フィンランドで10～28歳の女性を対象とした「女の子の家」

いま求められること

- ・彼女たちは社会構造の犠牲者（「かわいそう！」）であるだけではないが、自由に選択できる主体（「その人が好きでしているのなら」）でもない。
- ・彼女たちの声が聴かれる回路・方法の模索。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4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

스기타마이 준교수(동경도립대학교)

청년국제포럼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불안정 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 12년 면접조사 결과 -

스기타 마이 (동경도립대학교)

발표 순서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3. 네 명의 여성들의 상황
4. 그녀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것
5. 지금 필요한 것

1. 연구 배경

연구 배경 1

-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변용
- 일본 전후의 표준적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패턴
「끊임없는 이행」에서 「종신고용」으로
- 비정규직 고용 및 실업 증가
표준적 이행 패턴이 축소/해체

청년의 비정규직 고용률 추이 (1985-2025)



2001년 이전에는 「노동력조사 특별조사」, 2002년 이후에는 「노동력조사 상세집계」를 토대로 작성. 2001년 까지는 2월, 2002년 이후에는 1~3월 평균치. 15~24세는 「재학 중」 제외.

고용 불안정화 요인

- 일본경영자단체연맹 「신시대의『일본적 경영』」(1995년)

「장기축적능력 활용형 그룹」(관리직/종합직/기능 부문의 관리직)
 <종신고용>

「고도전문능력 활용형 그룹」(기획/영업/연구개발의 전문 부문)
 <기간제 고용>

「고용유연형 그룹」(일반직/기능 부문/판매 부문)
 <기간제 고용/시급제>

고용 불안정화 요인

- 노동자파견법(1985년~)을 「개정」

1999년 : 제조 이외 대부분의 업무에서 파견 자유화

(그 전에는 26개 업무에 한함)

2004년 : 제조업 파견도 가능해짐 / 파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15년 : 기업은 사람만 바꾸면 3년 이상 파견으로 고용 가능

(파견노동자측은 3년 지나면 고용 정지)

- 노동계약법을 「개정」(2013년)

기간제 고용 노동자가 5년 동안 지속해서 근무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회사측은

그 사람을 무기한 고용해야 함. 5년 미만의 고용 종료가 횡행.

연구 배경 2

- 비정규 고용의 확대 요인을 청년의 의식(「근로관」) 문제로 간주하는 여론

- 각 개인의 이력을 자세히 청취함을 통해, 「비정규 일을 전전하다」는 식으로 표현되기 십상이지만 실은 그 내면에 있는, 그들 스스로 만드는 리얼한 삶의 형태를 기술하고 싶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 : 공동 조사

- 동경도립대학교 / 수도 대학교 도쿄 그룹의 공동 조사 • 조사 시기
 - 2002년 : 고교 3학년 재학 시 (89명)
- 청년 대상 경년적 인터뷰 • 2003년~2004년 : 고졸 1년째 (53명)
- 도쿄의 두 개 공립 보통과 고등학교
 - A 고교 : 「중위권」
 - B 고교 : 「최하위권」 • 2005년~2006년 : 고졸 3년째 (39명)
 - 2007년~2008년 : 고졸 5년째 (33명)

연구 방법 : 단독 조사

- 공동조사 종료 후, B 고교 출신 네 명의 여성들을 단독으로 추적
- 고졸이며 여성, 즉 사회 계층 및 성별에서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 착안
- 조사 시기
 - 2012~13년 : 고졸 10년째 : 4명
 - 2014~15년 : 고졸 12년째 : 4명
 - 2022년 : 고졸 18년째 : 2명
- 현재도 네 명의 관계는 지속 2025년 현재, 만40세~41세 (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

연구 성과

이누이 아키오(2013)『고졸 5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츠키서점



스기타 마이(2015)『고졸 여성의 12년 — 불안정한 노동, 느슨한 연결』 오츠키서점



오늘 발표

- 네 명의 여성들의 궤적을 소개하면서 비엘리트 젊은 여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밝힌다.
-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기한다.

※ 여성들 성함은 모두 가명

3. 네 명의 여성들의 상황

금번 발표하는 조사 대상자인 쇼야마님 이야기

「오래 살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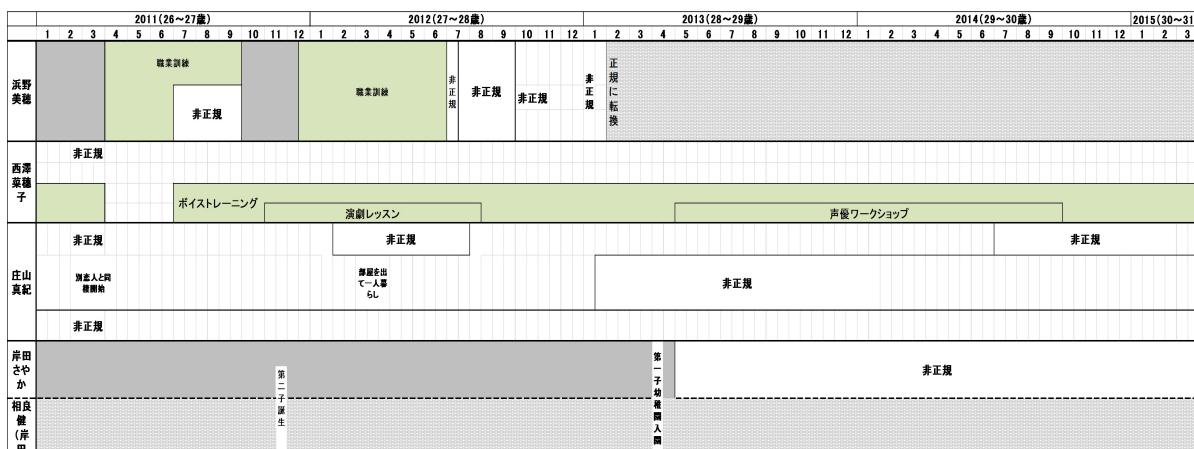
「가능하면 서른 살 되기 전에 죽고 싶다」

- 하마노 미호님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미용실을 1년 3개월만에 그만 두고 이후에는 비정규직 일을 하고, 고졸 10년째에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 5개월 후에는 정규 고용으로 전환.
- 쇼야마 마키님은 일관되게 비정규로 근무.
- 니시자와 나오코님은 지인 소개로 정규직 취업을 했으나 3개월만에 이직, 그 후에는 비정규로 계속 일해 왔다. (현재는 병 요양 중)
- 기시다 사야카님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고졸 4년째에 고교 동급생 사가라 타케시님과 결혼. 고졸 6년째에 첫 자녀, 8년째에 둘째를 출산해서 일을 그만 두었으나 11년째에 다시 시작. (그 후 셋째를 출산하여 현재는 만16세, 14세, 8세 자녀를 둠.)

네 명의 고졸 여성들의 궤적 1 (2003년~2006년)

네 명의 고졸 여성들의 궤적 2 (2007년~2010년)

네 명의 고졸 여성들의 궤적 3 (2011년~2014년)



4. 그녀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것

그녀들의 진로 선택

- 고등학생 시절부터 노동자이며 가계를 책임지는 존재.
- 진로를 선택할 때 경제적 제약을 크게 받음.
(4명 모두 전문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단념.)
진로 선택에는 성별 차이도 있음.

그녀들의 노동 경험

-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들은 도시락 가게, 음식점, 노래방, 마작방 등에서 판매와 접객 업무.
- 시급은 낮고(시급은 2000년대 당시 일본 엔으로 800엔대), 원하는 시프트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하게 되거나 반대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들기도 함.
- 정사원처럼 일하지만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과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그녀들의 노동 경험

- 여러가지 일을 병행해서 안정화시키려 해도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 더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 「성매매 서비스」에 종사해도 수입을 안정화시키고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녀들의 노동 경험

-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장시간/저임금으로 혹사 당하고 동기가 없어서 고립 당하게 되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 한번 정규직 일을 그만두게 되면 여성은 재취업이 어렵다.

그녀들의 노동 경험

- 비록 불안정한 일이라도 계속 일하기 위한 지혜와 요령을 점차 체득했다.
예: 주 1회 이상 휴식, Opening Staff(오픈 멤버)
- 그러나 업무를 통한 정체성 형성은 어렵고 미래도 그리기 어려웠다.

그녀들의 생활

- 결혼을 원하는 시기가 있었도 결혼/자녀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
교제 상대인 남성 역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여성 한테서 「돈을 뜯어」내거나 구속했다.
-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밴드의 팬질, 코스프레, 성우, 「동인지」, 테마 파크 등의 소비 문화로 위로를 삼는다. 이러한 문화를 통해 미래 전망을 그리기도 한다.

그녀들의 생활

-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가 의지가 된다.

때로는 관계가 잠시 끊어지거나, 유지는 하지만 별로 안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없다.

예상할 수 있는 조건 : 자라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생활하는 일이 없다.

B 고등학교 추억 이야기를 공유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관계와 장소

그녀들의 생활

- 지역의 윗세대 사람들과 의료/복지 관계자들이 지탱해 준다.

쇼야마님을 지켜 보는 니시자와님의 부모들과 지역의 멘탈 클리닉 의사

하마노님에게 생활 보호를 계속 받도록 권유하는 사회복지사

그녀들의 생활

- 기시다님 이외의 세 명의 상황은 그 후에 악화됨.
(기시다님은 남편이 과로 상태.)

→ 중년 여성의 빈곤 문제로 이어짐.

5. 지금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 발표자의 전공은 교육학이지만, 이는 교육 이전의 문제임.

열악해진 고용 상황 개선

사회보장 확대

공영주택 확충 및 월세 지원

지금 필요한 것

- 학교 교육을 통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 임신과 성매개감염증, 폭력, 의존증을 포함한 질환, 심신 케어, 일하는 규칙, 생활 보호와 육아 지원, 소비자 금융, 요리 등

— 가정과, 사회과, 보건 체육, 종합 학습 등의 과목을 통해

• 「내 탓」이라고 잘못 인식해서 사회적으로 고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배움과 연결/관계.

지금 필요한 것

- 학교 외에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기관등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거처)를 여기저기에 만든다.

쇼야마님 「나시자와씨 집에 있을 때에는 역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겁습니다.」

가족의 어려움과 지역 커뮤니티의 폐쇄성을 생각할 때, 사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공적인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 : 핀란드에서 10~28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자 아이들의 집」

지금 필요한 것

- 그녀들은 사회 구조의 희생자(「불쌍해!」)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그 사람이 좋아서 하고 있다면」)도 아니다.
-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로 및 방법을 모색.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토론자료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지정토론1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에 대한 토론문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에 대한 토론문

강영배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전공]

1. 서론: 청년 세대의 성인기 이행과 한일 비교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및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며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토론문은 김기현(2025)의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교육 기대와 직업 포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 청년의 진학 및 취업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 청년의 진학 및 취업 선택 특성

김기현(2025)의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를 통해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선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대 측면에서 4년제 대학까지 진학을 희망하는 응답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고등교육 보편화 경향을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고졸 희망자는 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급감하였고, 대학원 진학 희망 또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입 전형 변화(수시 확대, 정시 확대 및 쉬운 수능 출제, 의대 정원 확대 등)와 더불어 학사 학위 취득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준다. 실제로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은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선택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 2023년 크게 감소(9.4%p) 한 반면,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는 응답은 2015년 11.5%에서 2023년 16.2%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 미결정 및 대학 미진학 가능성은 직업계고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 가족 배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업을 정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직업계고에서 높게 추정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은 긍정적인 반면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 아르바이트 경험, 가구 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15-29세)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최근 저출생 영향으로 감소 추세이나, "취업률" 인구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대기업 채용 방식 변화(공개 채용 → 수시/경력직) 등으로 인해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결과적으로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이 증가하고, 조기 취업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일본 청년의 진학 및 취업 선택 특성

일본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고도 성장기 이후 학력 사회로의 전환,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를 겪으며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 특성에 변화를 경험하였다.

첫째,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7.3%에 달하며, 대학(학부)·단기대학 진학률은 62.3%, 전문학교 진학률은 24.0%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이 사실상 '의무 교육 단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나 전문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 미달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직업 선택 및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일본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 '내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기준 대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률은 8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프리터(Freeter)'(비정규직 근로자)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청년층의 취업 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활성화협력대'와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같은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윤리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1년 내 취업 성공 비율 85.6%를 달성할 정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일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일본 청년의 진학 및 취업 특성을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전환과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이지만, 동시에 직업 미결정 증가와 낮은 대학원 진학률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대학 교육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괴리가 있거나, 청년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도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역시 높은 진학률 속에서 지방 대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학사 중심의 획일적인 고등교육 경로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직업 교육, 혁신적인 기술 인재 양성,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통한 심화 학습 경로를 강화하여 인적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예산 삭감 문제 해결 및 생활비 지원 등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취직 내정' 시스템이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장기화되거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와 같이 졸업 후 조기에 청년들의 실업 및 NEET 상태를 예방하고,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의 구축과 교육-노동시장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비정규직 확대를 경험하며 청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비정규직의 확대가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국과는 달리 정규직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의 직업 선택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교육과 지역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는 한국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산학 협력 모델 구축 등 교육과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결론

김기현(2025)의 연구와 한일 비교 분석은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진학 및 취업 선택의 복합적인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뒤에 가려진 직업 미결정의 증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 그리

고 심화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한국 청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일본의 사례는 조기 개입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청년들의 자립을 돋는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일 양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은 청년들의 교육 경로를 다양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토론문이 한일청년포럼에서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1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
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に対する討論

カン・ヨンベ 教授(大邱韓医大学)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に対する討論

カン・ヨンベ 教授

(大邱韓医大学 児童青少年福祉相談専攻)

1. 序論：若者世代の成人期移行と日韓比較の必要性

現代社会において、若年世代が高等教育を修了し労働市場へと移行するプロセスは、単なる個人の選択を超えて、社会経済的構造と密接に関連する複合的な現象である。とりわけ韓国と日本は、少子高齢化という類似した人口構造の変化や学歴インフレーション現象を経験しており、若者の進学および就職に関する社会的関心が高まっている。

本討論文では、キム・ギホン（2025）の「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3つのコホート比較」の研究を中心に、韓国の若者における教育期待と職業的志向の特性を分析し、それを日本の若者の進学および就職の特徴と比較することで、韓国社会に対する政策的示唆について深く議論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韓国の若者の進学・就職選択の特性

金基憲（2025）の研究は、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に基づく3つのコホート（KYPS 2003、KCYPS 2010、KCYPS 2018）を用いて、韓国の高校3年生における進学・就職選択の変化の様相を追跡したものである。主な分析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教育期待の側面では、4年制大学への進学を希望する回答が近年にかけて大きく増加している。これは韓国社会全体における高等教育の一般化傾向を反映するものである。興味深いことに、高校卒業後の就職を希望する者は2015年に一時的に増加したものの、2023年には再び急減しており、大学院進学を希望する者も大きく減少する傾向を示している。これらの変化は、大学入試制度の変動（随時募集の拡大、定時募集の拡大と平易な修学能力試験の出題、医学部定員の拡大など）とあいまって、学士号取得に対する強い志向を示すものである。実際、25~34歳人口における高等教育修了者の割合は韓国がOECD諸国中で最高水準を記録している一方で、修士・博士学位取得者の割合はOECD平均を大きく下回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

第二に、職業選択の側面では、「具体的になりたい職業がある」とする回答が2023年において大きく減少（9.4ポイント）した一方で、「まだなりたい職業がない」とする回答は、2015年の11.

5%から2023年には16.2%へと増加していた。この結果は、若者が進路を決定するうえでの不確実性が一層深まっ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職業未決定および大学未進学の可能性は、職業系高校の生徒において高く、アルバイト経験はその可能性に対して肯定的に作用する一方、学業成績、自己肯定感、家族背景は否定的に作用す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また、職業をすでに定め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大学に進学しない可能性は、職業系高校においてより高いものとみられ、ボランティア経験は肯定的だった反面、学業成績、自己肯定感、アルバイト経験、世帯所得は否定的に影響するものと分析された。

第三に、労働市場への移行の側面では、韓国の若年失業率（15～29歳）は、2009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に上昇した後、近年は少子化の影響を受けて減少傾向にある。しかしながら、「休んでいる」人口の増加、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深刻化（大企業と中小企業、正規職と非正規職の格差拡大）、および大企業における採用方式の変化（公開採用から随時採用・キャリア採用への移行）などの要因により、体感としての雇用環境は依然として厳しい状況にある。その結果、学校卒業または中途退学後に初めて就業するまでの所要期間は長期化しており、早期就業の割合は低下傾向を示している。

3. 日本の若者の進学と職業選択の特性

日本もまた、韓国と同様に、高度経済成長期以降の学歴社会への移行、労働市場の変化、そして人口構造の変動を経て、若者の進学と就職の特性に変化が生じた。

第一に、日本の高等教育機関への進学率は87.3%に達し、大学（学部）・短期大学への進学率は62.3%、専門学校への進学率は24.0%と、いずれも過去最高を記録している。これは、高等教育が事実上「義務教育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高進学率にもかかわらず、首都圏の大学や専門学校への「偏重現象」が深刻化しており、地方大学では新入生の定員割れや廃校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これは、少子化による学齢人口の減少と相まって、地域経済に深刻な打撃を与えうる要因とされている。

第二に、職業選択および労働市場への移行の側面において、日本の若者は大学卒業と同時に「内定」を得る場合が多く、韓国に比べて比較的スムーズに労働市場へと移行する傾向がある。実際、2022年12月時点の大学卒業予定者の内定率は83%を記録した。しかし、日本においても「フリーター（非正規労働者）」や「ニート（NEET）」の問題は深刻であり、これらの人口は減少傾向にあるものの、依然として社会問題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れは、労働市場の不安定性と若年層の就業意欲低下が複合的に作用した結果と解釈される。また、日本企業には新卒採用よりも中途採用、正規雇用よりも非正規雇用を好む傾向があり、これが若年失業率の上昇要因ともなっている。非正規労働者は、正社員に比べて雇用保険、健康保険、厚生年金といった社会保険の加入率が著しく低いなど、劣悪な労働条件に置かれている。

第三に、日本政府は若年層の雇用・失業問題を解決するため、2003年から「若者自立・挑戦プラン」を皮切りに、様々な政策を推進してきた。「地域おこし協力隊」や「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などの事業は、ニート・フリーターの自立や正規雇用、ひきこもり問題の解決に寄与し、成功事例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とりわけ「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は、1年内の就職成功率が85.6%に達するなど、個別支援プログラムの効果が高いことが示されている。

4. 日韓の比較を通じた韓国社会への示唆

韓国と日本の若年層における進学と就職の特性を比較することで、いくつかの重要な示唆を導き出すことができる。

第一に、高等教育の量的拡大を越えて、質的転換と多様性の確保が急務である。韓国はOECD加盟国の中でも最高水準の高等教育進学率を示しているが、その一方で職業未決定の増加や大学院進学率の低さという逆説的な状況に直面している。これは、大学教育が実際の労働市場で求められる能力と乖離しているか、あるいは若者が学位取得後も進路を明確に設定でき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日本もまた、高い進学率の中で地方大学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だけに、韓国は学士課程中心の画一的な高等教育ルートから脱却し、専門化された職業教育の強化、革新的な技術人材の育成、そして大学院進学による高度学習ルートの拡充を通じて人的資本の質を高め、将来社会の変化に柔軟に対応できる人材を育成する必要がある。特に、R&D予算削減の問題を解消し、生活費支援など大学院進学を促進するための支援政策の整備が求められる。

第二に、若者が円滑に労働市場へと移行できるよう、早期介入および個別対応型の支援体制を強化すべきである。日本の「内定」システムや「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見られるような積極的な介入と支援の事例は、韓国にとって重要な示唆を与える。韓国では若年層が「休んでいる」状態のまま長期化し、労働市場への参入に困難を抱える傾向が深まっている。研究で言及されたEUの「若者保障制度」のように、卒業後できるだけ早期に若年層の失業やNEET状態を予防し、良質な雇用、持続的な教育、見習いや訓練の機会を提供する包括的な制度の構築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には、官民協力による「若者雇用オールケア・プラットフォーム」の整備や、教育と労働市場情報の連携に関する法的根拠づくりが不可欠である。

第三に、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緩和と良質な雇用の拡充が並行して求められる。韓国と日本の双方が非正規雇用の拡大を経験しており、若年層の雇用の質という側面で課題を抱えている。日本は、非正規雇用の拡大が若年層の雇用悪化を緩和し得るという韓国の見方とは異なり、正規雇用の拡充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韓国も、大企業と中小企業、正規雇用と非正規雇用の格差を解消し、若者が安定的に社会へと定着できるよう、良質な正規雇用を拡大する政策努力が必要である。これは、若年層の職業選択における不確実性を減らし、労働市場への移行を促進する中核要因となる。

第四に、地方の消滅リスクに対応し、教育と地域経済との連携を強化すべきである。日本の地方大学が定員割れや廃校の危機は、韓国の地方消滅問題に直結する重要な示唆を与えている。若年人口の首都圏集中を緩和し、地域の活力を維持するためには、地域に特化した産業と、それに連携する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地域人材の地域内定着を誘導する産学連携モデルの構築など、教育と地域経済が共存・共栄できる道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

5. 結論

キム・ギホン（2025）の研究および日韓の比較分析は、韓国の若年層が直面している進学と就職選択の複雑な様相を明確に示している。高等教育進学率の高さの陰に隠れた職業未決定の増加、不安定な労働市場への移行、そして深刻化する労働市場の二重構造は、韓国の若年層政策が解決すべき喫緊の課題である。日本の事例は、早期介入を通じた体系的な就業支援と、若者の自立を支える政策の重要性を示唆している。日韓両国の経験を教訓とし、韓国は若者の教育経路を多様化し、労働市場への移行のための実質的かつ持続的な支援を強化し、最終的には若年層が安定的に自立し社会に貢献できる環境の整備に総力を挙げる必要がある。本討論文が、フォーラムにおいて両国の未来を担う若者の進路問題に関する深い議論の端緒となることを期待する。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지정토론2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유빈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유빈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 여는 글

오병돈 교수께서 연구하신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약 14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기 성인기 이행을 교육·취업·분가·군복무 간 이루어지는 이행패턴으로 모형화하고, 종단잠재계층 분석(LLCA)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성별 전환경로의 이질성과 그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2.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중1에서 고3까지의 가족배경(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교육, 거주지역)과 교육성과(고등학교 유형·성적)을 설명변수로 해서, 그 이후의 이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하였음. 남성은 '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 여성의 경우에는 '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잠재계층을 식별하였음.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 후 취업형이 타 유형 대비 고등학교 유형이 직업계인 경향성이 강했고, 고등학교 성적이 낮고 가구소득이 하위일수록 남녀 모두 '조기 노동시장 진입(군 복무 후 취업형도 조기 노동시장 진입에 가깝다고 판단 가능)'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반면, 부모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교육·취업·분가·군복무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 단선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 경로의 다양성을 계량적으로 규명했고, 남성의 이행 궤적에서는 군복무의 영향이 여성대비 교육·고용 선택을 지연·재편한다는 사실을 확인, 병역과 교육 간 연계정책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분가 시차가 가구소득에 따라 빈곤-책임(조기 취업형)과 부모 지원(분가 지연형)으로 양극화됨을 보였음.

이에, 발표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육 불평등 완화의 측면에서는 직업계고·저성적 학생 대상 장학금·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조기 취업 경로를 완충한다던지, 군복무-학업 연계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점 이수·군 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으로 단절이 아닌 군복무에서 학업으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정책제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임.

3. 연구 고찰 및 제안

다음의 사항은 데이터 및 방법론상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일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이행패턴 정의: 잠재계층 식별에 있어, 교육과 취업, 분가, 군복무를 단일 이진 변수로 코딩한만큼, 재학 중 파트타임 취업, 주중 기숙사주말 부모동거와 같은 강도와 빈도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실제 잠재계층이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만큼, 경로 간 분산을 과소추정할 가능성 존재.
예를 들어, 취업은 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분가는 거주형태, 보증금, 월세비율로 다항화해서 질적 전환을 구분하고, 잠재성장혼합모형(LGMM)으로 임금 궤적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지? 즉, 4개 계층 외에도 더 세분화된 계층적 문제가 존재
- 2) 발표자료에서는 확인키 어렵지만, BIC 기준으로 최적으로 설정한 네가지 계층이 인접 모형 간 차이가 작을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 부트스트랩-LMR, cross-validation 등의 교차검증이 병행되었는지?
- 3) 이행궤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8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취업과 분가를 포함한 개인의 경로를 과소평 가할 우려가 없는지, 남성 269명, 여성 326명의 소규모 샘플로 분석하는데 있어 표본오차 확대의 우려가 존재
- 4) 성별 분리를 통해 LLCA를 추정한 이유? 성별 통제를 통해 교차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예를 들어, 성별×사회계층 교차효과를 통해, 저소득 여성 vs 저소득 남성이 경로 유형 결정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검정할 수 있을 것. gender covariate를 추가해 상호작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4. 맺는말

본 연구는 한 세대의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실증분석하였음. 같은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누군가는 군복무를 후 직장으로, 다른 누군가는 학업을 이어가다 중간에 일을 겸하며, 또 다른 이는 취업 뒤에도 부모와 살거나 반대로 졸업과 동시에 분가. 즉, 교육·고용·주거·병역이라는 네가지 축이 만드는 이행 궤적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기회 격차의 구조적 근거이기도 함. 가구소득·학업성취·학교 유형의 차이가 초기 취업이나 분가 지연과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로 의존성과 남성에게는 군복무가, 여성에게는 분가 여부가 전환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청년 자신의 자기 책임 외 가족배경과 사회제도에서 발생하는 생애이행에 있어서의 장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토론 중에 언급한 군복무-학업연계 강화와 더불어, 직업계고, 저성적 청년에 대한 2차 기회 제공의 필요성, 맞춤형 직업훈련과 후속학위 혹은 평생교육 강화의 필요성, 취약지표를 기반으로 한 경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아가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보완을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이행궤적에 맞춘 다층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함.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2

「交差する人生経路:
韓国青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
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に対する討論

キム・ユビン 主任研究委員(韓国労働研究院)

「交差する人生経路: 韓国青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 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に対する討論

キム・ユビン 主任研究委員
(韓国労働研究院)

1. はじめに

オ・ビヨンドン教授の研究された「交差する人生経路: 韓国青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は、「韓国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の約14年間のデータを用いて、初期の成人期移行を教育・就職・離家・兵役の間で行われる移行パターンにモデル化し、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LLCA)と多項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によって、男女の転換経路の異質性やその決定要因を体系的に分析したという点に意義がある。

2. 研究の要約及び意義

本研究は、中学1年生から高校3年生までの家族背景(世帯所得、両親の職業・教育、居住地域)や教育成果(高校のタイプ・成績)を説明変数とし、その後の移行パターンに及ぼす影響を男女別に分けて分析した。男性においては「兵役後就職型」、「兵役後教育型」、「休・復学型」、「教育優先型」、女性においては「早期就職型」、「段階的な移行型」、「離家遅延型」、「教育延長型」の4つのタイプに潜在クラスを識別した。分析の結果、男性の場合は、「兵役後就職型」が他のタイプに比べて高校タイプが実業系である傾向が強く表れた。高校の成績が低くて世帯所得が低いほど、男女ともに「早期の労働市場への参入」(兵役後就業型も早期の労働市場参入型に近いと判断できる)階層(クラス)に属する確率が有意味に高く表れた。一方で、両親の学歴・職業や居住地域は統計的に有意味でないと表れた。

教育・就職・離家・兵役を同時に考慮することで、これまでの単線的な研究の限界を超えて経路の多様性を計量的に明らかにし、男性の移行軌跡においては、兵役の影響が女性に比べて教育・雇用の選択を遅延・再編するという事実が確認できたため、兵役と教育間での連繫政策の論拠を提供できると考えられる。また、女性の場合は、女性の離家の時差が、世帯所得にしたがって貧困-責任(早期就職型)と、両親からの支援(離家遅延型)に二極化していること分かった。

そこで、発表資料では確認できなかったが、教育不平等の緩和という面からは、職業高校・成績の低い学生を対象に奨学金やカスタマイズ型の職業訓練を拡大して早期就職経路を緩衝したり、兵

役-学業連携の面からは、オンライン単位取得や軍経歴を単位として認める制度を導入することで、断絶ではなく、兵役から学業への連続性を確保するなどの政策提言へ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3. 研究の考察及び提案

以下の事項は、データ及び方法論上の限界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一部迂回的な方法を用いて「児童・青少年パネル調査」で確認できる点。

- 1) 移行パターンの定義：潜在クラスの識別において、教育や就職・離家・兵役を単一の二値変数としてコーディングしているだけに、在学中にパートタイムをしているか、「平日は寮生活-週末は両親と同居」といった、強度や頻度などにおける異質性が反映されていないという限界がある。実際には潜在クラスがより細分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だけに、経路間の分散を過小推定する可能性あり。
例えば、就職は賃金・雇用形態・労働時間、離家は居住形態・敷金・家賃の割合などで多項化することで質的転換を区分し、潜在成長混合モデル（LGMM）で賃金の軌跡や住居費の負担などを考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つまり、4つの階層のほかにも、より細分化した階層の問題が存在。
- 2) 発表資料では確認が難しいが、BICを基準に最適として設定した4つの階層において隣接モデル間の差異が小さい可能性はないだろうか。ブートストラップ-LMR、交差検証（cross-validation）などのクロス検証は並行されたのか。
- 3) 移行軌跡を判断するにあたり、8年間という期間を考慮すると、就職や離家を含む個人の経路を過小評価する恐れはないだろうか。男性269名、女性326名の小規模サンプルで分析するうえで標本誤差の拡大リスクがある。
- 4) 性別を分けてLLCAを推定した理由は。性別を統制して交差効果を把握する方が適しているのでは。例えば、性別×社会階層の交差効果によって、低所得女性vs低所得男性が経路タイプの決定にどのように異なる作用をするかを直接検証できと思われる。ジェンダ-共変量(gender covariate)を追加して相互作用を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4. 結びに

本研究では、ある世代の青年が成人へと移行する道は決して一つではないことを実証分析した。同じ年に高校を卒業しても、ある者は兵役を終えてから就職し、ある者は学業を続けつつ途中から働き始め、またある者は就職後も両親と同居し、或いは卒業と同時に離家する者もいた。つまり、教育・雇用・住居・兵役という四つの柱によってつくられる移行軌跡は、青年が体感する不安や機会格差の構造的な根柢でもある。世帯所得・学業成績・学校タイプの違いが早期就職や離家の遅れ

といった選択につながる経路依存性と、男性にとっては兵役が、女性にとっては離家が人生の分岐点となることを確認した。それが意味するところは、単に青年自身の責任のほか、家族背景や社会制度によって生じる、生涯移行における障壁を意味すると解釈できる。

討論の中で触れた兵役・学業連繋の強化とともに、実業系高校や成績の低い青年を対象とする二次機会の提供の必要性、カスタマイズ型の職業訓練や後続学位または生涯教育の強化の必要性、脆弱性の指標に基づく経路モニタリングシステムの構築、さらには非首都圏地域の若年層向けの雇用及び地域定着インフラ整備などの政策補完により、若年層の多様な移行軌跡に対応できる多層的な後押しが実現することを期待する。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지정토론3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재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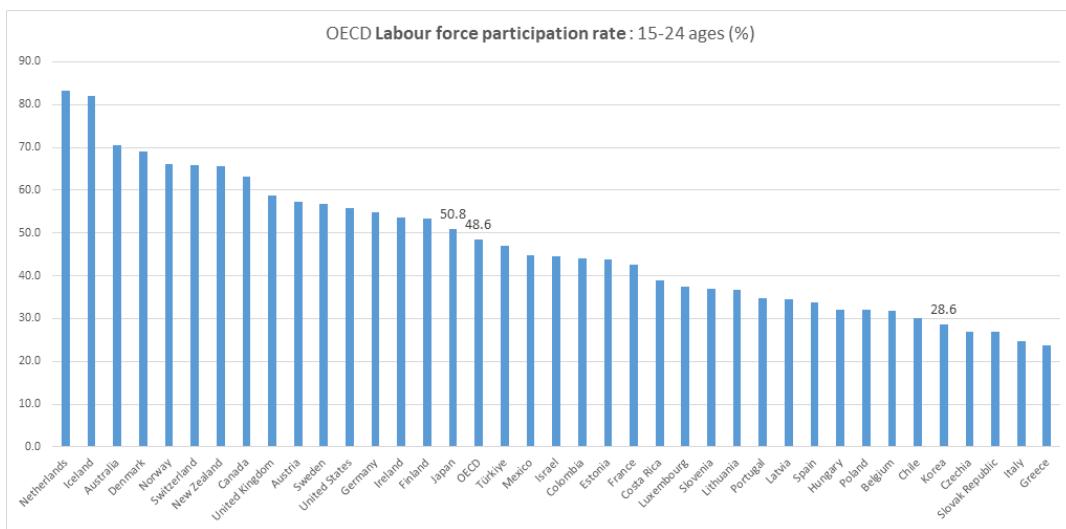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재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 이 연구는 2006년에 20~34세 연령대로 구성된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일본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대상 코호트를 20-24세로 두고 성인 이행의 확률을 분석한 것으로 보임.
 -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립지연은 청년 개인의 의존성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
 -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성인기 이행을 정규직 취업, 분가, 결혼, 자녀출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방법은 적절하고 타당한 분석 방법이라 판단
- 한편 일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려할 독립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거주지역(대도시/비대도시권)도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거주지역의 월 임대료 수준이나 주택가격이 분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취업 후 종사한 산업이나 직업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세와 24세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연령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자립지연을 개인의 의존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비교도 필요하다고 보임.
- 사회경제제도가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비교
 - 취업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취업하려는 의향도 청년층에게 중요한 경제적 결정과정이므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성인기 이행의 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2024년 OECD의 국가별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보면 북유럽 국가(Netherland, Iceland, Denmark, Norway 등), 영미형 국가(Australia, Canada, UK, USA), Germany, Japan 이 OECD 평균보다 높음.
 - 반면 남유럽 국가(Portugal, Italy, Greece, Spain), 동유럽 국가(Slovak republic, Poland, Hungary 등), 그리고 Korea, Chile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음.

- 교육과 직업훈련과 같은 인력양성제도, 산업구조, 가족에 대한 인식, 개인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Figure 1〉 OEC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15-24 ages



자료: OECD statistics (2024년)

- (추가 질문) 이전 세대보다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전 세대는 어느 세대를 지칭하는지? 25-29세(1977-81년출생)인지, 25-34세(1977-72년출생)인지?
 - 일본경제의 거품붕괴로 가장 힘든 경험을 한 세대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 궁금
 - 세대 분석에서 연령효과(age effect)와 시기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코호트효과(cohort effect)가 있기 때문에 시기효과(period effect) 분석을 위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임.
- 성인기 이행 지연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연구가 존재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에서 전후 미국에서 점차 성인기 이행 늦어진다고 분석
- 한편 한국도 2007년에 청년패널 2차 웨이브 조사가 시작되어 이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보임.
 -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통해 많은 정책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국 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검토할 점: 대학진학률, 인구구조 등

◎ 참고문헌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Transition to Adulthood*, Princeton-brookings.
- OECD Data(<https://data-explorer.oecd.org/>) : 2025년 7월 9일 추출

청년의 멋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3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に対する討論

チョン・ジェヒョン 研究委員(韓国雇用情報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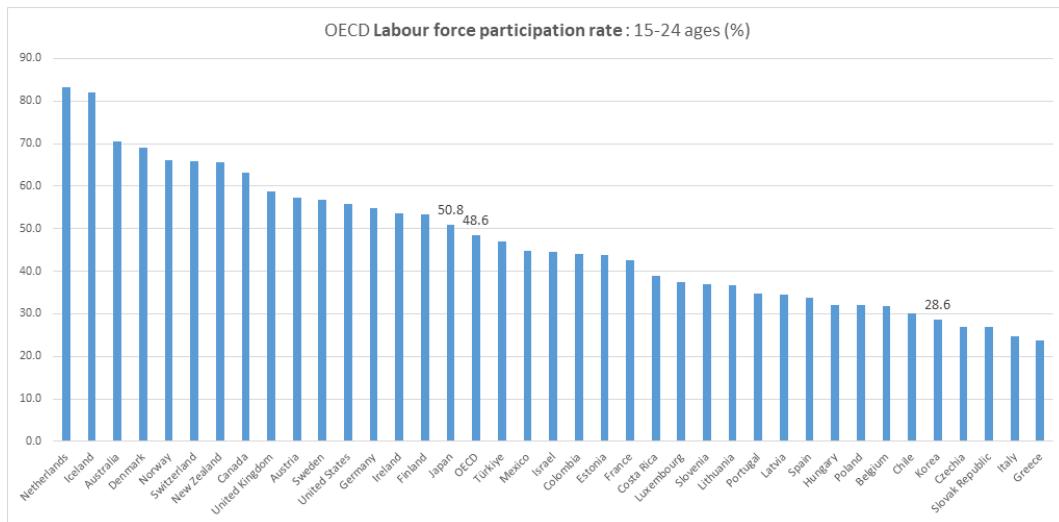
「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に対する討論

チヨン・ジェヒョン 研究委員
(韓国雇用情報院)

- 本研究は、2006年に、20-34歳の年齢層で構成された若年パネルを用いて、日本青年の成人期移行をCox比例ハザードモデルを用いて分析
 - 発表文に明示されてはいないが、分析対象コホートを20-24歳とし、成人移行の確率を分析したものと思われる。
 - 分析結果によると、自立の遅れは若者個人の「甘え」ではなく、社会問題として認識すべきである。
 - 出身家庭の社会経済的位置づけが成人期移行に影響を与えるものと分析
 - 成人期移行を正規職・離家・結婚・子持ちに分けて分析した手法は、適切かつ妥当な分析手法であると判断
- 一方、一部の従属変数については、追加で考慮すべき独立変数が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
 - 例えば、居住地域（大都市・非大都市圏）も各従属変数に影響を与え得る
 - 居住地域の毎月の家賃水準や住宅価格が離家に影響を与え得る。
 - 就職後に従事する産業や職業が結婚や子を持つことに影響を与え得る。
 - 20歳と24歳の置かれた状況が異なるため、統制変数として年齢を追加することも考慮に値する。
- 自立の遅れを個人の「甘え」の問題ではなく社会問題としてとらえ、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には、国際比較も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 社会経済制度が若年の労働参加率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の国際比較
 - 職に就いていることも重要だが、就職しようとする気持も若年層にとって重要な経済的決定過程であるため、若年の労働参加率は成人期移行の一つの指標としてみなすことができる。
 - 2024年OECDの国別15-24歳の労働参加率の資料によると、北欧諸国（オランダ、アイスランド、デンマーク、ノルウェー等）、英米圏諸国（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イギリス、アメリカ）、ドイツ、日本がOECD平均を上回っている。
 - 一方、南欧諸国（ポルトガル、イタリア、ギリシャ、スペイン）、東欧諸国（スロバキア共和国、ポーランド、ハンガリー等）、そして、韓国、チリは、OECD平均を大幅に下回る。

- 教育や職業訓練などの人材育成制度、産業構造、家族に対する認識、個人の独立性に対する認識が影響を及ぼすものと考えられる。

<Figure 1> OEC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15-24 ages



資料：OECD statistics (2024年)

- 追加質問) 「前の世代より高い」という分析があるが、「前の世代」とはどの世代を指すものか。25-29歳（1977-81年出生）なのか、25-34歳（1972-77年出生）なのか。
 - 日本経済のバブル崩壊によって最もつらい経験をした世代はどの世代だと思うか。
 - 世代分析において年齢効果 (age effect) と時代効果 (period effect) 、そして、コホート効果 (cohort effect) があるため、時代効果の分析にあたり、これについての考慮も必要だと考えられる。
- 成人期移行の遅れが時代ごとに異なるという研究がある。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によると、戦後アメリカにおいて次第に成人期移行が遅れていると分析
- 一方、韓国でも2007年に若年パネル第2波調査が開始され、本研究と類似する方法で研究を行なうことができ、具体的な比較研究も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
 - 現在の時点では、日本の方が韓国より良い状況であると思われる。
 - むしろ韓国が日本から多くの政策的な示唆点を得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思われる。
 - 両国間において相違をもたらす要因について検討すべき点：大学進学率、人口構造など。

参考文献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Transition to Adulthood, Princeton-brookings.
- OECD Data(<https://data-explorer.oecd.org/>) : 2025年7月9日に抽出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지정토론4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문

유민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문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일본의 고졸 여성 4명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지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코호트 연구 방식의 양적연구에서 파생된 질적 연구가 종단적으로 이루어져 풍부한 설명으로 삶의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숫자나 그래프로 보는 것과 같이 선형적이지도 않았고 곡선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역시 숫자 1과 0으로 대별되지도 않았다. 본 토론자는 숫자 너머의 삶을 보여주는 연구를 읽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에 본 토론자는 저자가 논의한 2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 상황을 소개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저자가 제시한 개선 방안 3가지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더하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서로 닮아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고졸 여성의 궤적

저자가 제시한 주제 중 본 토론자는 한국과 일본의 고용안전망과 사회권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의 청년들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먼저, 이 글이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불안정성, 특히 저자의 표현으로 ‘논엘리트’ 여성의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 높은 인권침해 가능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두 사회 모두 ‘발전국가’ 모델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의 기축인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권 보장의 기축인 고용안전망과 고용 관련 법제의 발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사고와 개인에 대한 외부적/내부적 책임이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사회와 우리사회는 모두 더 나은 ‘인생 궤적’을 위해 진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환경에서의 청년들의 반응도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 “가능하면 30세가 되기 전에 죽고 싶다”는 한 참여자의 말은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다”던 인터뷰이를 떠올리게 한다. 불안정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생활을 시작하고, 최저임금 조금 넘는 일을 하다가 돈을 더 준다는 말에 간 직장에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낮은 처우, 단기계약이 이어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은 청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다. 무기력의 늪에 빠져 멈추어 있는 청년들, 그러다 더 고립의 심도가 깊어지는 청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보다 청년 개인에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방향성마저도 두 사회는 닮아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연 변화해야 할 대상이 청년 자신인가, 아니면 이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명확하게 할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적 사회보장의 문제와 사적 공동체 문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 이전의 문제”를 이야기한 저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저자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공용주택과 임대 보조를 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 한다. 이러한 지원은 노동시장 내에서 삶의 굴곡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애주기적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더욱 춤촘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을 넘어선 더 섬세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학문적이거나 직업적인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는 흔히 자립준비 청년과 같이 특정 계층에게만 자립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가족이나 선후배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식이 전수되던 연결망이 약화된 지금, 사실상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립 기술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늘어난 성인 이행기의 자립 기술을 전달하는 공적 체계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셋째,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성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이것이 상징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국과 일본처럼 강한 공동체주의의 혹은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고립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사적인 연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공적인 연결망 혹은 장소’가 가능할지이다. 한국 사회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청년들을 니트 청년, 고립청년, 은둔청년, 쉬었음 청년 등으로 명명하면서 센터와 서비스를 만들어 공간과 프로그램 전달하는 여러 정책 실험을 거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2023).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자신들만의 실험을 한다는 것, 단점이라고 하면 큰 차별성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에 명칭만 바꾸어가며 단기적인 실험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주길 부탁드린다.

저자는 수십년 간의 노력으로 매우 인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여러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좋은 발표를 위해 멀리서 한국을 찾아와주신 스기타 마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번역자료4

「不安定社会における 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 に対する討論

ユ・ミンサン 主任研究委員(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不安定社会における日本の高卒女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に対する討論

ユ・ミンサン 主任研究委員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この研究は、日本の高卒女性4人の人生の軌跡をたどりつつ、彼女たちがどのよう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のかを分析した質的研究である。コホート研究方式の量的研究から派生した質的研究が縦断的になされており、豊富な説明を以って人生の軌跡が説明されている。彼女たちの人生は、我々が数値やグラフで見るように線形的なものでもなければ、曲線的なものでもなかったものと思われる。その結果もまた「1」と「0」で分けらえることもなかった。本討論者は、数字の背後にある人生を示す研究を読むことができ、大変うれしく思っていることを伝えておきたい。そこで本討論者は、筆者が論じた2つの主題について韓国の状況を紹介しながら議論を深めるとともに、筆者が提示した3つの改善策に対して質問と提言を加えることで、よりよい代案を模索したい。

1. 互いに似通う日本と韓国の高卒女性の軌跡

筆者が提示した主題の中でも、本討論者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と社会権の発展、そしてそうした環境下での若者たちの反応について論じたい。まず、本稿が示す日本社会の不安定性、特に筆者の言う「ノンエリート」女性が参入する労働市場における不安定性や低い待遇、人権侵害の可能性の高さなどは、韓国社会においても同様に観察される現象である。これは、両国とも「発展国家」モデルに基づいて成長してきた過程において、社会権の保障の基軸である社会保障制度や、労働権の保障の基軸となる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および関連法制度の整備が著しく遅れてきたことに起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また、共同体的な思考と、個人に対する外的・内的な非難が、こうした困難を当事者が口にしづらくしている。この点においても、日本社会と韓国社会は、ともにより良い「人生の軌跡」を実現するために進歩する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な環境における若者たちの反応も、韓国と日本で類似している。「できれば30歳になる前に死にたい」というある参加者の言葉は、「明日、目覚めたくない」と語った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姿を想起させる。不安定な児童・青少年期を過ごし、自立の基盤が整わないまま独立した生活を始め、最低賃金をわずかに上回るような仕事をしていた中で、より賃金が高いという言葉につられて入った職場で傷つき、自己肯定感を失い、最終的に孤立した生活を送っていた若者もいた。このように、韓国と日本の双方で、不安定な労働市場、低い待遇、短期契約が繰り返される中で未来

が見えない生活が若者たちを萎縮させ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無気力の泥沼に陥り、立ち止まっている若者たち、そして次第に孤立の度合いが深まっていく若者たちの姿を、私たちは日常的に目に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下で、根本的な労働市場改革ではなく、個々の若者に対して事後的に介入する政策の方向性までも、両社会は似通っている。このような現実は、「本当に変わるべきなのは若者自身なのか、それとも彼らを取り巻く社会構造や労働市場なのか」という問い合わせに対する答えをより明確にする根拠となっていると考える。

2. 教育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公的・社会保障の問題と私的・共同体の問題

これに対する対応として「教育以前の問題」に言及した著者の指摘に同意する。著者が提示した代案に対する本討論者の意見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雇用状況を改善し、社会保障を拡充し、公営住宅や家賃補助を提供するという提案には賛同する。こうした支援は、労働市場の中で生活の浮き沈みをより安定的に支え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韓国で現在議論されている「ライフサイクル型の社会セーフティネット」の観点からも、より綿密に設計される必要がある。ただし、生活の安定化を図るには、所得支援にとどまらない、より繊細な社会保障体制の構想が求められる。

第二に、教育が学問的あるいは職業的なスキルを教えるだけでなく、自立に関する知識と技術を伝えるべきだという点にも同意する。韓国社会では「自立準備青年」のように、特定の層にのみ自立支援が必要とされるという誤解があるが、家族や先輩後輩といった非公式な知識伝達のネットワークが弱まった現在、事実上、すべての若者に対して普遍的な自立スキルを伝える必要がある。社会的・経済的・文化的に成人移行期が長期化している現代においては、自立スキルを伝える公的な仕組みの一層の強化が求められる。

第三に、「孤立せず、繋がりながら成長していくための方策」に共感し、それを象徴的なものにとどめず、実効性を伴う形で機能させるために不断の挑戦と実践が必要だと考える。ここで一点、問い合わせて挙げたいのは、韓国や日本のように強い共同体主義や集団主義の性格を持つ社会では、孤立の衝撃が一層深刻なように見えるが、はたして「私的なつながりに依存せずに済む、良質な公的なつながりや場所」は実現可能なのか、という点である。韓国社会では、就労していない（非活性化している）若者を「ニート青年」「孤立青年」「ひきこもり青年」「休んでいる青年」などと呼び、センターやサービスを通じて空間やプログラムを提供する様々な政策実験が進められてきた（ユ・ミンサン、シン・ドンフン、2021；ユ・ミンサン、キム・ギホン、シン・ドンフン、2023）。長所としては、多くの省庁や自治体がそれぞれ独自の実験に取り組んでいる点が挙げられるが、短所としては、際立った差異がないまま類似したプログラムが名称だけを変えて短期的に繰り返されるリスクがある。もし日本において、こうした試行錯誤を経てある程度安定的なモデルが確立されているのであれば、ぜひその経験を共有していただきたい。

筆者は数十年にわたる尽力によって、非常に印象深い研究を成し遂げられ、それは韓国社会に対しても多くの示唆を与えてくれている。素晴らしいご発表のために遠路はるばる韓国までお越しくださった杉田真衣教授に、改めて心より感謝申し上げたい。

参考文献

ユ・ミンサン、シン・ドンフン(2021). 若者の社会的孤立の実態および支援策に関する研究. 世宗：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ユ・ミンサン、キム・ギホン、シン・ドンフン(2023). 若者における「休んだ」の深層分析および政策方向に関する研究. 世宗：企画財政部,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